백두여장군



PDF자료집

6.15주간 편집부

백두여장군

6.15주간 편집부

김정숙동지

(1917. 12. 24 - 1949. 9. 22)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덕에서 탄생하시여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모진 가난으로 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가와 함께 1922년 봄 두만강을 건느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연길현 북구에서, 1928년 봄부터는 8도구에서 약간 떨어 진 서산리에서 생활을 하시였다. 이곳에서 일찍부터 독립군에 참가하시여 활동하신 아버님을 여의시였다. 1929년 6월 연길현 부암동 하촌마을로 이사하신**김정숙**동지께서는 1930년 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이 배워 주는 야학에 다니시며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시였으며 1931년 9월에는 청소년들의 혁명적인 반군사조직인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1931년 추수투쟁과 1932년 춘황투쟁에 참가하시여 대오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였으며 1932년 7월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시여 조선혁명의 청년전위로서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활동하시였다. 1932년 7월 15일 일제침략자들의 ≪토벌≫에 어머님과 형님을 잃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해 늦은 가을 유격구에 들어 가시였으며 그후 8구공청위원회 위원, 8구아동단지도자의 중책을 지니시고 공청의 지도일군으로 활동하시였다. 1934년 가을부터는 공청 연길현위원회에 소환되시여 삼도만 능지영에서 생활하시면서 현내 각 구들의 공청사업과 아동단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5년 3월 삼도만유격구역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옵고 수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비서처일군들의 회의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5년 9월 안도현 처창즈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17살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항일유격전에 나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6년 4월 무송현 마안산지구에서 군복차림의 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 뵈옵고 귀중한 교시를 받으시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친위전사로 활동하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창즈전투(1935. 10), 내도산전투(1936. 11), 시난차전투(1936. 7), 서강전투(1936. 7), 무송현성전투(1936. 8)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시여 영웅적위훈을 세우시였으며 특히 무송현성전투시기 동산의 잘룩목에서 불멸의 위훈을 남기신 때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더욱 명성을 날리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7년 1월 백두산밀영에서 공산당에 입당하시였으며 이해 봄부터 가을까지의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으시고 장백현 도천리와 국내 신파지구에 나가시여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서 혁명의 배신자 엄광호놈과 견결히 싸우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시였으며 무산지구진공작전(1939년)과 대부대선회작전(1939- 1940년) 등에 참가하시여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데서 남 다른 모범을 보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을뿐아니라 홍기하전투(1940. 3), 대사하치기전투(1940년 초여름)를 비롯한 전투마다에서 자신의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수령님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적극 보좌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마음을 쓰시였으며 1940년 겨울에는 불의의 정황으로 하여 갑자기 행군하게 되자 방금 얼음구멍을 까고 빨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젖은 옷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말리워 수령님께 드리고 1941년 봄에는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채를 자르시여 적구로 떠나시는 수령님의 신발에 깔아 드리는 충성심을 발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활동시기에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에 적극 참가하시였으며 특히 1941년 여름부터 사격훈련, 통신훈련, 스키훈련, 도강훈련, 락하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뛰여 난 기질을 보여 주시였다. 1944년 3월 8일에 있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대규모 사격경기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41년 봄 위대한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예를 지니시였으며 수령님께서는 이 사진뒤면에 친필로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라고 쓰시였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된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싸우신 **김정숙**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새길신문≫은 ≪김녀사의 반생≫, ≪독립과 해방을 위해 녀성의 몸으로 반생을 투쟁, 따르자, 이 희생정신을!≫ 등의 제목으로**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하였다. 광복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 건설방침을 받들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사업에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45년 11월부터 근 1개월에 걸쳐 함경북도 선봉군과 청진시 일대에서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그 후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곳의 공장, 기업소와 농촌과 어촌 등을 찾으시여 인민들로 하여금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정치조직인 녀성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서 투쟁하시였으며 녀성들이 새 조국 건설에서 한몫을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혁명투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제분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도록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 오시였다. 실로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생애였다. 오늘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따라 배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회령과 신파땅(량강도 **김정숙**군 **김정숙**읍)에 **김정숙**동지의 동상이, 평양시 대성산의 혁명렬사릉에는 반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회령혁명사적지와 신파혁명사적지,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회령)과 ≪신파혁명사적관≫ 등이 꾸려 져 있고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곳들에 혁명사적기념비들이 세워 져 있다. 그리고 1981년 8월부터 량강도 신파군이 **김정숙**군으로, 신파읍이 **김정숙**읍으로, 량강도 혜산제2사범대학이 **김정숙**사범대학으로, 량강도 신파녀자고등중학교가 **김정숙**녀자고등중학교로 불리워 지고 있다. 또한 도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조선로동당출판사, 1979년 발행),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항일무장투쟁시기≫(조선로동당출판사, 1982년 발행),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해방후시기≫(조선로동당출판사, 1982년 발행)을 비롯하여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였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세기와 더불어 제 8권



타향에서 봄을 맞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친필이 적혀있는 사진이다.

언제인가 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사진앞에서 이 사진은 자신께서 제일 아끼던 사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시절을 추억하실 때마다 **김정숙**동지를 자주 회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동지로, 잊을 수 없는 혁명전우로 살아계시였다.)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남야영에 머물러있을 때입니다. 남야영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항일련군 1로군산하의 부대들이 초기에 사용한 워로쉴로브근방의 림시기지입니다. 남야영을 B야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한해 겨울을 난 다음 나는 다시 만주와 국내에 나와 소부대활동을 벌였습니다. 1942년 여름부터 우리는 쏘독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급변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동북항일련군과 쏘련군부대들과 함께 국제련합군을 뭇고 북야영에 정착하였습니다. 항일투사들이 A야영이라고 부르는 하바롭스크부근에 있는 기지가 바로 북야영입니다.

나는 하바롭스크회의가 있은 다음 남야영으로 갔습니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남야영에 와있던 최현이 멀리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습니다. 그가 털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나를 눈이 떼꾼해서 쳐다보다가 웬 신사인가 했더니 김장군이였구만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현이 어찌나 포옹을 세게 했던지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였습니다. 그는 하바롭스크에서 회의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했는가고 투정 비슷하게 롱도 하였습니다.

남야영에서 동쪽으로 얼마간 가면 하바롭스크에서 울라지보스또크로 통하는 철길이 있고 자그마한 철도역이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모인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자체로 병실도 더 짓고 주택도 짓고 창고며 식당이며 세면장도 지었습니다. 병실은 반토굴식이였는데 인민군대의 현재 병실들처럼 침대를 2층으로 놓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때 건설공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실앞에는 널직한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있을 때 국내와 만주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준비하면서 정치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대부분이 그때 처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간 다음부터는 식량걱정을 안해도 되었습니다. 끼당 200그람 정도씩 얇게 썬 빵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입에 잘 당기지 않았습니다. 입에 선 서양음식인데다가 찬도 변변치 않아서 다들 식성이 맞지 않아했습니다.

거기에는 후방차도 있었습니다. 그 화물자동차가 근처에 있는 부업농장에 다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후방물자를 날랐습니다.

운전수는 쏘련사람이였습니다. 리오송이 운전기술을 배우느라고 내내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였습니다. 어떤 날은 부업농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는 운전수를 따라 다니는 과정에 자동차운전법도 배우고 술도 배웠습니다. 그 운전수라는 사람이 술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리오송은 그때 배운 밑천을 가지고 해방후에도 얼마간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차라면 오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내 차를 몰다가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무들이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방후 남야영에서 생활하던 쏘련전우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후방차운전수도 평양에 와서 옛친구인 리오송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원동에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던 그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941년은 우리 혁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지만 세계적 판도에서 볼 때에도 큼직큼

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입니다.

6월에 히틀러군대가 쏘련을 침공했고 12월에는 일본군의 진주만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였습니다.

참으로 1941년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불행한 해였습니다.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땅크와 대포 앞에서 형체도 없이 박살나던 수난의 해, 전화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쏘독전쟁도 태평양전쟁도 아직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래일에 대한 락관과 신념에 넘쳐 1941년을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조선혁명가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실현할 시각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봄을 맞으면서 소부대활동과 앞으로의 공동작전과 관련된 구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구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우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김책과 주보중이 남야영에 얼마동안 와있었는데 그들과도 자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바롭스크회의후 소부대들을 편성하여 국내와 만주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날자가 박두하자 **김정숙**은 나와 소부대공작에 나갈 동무들의 길차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그때 이미 결혼한 사이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되었고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 벗이 되고 동지가 되고 한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으로 본 것은 다홍왜회의를 하던 무렵입니다. 회의후였던지 도중이었던지 삼도만에 갔습니다. 연길현에 속한 고장입니다. 삼도만 능지영이라는 곳에 당비서처가 있었는데 **김정숙**은 그 비서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지영에서 소집된 비서처일군들의 회의장소에서 **김정숙**을 만나보았습니다.

그후 나는 마안산에서 우리 부대에 편입된 **김정숙**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명화와 함께 만강에서 나를 맞아주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듣고보니 그는 의지가지할데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곳이란 혁명전우들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그후부터 내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김정숙이 우리한테 온후 무송현성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녀투사로서의 담력과 지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무송현성전투에서 살아난 것도 **김정숙**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가 아주 심각한 전투였습니다. **김정숙**은 전투장에서 좀 떨어져있는 잘루목에서 7~8명의 녀대원들을 데리고 아침식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루목에 밥을 지을만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연기가 나도 다른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갑자기 녀대원들만 있는 잘루목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잘루목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부대가 앞뒤에서 얻어맞을 수 있었습니다. 정황이 몹시 위급하다는 것을 간파한 **김정숙**은 싸창을 뽑아들고 전우들과 함께 맹렬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녀대원들의 드센 반격에 부딪친 적군은 숱한 주검을 남기고 퇴각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있은 후부터 그는 더욱더 전우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되었습니다.

그해에 우리는 장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에 무송원정을 떠났습니다.

무송원정이 힘든 원정이었다는 것은 내가 여러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도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만은 우등불곁에서 온밤 자지 않고 대원들의 해진 옷을 손질해주었습니다. 행군길이 하도 험하다나니 옷이 쉽게 해졌습니다. 신입대원인 마동희도 그 원정에 참가했다가 우등불에 모자를 태웠는데 **김정숙**이 새것처럼 기워놓았습니다.

후에도 체험한 바이지만 **김정숙**은 무슨 일거리든지 손에 잡기만 하면 온 심혼을 다 바쳐 맵시있게 마무리를 해놓군 하였습니다. 그날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탄복하였습니다.

무엇에 탄복하였는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자지못하는 그 남다른 성품과 인정미에 탄복하였습니다.

이 생활세부를 통하여 나는 녀성으로서의 **김정숙**을 깊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휘관들이 **김정숙**을 도천리지하공작조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할 때에도 서슴없이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 일대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만만치 않은 수완과 능력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에게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 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안군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도천리와 그 주변 인민들이 경찰에 제출했다는 수백명의 련명으로 된 ≪량민보증서≫는 **김정숙**에 대한 군중의 평정서와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인민들한테서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숙**이 한몸을 내대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몸을 내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배심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까 위험한 고비에 부닥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1938년 4월 6도구의 적을 치고 나오다가 쌍산자라는 곳에서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렬했던지 나까지 기관총을 잡고 일선에서 적들을 쏘아눕히었습니다. 사면팔방에서 적들이 조여들다보니 우리는 어데로 빠질데도 없었고 잠간 숨을 돌리며 식사할 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뜨끈해났습니다.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난데없는 만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얼핏보니 **김정숙**이 전장을 돌아다니며 전우들의 손에 만두를 쥐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만두를 하나씩 꺼내먹으며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작식터는 벼랑아래 샘터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음식그릇을 가지고 그 아찔한 벼랑을 어떻게 톺아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우들한테는 늘 끼니를 번질세라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어 음식을 나누어주면서도 **김정숙**자신은 노상 배를 곯았습니다.

언제인가 부대에 쌀이 떨어져 모두 맨 감자만 먹고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감자도 여러끼를 먹으면 대체로 새가 나고 입맛을 잃게 됩니다. 전우들이 며칠째 맨 감자로 끼니를 에우게되자 **김정숙**은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우들의 입맛을 돋구겠는가를 줄창 궁리하였습니다. 그는 감자를 갈아서는 전우들에게 지짐도 해주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볶아서 소를 넣고 떡도 해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감자음식을 모두 달게 들었습니다.

김정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지애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지애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 도덕의리가 최대한으로 발양된 비범한 혁명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 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관념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김정숙의 동지애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 것인가를 알려면 한 장의 모포에 깃들어있는 사연만 들어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연길에서 살고 있은 **김정숙**의 전우인 서순옥이 나를 만나려고 평양에 왔다갔습니다. 그때 그가 모포 한장과 쌍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순옥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에서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일하던 동무입니다. 그의 남편 김명주도 한때 주력부대에서 군사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송지방에 나와 활동할 때 7련대에 있었습니다.

서순옥은 최희숙이 요방자라는 고장에 지하공작을 나갔다가 데리고와서 입대시킨 녀대원이었습니다. 입대당시의 그의 나이는 열대여섯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희숙은 서순옥을 부대로 데리고 올 때 그의 조카가지도 데려왔습니다. 엄광호가 청봉밀영에서 적의 밀정으로 몰아붙인 애숭이대원이 바로 서순옥의 조카였습니다.

서순옥은 **김정숙**의 사랑을 많이 받던 녀대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숙영지에서 늘 자기보다 몇살아래인 서순옥을 껴안고 잤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포 한장을 함께 사용하군했습니다. 그 당시 사령부 가까이에 있은 녀대원들이란 **김정숙**과 서순옥뿐이었습니다.

서순옥이 가져온 모포는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입니다. **김정숙**의 배낭에는 언제나 그 모포가 얹혀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배낭이 더 커서 누구인지 가려보기가 힘들 때에도 나는 모포를 보고 그를 알아보군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이 소부대기지에 갈 때 그 모포를 그에게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그 기지에 김명주도 있었고 현철도 있었습니다. 김명주와 서순옥은 거기에서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서순옥은 떠나는 날 **김정숙**을 붙들고 자꾸 울었습니다. 한 모포밑에서 지내던 녀성들의 리별이여서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줄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와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의 배낭에 그 모포를 넣어주면서 자, 기념으로 가지고 가거라, 새것은 아니지만 너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온 이 언니의 온기가 스며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서 그 모포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 모포가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라는 것을 인차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쌍안경도 내가 김명주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포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그것도 서슴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의 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자기 정을 줄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철학입니다.

김정숙의 동지애는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헌신성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도 그 본질은 동지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해인가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몇끼씩 굶으면서 전투를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보니 **김정숙**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주머니의 것을 꺼내서 펼쳐보았더니 잣을 알알이 까서 종이에 싼것이었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어디서 얻은 잣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다른 녀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직접 잣나무에 올라가 따온 잣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여러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사하치기에서 전투를 할 때 내 주변에서는 아슬아슬한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무리의 적들이 나한테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투를 지휘하느라고 그런 정황이 조성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었더라면 큰일이 일어날번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쏴갈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여러해동안 입고 다니던 솜외투도 실은 **김정숙**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명주솜을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솜외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날을 두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뜸두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낸 외투가 내몸

에 꼭 맞는 것을 보자 그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나는 숙영지에서 밤을 새우거나 잠을 잘 때면 휴대하고 다니던 노루가죽을 땅바닥에 편 다음 그 솜외투를 덮군했는데 그러면 몸이 훈훈했습니다.

지금은 녀성들이 뜨개질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계로 편직물을 짜내는 시대이니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뜨개옷을 볼 때마다 **김정숙**을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뜨개질을 많이 했습니다. 작식일을 하느라면 일손도 딸리고 시간도 바쁘겠는데 시간을 어떻게 짜내고 털실을 어데서 구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짬만 생기면 책을 읽든가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산에서 털실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그때는 바늘 한쌈을 얻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적들과 싸우느라고 사철 밖에서 자고 먹고 행군하는 나를 걱정하여 솜외투도 지어주고 배띠개도 만들어주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털양말을 떠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나는 언제인가 그에게 털실은 어데서 어떻게 구했는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한테는 털양말이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말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자꾸 캐여묻자 마지못해 ≪장군님은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 그런건 몰라도 됩니다.≫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해방후에도 나를 위해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내가 신은 양말이 해지면 깁지 않고 그것을 풀어 실토리에 감았다가 새로 양말을 뜨군했습니다. 온밤 자지 않고 떠서는 아침이면 내 침상곁에 놓아두군했습니다. 상점이나 시장에 가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양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서는 실이 삭아서 못쓰게 될 때까지 그냥 풀어서 쓰고 풀어서 쓰고 하면서 제 손으로 양말을 떠서는 나에게 신기였습니다.

그는 양말 한켤레라도 제 손으로 직접 떠서 나에게 신기고 싶어했습니다. 녀성들의 정성이란 이런것입니다.

김정숙의 그 남다른 정성앞에서 한번은 내가 본의아니게 성을 낸적이 있습니다. 어느해 겨울이였던지 그가 내 옷을 빨아서 제몸에 품어 말리웠다가 내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노릇이였지만 그 소행에 감탄한 녀대원들이 뒤에서 **김정숙**을 칭찬하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옷가지를 몸에 띠고 말리웠다는 말을 난생처음 들은 나는 아연해서 **김정숙**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얼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는 생각을 하니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정숙동무, 나를 위한 동무의 정성에는 나도 머리를 숙인다, 그것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무가 어쩌자고 그런 노릇을 하는가, 그러다가 축한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텐가, 동무가 자기를 희생한 값으로 내가 덕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고생이야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장군님만 무탈하시게 된다면…≫

비록 정숙이앞에서는 성을 냈지만 나는 그를 돌려보내고나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순간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정성속에 어머니가 못다주고간 사랑도 겹쳐져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열기를 젖은 옷에 빼앗기고 오한으로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김정숙**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후에도 **김정숙**은 몸으로 나의 젖은 옷과 내의와 같은 것을 말리워주군 하였습니다. 그러고보면 **김정숙**은 몸으로 나에게 날아오는 총탄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축한도 막아준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력사가들이 우리가 걸어온 항일혁명의 길을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 뿐 아니라 사랑에서도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고했지만 백두산부석우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련인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굶지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춥지않게 하며 자기는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속에도 들어가고 형틀앞에도 나서고 얼음구멍에도 뛰어드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헌신성만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다음 만경대에 가니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산에서 싸울 때 좋은 녀자를 만났다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들러리는 누가 섰으며 상은 어떤 사람들이 차려주었는가고 자꾸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답하자니 갑자기 목이 메고 말문이 막히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자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슴아파할 것 같고 친척들도 섭섭해할 것 같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는 결혼식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활이 간고하고 어렵기도 하였지만 나라를 찾지도 못하고 망국민의 수치를 씻지도 못한 처지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오에는 그런 호사를 바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유격대식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원들앞에서 오늘 아무개동무와 아무개동무가 결혼을 한다고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처럼 첫날옷을 차려입고 큰상을 받는 것같은 례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좀 괜찮은 경우라야 밥 한그릇이 고작입니다. 밥이 없으면 죽을, 죽이 없으면 감자나 강냉이 같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런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부로 선포된 다음에도 소속 중대나 소대에서 종전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해도 례외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쓰러진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이 결혼하던 날 전우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해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온부대가 식량이 떨어져 끼니도 잇지 못하는 때에 어디서 무엇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날옷도 큰상도 주례도 들러리도 없었지만 그 혼례가 한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정숙**이도 생전에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했습니다.

새 세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형편에서 달리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식으로 혼례를 치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멋으로 여기였습니다. 래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의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백두산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조국이 해방된 다음 전우들의 결혼식을 잘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를 찾고보니 그것도 마음뿐이였습니다. 해방은 되였으나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못하고 식량사정도 무척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장시우가 나를 찾아와 빨찌산출신이라는 사람이 평남도당의 자금을 꺼내다가 개인잔치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가고 들이댄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고 물으니 김성국이 도당의 돈을 꺼내갔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성국을 방에 불러다놓고 리을설이더러 그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무슨 권한으로 도당자금을 마음대로 다루는가고 추궁하였습니다.

김성국이 울먹거리면서 ≪손종준이 잔치를 하는데 첫날옷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자고 그랬습니다. 혈육도 친척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쩝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성국을 호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손종준에게 첫날옷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면 좋다는 것이야 낸들 왜 모르겠는가, 그렇데 지금 어디 그럴 형편이 되었는가, 밥 한그릇도 변변히 떠놓지 못하고 결혼식을 하던 지난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동무가 당에다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에 빨찌산 출신답게 동서남북을 살펴보면서 처신을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김성국을 돌려보내긴 하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의 결혼식을 잘 차려주자고 애를 쓴 김성국의 그 마음이야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에 와서 결혼을 많이 했지만 다들 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게 늘 속에 얹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동무는 그들이 생일 60돐, 70돐을 맞을 때에는 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보내주군합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런 락도 보지 못하고 30살을 넘기기 바쁘게 이렇게 사진만 나기고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나와 정숙이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아마 혁명전우들이 관심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조차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동무들이 나를 찾아와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장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자고 하였습니다. 사진기도 얻어왔으니 김장군은 얼굴만 빌려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밖에 나가니 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했지만 어데서나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나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에 기대여 전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남야영에 와서 만난 기념,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는 소부대공작기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둘씩, 셋씩 패를 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창 찍고 있을 때 녀대원들 몇이 어떻게 낌새를 챘는지 우리곁에 달려와 자기들도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녀대원들과도 몇장 찍었는데 그들이 나와 **김정숙**이더러 둘이서 함께 찍으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자 부끄럼을 타면서 녀대원들의 등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녀대원들은 **김정숙**의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었습니다. 그는 내우를 하며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전우들이 등을 떠미는 통에 그가 웃으면서 내곁에 밀려왔습니다.

동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타를 눌렀습니다.

내가 일생에서 개별적으로 녀전우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그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와 **김정숙**에게 있어서는 결혼사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혈기왕성한 청춘들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때였습니다. 타향에서 봄을 맞이했지만 다들 신심에 넘쳐있었고 기세도 좋았습니다.

나나 정숙이로서는 결혼후 처음으로 맞는 잊을 수 없는 봄이었습니다.

나는 그 봄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 사진뒤면에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야영구에서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력사에 남아 이처럼 큰 박물관에 전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항일혁명을 20년동안이나 했는데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고보면 사진을 찍자고 발기한 동무들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였습니다.

김정숙은 다른 녀대원들과 꼭같이 중발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머리모양새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머리칼을 군모안에 모조리 몽그려넣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해 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나갈 때였습니다. 쏘련국경을 넘어 훈춘땅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발이 후끈후끈해났습니다. 처음에는 행군을 많이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히 생각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와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았더니 바닥에 머리칼로 만든 깔개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에야 **김정숙**이 방안에서도 별스럽게 군모를 벗지 않고 지내던 것을 상기하고 그가 나를 위해 머리카락을 솎아서 신발깔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이 군모를 쓰고 있은 것은 숱이 성글어진 머리를 남들에게 보이기가 멋적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명도 없습니다. 안길이도 가고 최현이도 가고 정숙이도 가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랑, 안길이랑, 최현이랑 기대여 서서 사진을 찍던 그 나무도 지금쯤은 거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야영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여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김정숙은 해방후에도 지성을 다해 나를 받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느정도로 나에게 세심하였는가. 며칠에 한번씩 갈아대는 목달개도 풀을 먹여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듬이질을 해야 목달개가 노긋노긋해지고 목에 닿아도 뻣뻣한 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을 먹인 목달개가 인두나 다리미로 다리면 뻣뻣해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다듬이질도 내가 없을 때에만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한번도 다듬이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실성과 관련된 일화를 한가지 더 말해주겠습니다.

조국해방전야에 내가 대일작전회의에 참가하려고 모스크바에 가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밤 나는 초대소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숙**이 큰방에 책을 가득 가져다 놓고 나에게 이 책들을 마음대로 골라보십시오, 이만한 책이면 사령관동지께서 일생동안 보아도 다 못보실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에서 깨여난 다음 동무들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될 꿈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통질을 해가며 한참동안 어마어마한 해몽을 하고나서는 꿈을 보면 내가 장차 운이 굉장하게 트일 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모스크바에서 돌아와 **김정숙**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웃으면서 좋은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한달, 두달 흐르는 사이에 그 꿈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 꿈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광복된 다음 우리가 해방산기슭에 집을 잡고 살 때 그는 서재에 책을 가득 채워놓고 나더러 해방도 되었으니 이제는 책을 마음껏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김정숙의 한생은 나를 위해 바친 한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시종일관 나를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수령으로 내세워주고 받들어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과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동지와 동지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김정숙은 자기를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까지 나보고 보통 집안에서 쓰는 호칭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를 때에는 그저 장군님이라고 하든가 수상님이라고만 하였습니다.

해방후 언제인가 녀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은 일생동안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다. 일생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서 그와 영결할 때는 손목에 시계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시계를 채워보낸다고 그가 한평생 나를 위해 바친 지성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그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사연도 없는

보통시계라면 그런 궁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계가 사연이 깊은 시계였습니다.

어느해였던지 우리 할머니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값이 좀 나가더라도 어디서 좋은 녀자시계를 하나 구할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벽시계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녀자용시계를 찾는데다가 그것도 좋은 것으로 구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후 녀자용 시계를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다는데 그게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온지도 퍼그나 되는데 이 할미가 상을 차려준게 있나 옷 한벌 해준게 있나, 그래서 시계라도 채워주려고 그랬다면서 정숙이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손자며느리에게 부어주는 할머니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전에 떠나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김정숙**을 위해서 해준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해마다 잊지 않고 소박하게나마 내 생일상을 차려주었지만 나는 가정을 이룬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에게 생일상조차 차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생일에 대해서는 말조차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정숙**의 성품이었습니다.

김정숙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점심참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에게 술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부을터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생에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었는데 그것이며 더 바랄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이 돌아간 이듬해에 녀투사들이 돈을 모아 당에 바치면서 그의 묘를 잘 꾸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란봉에 안치된 **김정숙**의 묘에 가보니 쇠울타리도 치고 석축도 하고 화강석으로 계단을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사장에 나와 일하는 녀투사들에게 내가 동무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다, 저 집들을 보라, 인민들은 아직도 저런 작은 집들에서 살고 있다, 지난날 그렇게 피눈물 속에 고생해온 인민인데 아직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런 때에 동무들이 화강석으로 묘를 꾸린다는 걸 정숙이가 안다면 인민들앞에 얼마나 미안해 하겠는가, 동무들이 정 성의를 표시하고 싶거나 묘주위에 꽃이나 나무를 심으라, 그리고 그가 생각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휴식도 하고 묘도 보라, 이것이 정숙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저 화강석은 건설장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송두리채 바치고 세상을 떠나간 **김정숙**이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재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비한 돈은 내가 받은 생활비였고 그가 사용한 집과 가구들은 다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 앞에 내세워준 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에도 **김정일**동무를 불러앉히고 그에게 아버지를 잘 받들라는 것과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김정일**동무에게 남긴 유언으로 되였습니다. 그 유언을 남긴후 3시간이 지나서 **김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김정숙**을 자주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여러해동안 치마저고리도 입고다녔지만 어째서인지 사복을 입은 모습보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몸으로 말린 옷을 들고 나를 찾아왔을 때 오한으로 떨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습니다.

회령혁명사적지

정치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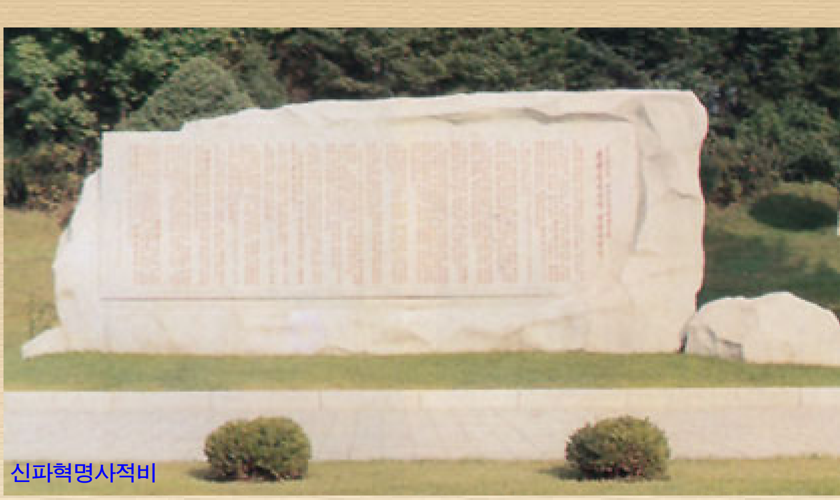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회령집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 깊은 혁명사적지.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에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회령땅에서 탄생하시여 피눈물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으며 5살되시던 해인 1922년 봄에 일가분들을 따라 북간도로 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을 받아 안으시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와 경애하는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오늘 회령혁명사적지의 오산덕기슭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동상(1969년 9월 22일에 모심)이 모셔 져 있다. 혁명사적지에는 또한 **김정숙**동지의 고향집, 오산덕, 망양나루터, 박우물, 방아간터, 빨래터 등 뜻 깊은 사적건물과 사적물들, 사적지들이 있다. **김정숙**동지의 일가는 가난한 생활로 하여 집 한채 마련할 길이 없어 추녀 낮은 초가집에서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초가집에서 1917년 12월 24일 탄생하시여 5살 되실 때까지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시면서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오시였다. 고향집에는 혁명일가에서 쓰시던 가마와 식기류, 밥상, 식칼, 밑굽이 다 떨어 진 함지, 귀 떨어 진 물동이, 화로, 망돌, 농궤 등 살림도구들이 보존되여 있다. 고향집에서 약간 떨어 진 곳에는 맑고 시원한 샘이 솟는 박우물과 방아간터가 있고 팔일천강가에는 어리신 **김정숙**동지께서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기 위해 자주 빨래를 하시던 빨래터가 있다. 어린 시절 **김정숙**동지께서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기 위해 자주 빨래를 하시던 빨래터가 있다. 어린 시절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산덕에서 나물도 캐시고 이삭주이도 하시였으며 언덕밑으로 줄지어 지나가는 류랑민의 행렬을 보시면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더더욱 느끼시였다. 망양나루터는 1922년 봄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땅으로 가실 때 두만강을 건느신 력사의 나루터이다. 혁명사적지에는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이 있다. 혁명사적관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 다해 오신 빛나는 생애와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불멸의 업적, 그리고 혁명동지들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고결한 성품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종합체계화되여 있다. 회령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 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 혁명교양의 학교로 되고 있다.

신파혁명사적지

정치사전



신파혁명사적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신파지구를 혁명화하신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유서 깊은 혁명사적지. 량강도 **김정숙**군 **김정숙**읍에 있다.(**김정숙**읍을 1981년 8월 이전에는 신파읍, 1937년 당시에는 신갈파로 불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봄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도천리와 신파지구에 나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며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 세울데 대한 지하공작임무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937년 4월초순 도천리에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사이에 자주 신파에 오시여 혁명조직을 뭇고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6월중순 어느 날 신파지구의 핵심성원들로 조국광복회신파지회를 무어 주시였으며 신파지회를 결성하신후에는 이미 료해장악한 핵심들로 신파지구당소조를 조직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조직들이 자기 힘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신파지회밑에 강안동분회, 상정구분회, 하장구분회를 비롯한 여러개의 하부조직들이 새로 생겨 났으며 거기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혁명군중이 망라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원호물자를 구입하고 적정을 알아 내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을 적극 뒤받침하기 위한 투쟁도 힘 있게 벌리시였다. 신파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이 튼튼히 꾸려 지고 조직에 결속된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해 짐으로써 이 지대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해 나갈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로 꾸려 지게 되였다. 오늘 신파혁명사적지에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 져 있고 신파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비가 세워 져 있으며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곳들에는 표식비들이 세워 져 있다. 혁명사적지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광복회 신파지회의 비밀사업장소로 정하시였던 ≪광선사진관≫, 신파지회를 결성하신 장소이며 혁명조직성원들을 자주 만나 지도해 주신 장소인 ≪석전양복점≫, 조국광복회 회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던 장소인 ≪샘물터국수집≫, 구입한 원호물자들을 보관하고 혁명조직과의 련계를 취하기 위한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던 ≪도천리합숙≫, 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원호물자를 비밀리에 모아 두시던 ≪물레방아간집≫,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시던 ≪신파객주집≫과 ≪사발상점≫등 혁명사적건물들이 있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넘나드시던 신파나루터가 있다. 신파혁명사적지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송내려관≫이 있다. 오늘 신파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 나는 새 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 다해 오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을 따라 배워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 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청봉숙영지

정치사전


청봉숙영지에 남긴 구호나무
(**김정숙**동지의 필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5월 18일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진출하였을 때 첫 하루밤을 보낸 유서 깊은 숙영지. 량강도 삼지연군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대정자회의에서 국내진공방침을 제시하신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9년 5월 18일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을 진출하시여 청봉기슭에 이르시였다. 밀림이 울창하고 릉선들이 리명수, 5호물동, 건창, 소백산쪽으로 각각 뻗어 있는 청봉은 부대의 은밀성, 대부대의 신속한 기동 및 적정감시에 유리한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청봉마루에 오르시여 적정과 지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각 부대의 숙영장소를 정해 주시고 숙영준비를 갖출것을 명령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먼저 사령부천막을 친 다음 그를 중심으로 주위에 20여개의 병실과 취사장, 우물을 마련하였으며 불무지터며 칼도마까지 규모 있고 질서정연하게 같은 규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경계근무도 빈틈없이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청봉의 깊은 수림속에는 순식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 정연한 생활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는 숙영지가 꾸려 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근의 림산로동자들을 만나시여 적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로동자들과 주민들에게 진정한 애국주의사상을 가지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봉의 아름드리나무들에 혁명적구호를 쓰도록 하시였다. 이 사업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를 비롯하여 부대정치일군들과 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친히 나무껍질을 벗기신 다음 직접 붓을 드시고 구호의 글발을 힘 있게 쓰시였으며 붓을 든 대원들에게 구호의 내용을 불러 주시기도 하시였다.나무들에는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 나와서 항일전에 힘 있게 참가하자.≫, ≪일어 나라, 단결하라, 전 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일본의 파시스트군벌을 때려 부시자.≫, ≪동방약소민족은 련합하여 일어 나라, 악독한 일제원쑤를 때려 부시자.≫ 등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맥박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이 수많이 씌여 졌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시여 한개조는 포태리방향에서 적을 치게 하시고 한개조는 압록강을 건너 장백쪽으로 발자국을 내고 자취를 감추게 하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동방향을 위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조국의 품속에서 포근히 단잠에 들었을 때에도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 군용지도를 펼치시고 작전을 보다 구체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봉에서 하루밤을 숙영하신후 부대를 친솔하시고 건창, 베개봉, 삼지연을 거쳐 일행천리전술로 100여리의 ≪갑무경비도로≫를 보무 당당히 행군하시여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오늘 청봉숙영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 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정과 지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르시였던 청봉마루에는 청봉헌시비가 세워 져 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자리와 **김정숙**동지께서 밥을 지으시였던 취사장자리가 있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쓰신 구호나무를 비롯하여 정치일군들과 대원들이 쓴 구호나무들이 보존되여 있다. 청봉숙영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며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기하전투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화룡현 홍기하골짜기에서 벌린 매복전투. 전투는 1940년 3월 25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국내의 무산방향으로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따르던 적≪토벌≫대는 대마록구에서 얻어 맞고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 왔다. 뒤쫓아 오는 놈들은 ≪노조에토벌사령부≫관하의 마에다부대를 비롯하여 ≪토벌≫에 이름이 있다는 여러≪특수부대≫놈들이였다. 이 놈들을 족쳐 버리지 않고서는 국내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홍기하골짜기에서 적들을 소멸할 계획을 짜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멀리 이동하는것처럼 발자국을 대마록구하의 옆골짜기를 따라 내게 하신 다음 강상류쪽으로 다시 올라 골짜기의 유리한 지점에 매복하게 하시였다. 오후 6시경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낸 발자국을 따라 매복권안으로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기본대오가 매복권안에 완전히 들어 서자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산 언덕과 기슭에서 맹렬한 집중사격을 퍼부었으며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돌격으로 이전하여 놈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눕혔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적의 한 무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산릉선에 기여 들어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자 놈들을 딴 방향으로 끌어다 소멸하시여 수령님의 안전을 보장하시였다. 전투는 인민혁명군의 승리로 끝났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홍기하전투에서 ≪토벌의 왕자≫라고 하던 마에다놈을 비롯하여 적 140여명을 살상하고 30여명을 포로하였으며 기관총 6정, 보병총 100여정, 권총 30여정, 무전기 1대, 총탄 수만발을 로획하였다. 이날 2키로메터가량 떨어 져서 일제침략군의 뒤를 따라 행군해 오던 300여명의 위만군놈들은 일제침략군이 녹아 나는것을 보면서도 감히 접어 들지 못하다가 전투가 끝난후에야 멀리서 헛총질을 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방금전에 로획한 기관총으로 위만군놈들이 몰켜 있는 곳에 위협사격을 몇번 퍼붓자 놈들은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부대선회작전의 마감을 장식한 홍기하전투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널리 시위하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굳게 안겨 주었으며 ≪후방의 공고화≫를 떠들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을 없애 보려고 미쳐 날뛰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었다.

대사하치기전투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 경위중대가 안도현 대사하치기에서 진행한 조우전투. 전투는 1940년 여름에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때려 부시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을 조직지휘하시던 시기 경위중대성원만을 데리시고 소할바령일대에로의 행군길에 나서시였다. 행군대오가 대사하치기에 이르러 강을 건느려 할 때 불의에 적의 사격을 받게 되였다. 사령부의 이동을 내탐한 악질적인 안도현 ≪신선대≫놈들이 미리 강옆 고지에 매복하고 있었던것이다. 위급한 순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황과 주위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꿰뚫어 보시고 기관총분대로 하여금 적의 화력을 제압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체 대원들에게 고지를 향해 돌격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돌격에로 넘어 가 비호처럼 고지를 향하여 달려 올라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순식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불의의 기습을 기도하던 적들을 수세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적들이 수적우세를 믿고 필사적으로 저항해 나섬으로써 전투는 더욱 치렬해 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산중턱 바위우에 올라 서시여 전투를 승리에로 지휘하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지켜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계시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여섯놈의 적들이 총을 겨냥한채 지척에 있는 갈밭속에 몸을 감추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 계시는 산중턱으로 은밀히 다가드는것을 발견하시였다.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막으시며 적을 쏴 눕히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김정숙**동지의 희생적인 투쟁에 고무되여 위대한수령님을 보위할 충성의 일념을 안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이 뒤계선에 있던 예비대까지 전투에 인입시키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해 나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기 위하여 기관총을 증강시켜 일부 대원들을 적의 후면에 파견하시였다. 적의 후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의 지휘처를 중심으로 그 부근의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겼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면에서 싸우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사격으로 놈들에게 강력한 화력타격을 가하였다. 앞뒤로부터 드세찬 타격을 받고 커다란 손실을 당한 적들은 더는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옆골짜기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달아 나는 적들에게 다시한번 명중탄을 안겨 놈들을 무리로 쓸어 눕혔다. 대사하치기전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주체적유격전법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대사하치기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전법의 불패성을 보여 주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크게 시위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

정치사전

나라의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아들딸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혁명가유자녀교육기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 내시고 그들을 선렬들의 붉은 피줄을 이어 갈 우리 혁명의 핵심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1947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창립당시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을 세우시였다. 학원은 창립된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 찬 혁명전사들의 전투대오로 자라 났으며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훌륭한 생활조건을 갖춘 유자녀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당의 믿음직한 핵심골간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가유자녀들을 넓으신 품에 안으시여 한량없는 사랑속에 키우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적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유자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이신 불멸의 사적도 깃들어 있다.

현재 학원에서는 초등교육을 마친 혁명가유자녀들을 받아 중등 및 고등 일반교육을 준다. 학원에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교수내용을 철저히 당정책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유자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다.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실속 있게 하여 유자녀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혁명투사가 되도록 교양하고 있다. 학원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정열적으로 하여 현대과학기술지식과 군사지식을 훌륭히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시키고 체육교육과 예술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실속 있게 함으로써 유자녀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의 후비로 키우고 있다. 학원은 창립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대한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의 골간으로 훌륭히 육성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대렬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원졸업생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학원은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 올린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았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확대와 당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현대조선역사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일성은 백두산 근거지를 창설하고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건설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었다.

김일성은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며 당건설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1936년 9월 장백현 19도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우수한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을 정치공작원으로 보내는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과 권영벽, 김주현, 지태환, 박족금, 최희숙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압록강, 두만강 연안일대와 국내 깊이에 파견되었다.

김일성은 각지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빨리 늘이며 당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당건설사업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 그리고 조직정치사업방법, 생활규범을 상세히 밝혀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지도하고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었다.

김일성의 가르침과 세심한 지도밑에 정치공작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과 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특히 **김일성**의 크나큰 신임을 받고 1937년 3월 중순 장백현 도천리일대에 나온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은 국내 신파지구와 장백현 하강구, 상강구 일대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김정숙**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김일성**의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방침들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한편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김정숙**은 여러 지역에 당조직과 함께 조국광복회 하부조직, 부녀회를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결성하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웠다. **김정숙**은 혁명조직들과 군중들을 발동하여 수많은 원호물자를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냈다.

김정숙은 지하공작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견결한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로 적들과 맞서 완강히 싸웠으며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김정숙의 실천적 모범에 무한히 고무된 정치공작원들은 **김일성**이 내놓은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 나갔다.

전국도처에 뻗어가는 혁명조직

붉은 해발 아래 항일혁명 20년



장백진출의 길에서 마을인민들에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선전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1937년초에 들어서면서 국내혁명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지난 시기 국내공산주의운동에서 발로되였던 좌우경적편향은 점차 극복되고 반일운동은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섰다.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백두산밀영으로는 갑산과 신파, 홍남과 함흥 그리고 청진과 경성, 명천, 길주, 성진, 단천, 북청, 홍원 등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련이어 들어왔다.

국내소식에 접한 우리들(김일, 한익수)의 마음은 무척 흥분되였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박달동무를 비롯한 민족해방동맹 성원들이 갑산일대에서 벌린 투쟁소식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박달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갑산으로 돌아간 이후 갑산일대에서는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 박달동무가 백두산 밀영을 떠나 오풍동으로 돌아간것은 1936년 12월말이였다.

그는 마을에 도착한후 오풍동비밀련락장소에서 갑산공작위원회 성원들의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먼저 박달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광복구상과 그이의 말씀을 자세히 전달한 다음 그이께서 지시하신대로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우리 인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민족해장동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투쟁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기관지로서

≪화전민≫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모임이 있은후 민족해방동맹은 지난 시기 발로되였던 좌경적편향들을 극복하고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을 강력히 벌리면서 갑산일대에서 자기의 하부조직을 정비확대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선진분자들로 대렬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박달동무를 비롯한 이 동맹의 핵심성원들이 갑산일대의 여러 마을로 나뉘여나갔다.

박달동무는 그때 조직의 결정에 따라 이 동맹의 전반 사업을 맡아보면서 운흥면 대하리일대와 보천면 신흥리, 보흥리 일대를 담당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자기를 철저히 위장하기 위하여 일제의 경찰관주재소에 찾아가 이미부터 안면이 있는 순사에게 순사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시험준비를 좀 도와줄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순사놈은 물론 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있던 순사부장이라는놈도 매우 좋아하였다.

순사가 되겠다는것은 곧 놈들에게 ≪충성≫다하겠다는 표시로 되기때문이였다.

순사부장놈은 순사시험준비를 잘 도와주라고 순사놈에게 지시하였고 순사놈은 자기가 배우던 경찰강습소 교과서까지 빌려주면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였다.

박달동무는 적들에게 ≪충성≫하는것처럼 인상을 주고는 지하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그런데 당시 일제경찰놈들은 모든 조선사람들 특히 선진적인 경향이 있는 젊은이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이웃마을에 놀러 다니는것까지 일일이 감시하고 눈을 밝히였다. 이런 형편에서 같은 마을에 출입이 잦으면 의심을 받기가 쉬웠다.

박달동무는 생각던 끝에 행상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물건을 팔러 다닌다면 적들이 의심할리 없으며 또 아무데나 돌아다닐수 있을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행상을 하리라 생각하고 또다시 경찰관주재소에 찾아갔다.

그는 순사부장에게 농사철도 아닌데 빈둥빈둥 노는것보다 몇푼벌이라도 해야 하겠다고 졸라댔다. 주재소에서는 비록 락제는 했지만 두번씩이나 순사시험을 친 그의 ≪충성심≫을 고려하여 허가를 해주었다.

박달동무는 혜산장거리에 가서 성냥, 비누, 빗, 댕기 등속의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마을저마을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적한 마을에는 일부러 해질무렵에 들어가서 주인을 정하고 하루밤 묵으면서 비밀리에 조직원들을 만나 그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여직 조직이 나오지 못한곳에서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옛말도 해주고 그뒤끝에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이야기해주어 그들의 반일의식을 높여주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이렇게 준비된 일군들을 도처에 파견하여 하부조직을 정비확대하는 한편 기관지≪화전민≫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밝히신 전략전술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룩한 빛나는 전투성과와 동맹의 당면투쟁과업 등을 동맹원들속에 광범히 소개선전하면서 조직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의 하나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은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갑산군 보천면에만 해도 운흥동, 려수리 등 20여개 지역에 하부조직이 나왔다. 그리고 그 조직의 명칭을 정우회, 반일회, 전진회, 반일부녀회, 반일소녀회 등으로 각이하게 붙이고 그 두리에 광범한 혁명적인민들을 묶어세웠다.

갑산지구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갑산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박달동무를 비롯한 국내공산주의자들의 투쟁소식은 당시 백두산서남부에서 지하사업을 하고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흥분시켰다.

우리는 조만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조국광복회운동이 전국도처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것을 확신할수 있게 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무렵 국내각지에서 활동하고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함북과 함남 일대에서만 보아도 라진, 청진, 명천, 길주, 성진, 흥남, 함흥, 신흥, 홍원, 북청



조국광복회 신파지구 지하조직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등 수많은 도시와 농어촌, 광산과 공장 지대들에서 각이한 명칭을 가진 반일대중조직을 무어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아래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국내공산주의자들을 발동하여 국내깊이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가시는 한편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키우신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이 국내각지로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이 조국의 북부 풍산, 삼수로부터 다도해가 설레이는 조국의 남단 부산에 이르는 나라의 방방곡곡, 도시와 농어촌, 공장과 광산 지대에로 무수히 파견되여갔다.

극비밀리에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국내에 파견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을 다는 알수 없으나 우리들이 알고있는것만 해도 신파일대의 지하사업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인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가 지도하였으며 삼수군과 성진방면에는 최경화동무가, 명천군방면에는 조동무가, 풍산군방면에는 리경윤동무가 각각 파견되여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적들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1936년 10월 이후 간도성 장백현에 근거를 두고있는 항일련군(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말함)에서는… 장백현 및 선내각지 특히 시국상 관계로 군사상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있는 홍남 기타에 다수의 정치공작원을 파견하여 군중단체 ≪조국광복회≫, ≪조선민족해방동맹≫, ≪반일회≫ 등을 조직하여 항일인민전선의 통일을 도모하며 또 그의 단원들중 우수한 분자들을 선발하여… 세포를 조직하고 혹은 일조 유사시에 무장봉기, 후방교란의 전위적 실행기관인 생산유격대 조직에 노력하여왔다.≫

놈들자체가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국내도처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을 내오며 그 두리에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인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가 신파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벌린 투쟁은 실로 눈부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도천리-신

파지구로 파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도천리는 장백현 하강구의 중심지일뿐아니라 신파를 거쳐 국내깊이에 조국광복회 조직망를 확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도천리-신파지구를 장악하고 그곳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 지구가 혁명화되고 그곳에 강력한 지하조직망이 형성되면 우리는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국내에 혁명적지반을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것은 물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으로 그들을 감화시키여 그들의 존경과 신임을 쟁취한다면 능히 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아로새긴 **김정숙**동지는 무산에서 살길을 찾아 오빠와 올케를 따라온 처녀로 가장하고 도천리의 중심부락인 학교촌에 자리를 잡았다.

김정숙동지는 도천리를 비롯한 요방자, 삼수골 일대의 지하사업을 지도하는 한편 국내 신파지구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김정숙동지는 우선 조직원들을 통하여 신파를 비롯한 국내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지하사업에서 단련된 핵심들과 국내에 친척, 친우 등 공작토대를 가지고있는 동무들을 선발하여 신파와 그 주변일대에 파견하였다.

김정숙동지는 파견되는 조직원들을 면밀히 준비시키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조국광복회의 조직원칙과 그 운영방법 등 지하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습득시킨 다음에야 공작지로 파견하군하였다.

한편 **김정숙**동지는 신파지구지하조직과 직접 련계를 맺고 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시 신파는 1,000여호나 되는 산간도시로서 적의 군사요충지였다.

적들은 신파거리에 내륙지대의 한개 군경찰서인원에 해당한 70여명의 경찰을 두었고 헌병대와 라남 19사단소속 국경수비대를 배치해놓고있었다.

놈들은 압록강연선에 날새도 넘나들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았는데 압록강을 건느는 유일한 수단인 한척의 나루배도 낮에만 경찰의 감시밑에 운행하게 하였고 밤이면 쇠를 잠그고 열쇠는 경찰이 보관하였다.

김정숙동지가 도천리에 내려온 며칠후였다. **김정숙**동지가 신파에 건너가겠다고 하기에 지하조직에서는 국경경비가 삼엄하니 정황을 보아가며 천천히 가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는 적들의 경비가 심한곳이라고 하여 혁명임무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럴수록 놈들의 소굴에 대담하게 들어가 활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획했던대로 길을 떠났다.

그날 **김정숙**동지는 행상인으로 차린 한 지하공작원과 함께 신파로 건너갔다.

당시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파지구 조국광복회 조직은 성원이 몇명 되지 않았고 조직성원들의 혁명열의는 높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든 사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그곳에 건너간 **김정숙**동지는 장거리에서 얼른 일을 보고 조국광복회 신파지회의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는 석전양복점을 찾았다.

김정숙동지는 이곳에서 신파지하조직책임자를 만나 조국광복회 신파지회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서 지하조직성원인 한 녀인의 안내를 받아 신파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기관을 상세히 료해하였다.

신파일대에서 지하사업을 잘하자면 우선 적을 잘 알아야 했던것이다.

이렇게 신파조직과 첫 련계를 맺은 **김정숙**동지는 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달고 단속하는 압록강나루터를 무수히 넘나들면서 조국광복회 신파지회사업을 지도하였다.

그는 석전양복점, 광선사진관, 샘물터국수집 등을 비밀장소로 정하고 그를 거점으로 이곳 조직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광복회



장백지구 조국광복회 부녀회원들의 유격대원호물자운반사업을 조직지휘하사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적들이 그물처럼 경비초소를 늘인 압록강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지하사업을 지도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대담하고 세련된 모습은 신파지구지하조직원들에게 투쟁의욕을 북돋아주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지도밑에 신파지구지하조직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광복구상을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광범한 반일군중들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김정숙동지의 지도밑에 신파지구 조국광복회 조직에서는 악질면장과 악질경부보와 같은 자들을 몰아내는 투쟁의 앞장에서 잘 싸운 사기점주인을 비롯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조직적으로 결속하였다. 그리고 ≪친목회≫, ≪학우회≫, ≪상조회≫와 같은 합법적인 단체들을 뭇고 여기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켜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였다. 그뿐아니라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조직에서는 혁명군부대에 보낼 원호물자들을 마련하고 적정을 탐지하며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을 혁명군부대에 보내는 사업을 매우 활발히 벌렸다.

드디여 신파조직은 인민들속에 튼튼히 뿌리를 박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혁명조직으로 자라났다.

신파지구뿐아니라 이 시기 정치공작원들의 발길이 닿는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은 전국적판도에 혈맥과도 같이 뻗어갔다.

그리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반일대중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묶어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은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국내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을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이 조직은 이름 그대로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조직이므로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손잡아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농민들과 도시소시민들 속에 종교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있는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종교신자는 적지 않은 수에 달했으며 그 영향밑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많았다.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를 믿고있었는데 풍산, 갑산, 삼수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서는 특히 천도교의 세력이 강하였다.

천도교는 력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나 불교보다 뿌리가 깊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종교로서 최린을 우두머리로 하는 극소수의 상층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하층종교인들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적 강했다.

인민들에게 미치고있는 천도교의 영향력으로 보나 교도들의 반일감정으로 보아 이들은 조국광복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에 인입될수 있는 계층이며 또 마땅히 인입하여야 할 력량이였다.

그런데 이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는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 하고있기때문에 결코 생나무꺾듯이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져버린 그들의 신앙을 일조일석에 떼여버리려고 하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은 상층부가 아니라 하층부 보통신자들, 특히 감수성이 빠른 청년들을 먼저 택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종교신자들도 조국이 있어야 하며 식민지신자들에게는 사실상 신앙의 자유가 없고 조국이 독립되여야만 신앙의 자유도 보장받을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하여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종교인들속으로 들어가 계층별 특성에 맞게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년교도들속에서는 전봉준이 일으킨 농민폭동과 천도교인들이 반일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업적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을 때 청년의 힘과 열정을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일에 바칠 대신 주문을 외우며 천제에게 복을 빌고 앉아있어서야 되겠느냐고 깨우쳐주었다. 그리고 완고한 사람들속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것,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종교인들에게 제놈들을 위해 복무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동학당청년들을 비롯한 애국적인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는것 등을 알려주어 그들의 반일의식을 높여주었다.

하층교도들 특히 감수성이 빠른 청년교도들이 제일먼저 우리를 따라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에 자리잡으신지 두달후에는 풍산군의 한 청년교도가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뒤이어 풍산군의 천도교인들속에서 첫 조국광복회 회원을 받아들이게 되였다.

날을 따라 하층교도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입대자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도교 하층교도들과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천도교 함남도정 박인진을 비롯한 상층교도들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였다.

박인진은 갑산, 풍산, 삼수를 비롯한 8개의 종리원을 장악하고있는 함남도정이였다.

도정은 군종리원장들을 직접 장악통제하고 500호로부터 수천호까지의 교도들을 관할하며 천도교의 최고기관이라고 하는 도정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의 최고상층교직자로서 천도교인들속에서 그 위신이 대단하였다. 그러기에 도정은 대체로 교리에 충실해온 정통파들이였으며 유산계급출신이였다.

함남도정 박인진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된 천도교도들을 통하여 료해한데 의하면 비록 그는 도정이기는 하지만 민족적량심이 있고 반일감정도 높으며 하층교도들과 관할지구의 광범한 농민대

중속에서 일정하게 신망도 있었다.

천도교인들과의 전면적인 통일전선을 실현하자면 박인진을 쟁취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남도정 박인진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대표를 파견해주실것을 요망하는 박인진의 회답편지를 받으시자 그와의 회담을 위하여 곧 한 정치일군을 대표로 파견하시였다.

1936년 초겨울 어느날, 우리 대표는 천도교도들속에 들어가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의 안내를 받아 종리원장 리전화의 집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박인진과 회담을 가지기로 약속되여있었던것이다.

박인진을 만난 우리 대표는 먼저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그 10대강령을 전달한 다음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였다.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박인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표에게 조국광복회 문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것을 사령부에 정식으로 전해달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락하신다면 한번 만나뵈옵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회담결과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인진의 요구를 쾌히 승낙하시였다.

그리하여 회담이 있은 얼마후에 박인진은 우리 통신원의 안내로 백두산밀영으로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도교의 내부형편과 교도들의 동태, 특히 천도교 서울중앙의 구성상태와 그들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천도교 교리에 굳어진 그의 사상적 준비정도에 맞게 조국광복회 창건의 취지와 10대강령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해주시고 종교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과 태도, 일제의 종교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인식시켜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당시 조성된 내외의 정세와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정,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전망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도교와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문제,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고려혁명당≫이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같은데 망라되였던 천도교출신 인사들의 반일독립운동에 대한 의견도 그와 진지하게 나누시였다.

박인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하고 깊은 뜻이 담긴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부대의 생활모습도 보고 여러가지 모임에도 직접 참가하였다.

갑산, 풍산, 삼수를 중심으로 한 북부조선일대의 천도교인들과 광범한 농민대중속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함남도정 박인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풍모, 그이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키우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에 완전히 탄복했다.

그는 밀영을 떠나기에 앞서 천도교도들을 조국광복회에 망라시켜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자는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겠다는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고 그이의 크나큰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박인진은 억제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후 천도교인들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실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박인진자신이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되여 조국광복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특히 그는 서울에 있는 최린이라는자에게까지 조국광복의 기발밑에 통일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친일적인 최린이 응하지 않게 되자 반동적인 천도교상층과 결연히 인연을 끊고 자기 관할하에 있던 함남도일대의 수많은 천도교도들을 조직적으로 조국광복회에 망라시켰다.

조국광복회 기관지≪3.1월간≫은 이 사실을 지체함이 없이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대중속에 전하여 그들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공작원들과 국내공산주의자들을 통하여 국내에서 조국광복회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가시는 한편 조국광복회 기관지≪3.1월간≫을 통해서도 광범한 반일군중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묶어세우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3.1월간≫은 ≪천도교 상급령수 모씨! 우리 광복회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표제밑에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내외지에 있어서 유력한 대중적기초를 가지고있는 천도교 ××위원 모씨는 끓어넘치는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친히…**김일성**장군님을 방문하였다.

…전기 모씨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복회 정강과 일체의 주장에 대하여 찬동을 표시하고 아울러 천도교청년당원…을 조선독립전선에 출동시킬 의향을 명시하고 장차 우리 광복회와의 보다 긴밀한 련계를 취할것 등을 굳게 약속하였다고 한다.≫

≪3.1월간≫에 실린 이 글은 당시 천도교인들속에서 조국광복회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하는데서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는데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 천도교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물론 민족주의자들속에서도 큰 파문이 일어났다.

≪3.1월간≫에 실린 글을 보고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조국광복회 두리에 뭉치기 시작하였으며 독립군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문을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3.1월간≫은 조국광복회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조직동원자적, 선전교양자적 기능을 원만히 감당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사실 ≪3.1월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광복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있었다.

≪3.1월간≫은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급속한 실현을 위하여 조국광복회운동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론문들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론문들을 계통적으로 실으면서 광범한 반일대중을 조국광복회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3.1월간≫에는 또한 국내각지에 뿌리를 내린 조국광복회지회조직들의 투쟁소식도 실었으며 조직을 꾸리고 그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룩한 경험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룩한 혁혁한 전과며 국내외정세자료들을 취급하면서 광범한 반일대중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묶어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국광복회운동을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3.1월간≫이 혁명적출판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그의 집필편집으로부터 발행, 배포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잡지≪3.1월간≫은 전국적판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권위있는 출판물로, 수많은 독자대중을 가진 조국광복회의 위력한 기관지로 되였다.

그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조국광복회운동의 발전실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 나라에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도처에로 부채살처럼 뻗어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그 선언문은 거리와 지역, 당파와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위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쥐였던것이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백두산가까이의 함남, 함북도 일대는 물론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북도일대,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도일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일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일대에 광범히 퍼져갔다.

국내의 넓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혁명조직들은 날을 따라 튼튼한 줄기와 무성한 가지를 뻗치면서 더욱 싱싱히 자라났다.

당시 신의주 압강일보사에서 낸 ≪국경의 화≫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부민은 성실한 그(혁명군)들의 이 전술에 물젖어 마치 갈망하고 바라며 찬양하던 구세주와 같이 추켜들어 독가스와 같은 이 마수를 추대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인차 반일회는 조직되고 청년의용군 또는 농민자위대가 생긴다. 갈팡질팡하던 부민은 마치 죽은 혼에 이끌리는것과 같이 혁명군의 뜻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들이 목표하는 반만항일의 기세와 공산주의사상은 그들의 자태가 나타난 어느곳에서든지 침투하여간다.≫

적들자신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광복구상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것은 조국땅우에서 활짝 꽃피여나고있었다.

백두산밀영과 만경대가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백두산은 령역이 광범하고 산세가 웅건하며 경관 또한 이채로와 예로부터 신비의 산으로 불려왔다.

18세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은 여덟가지 이름이 있으니 불함산, 개마산, 도태산, 장백산, 태백산, 백산, 가이아민상견아린, 백두산이라 불렸다.≫고 하였다. 그는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 나라 산악의 조종이다.≫라고 하였다.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흘러온 백두산의 이름에는 사시사철 흰 갈기를 날리며 웅자속에 민족의 얼과 슬기를 상징해 온 조종의 산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백두산을 주봉으로 그 린근에 솟은 해발 2천메터이상의 산들은 거개가 대머리 산들인데 흰 부석판 아니면 현무암층 바위들로 봉우리가 이루어져서 겨울은 물론 여름철에도 산정은 늘 흰 모자를 쓴 듯하다.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굽어보면 조금 낮은 흰 산이라는 뜻을 가진 소백산이 눈 아래 보이고 백두산과 소백산사이에 간백산이라 부르는 또하나의 준봉이 보인다. 간백산과 소백산사이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소백산에 수원을 두었다 하여 소백수라 부르고 그 골짜기는 소백수골로 일러왔다. 소백수를 사이를 두고 산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보면 벼랑진 봉우리들이 불쑥 치솟았는데 그것이 해돋이바위, 룡마바위, 장검바위들이고 룡마바위 맞은편 간백산줄기에 깎아 세운 듯 우뚝 솟아 웅자를 돋보이는 봉우리가 정일봉(이전의 장수봉)이다. 정일봉 서남쪽에 사지모습으로 드러누운 사자봉(와사봉)이 있고 정일봉의 서쪽과 서북쪽에는 곰이 많다는 곰산과 북단의 절승 선오산이 솟아있다.

명산대천에서 명인이 난다는 옛 이야기처럼 옥류금주같은 소백수 흐름을 옆에 끼고 조종의 성산 백두산과 주변의 고산준령들에 에워싸인 정일봉 아래에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생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이 있어 그분의 생가를 보았더라면 과시 천하제일의 명당자리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께서는 1936년 9월 정일봉기슭의 바로 그곳에 광복전의 사령탑적 거점인 백두산밀영을 창설하시고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의 항일전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셨다.

194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내외정세는 격동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나치스독일의 쏘련침공이 감행(1941. 6. 22)되고 이에 발맞추어 일제의 진주만 공격과 말라이반도 상륙작전개시(1941. 12. 8)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였다.

일제는 급격히 높아진 전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략탈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였으며 이것은 우리 겨레와 일제와의 민족적 모순을 첨예화시켰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항일의 령장 **김일성**장군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판도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백방으로 강화할 전환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계절적으로는 엄동의 마지막 몸부림속에 자연의 봄이 태동하고 정세적으로는 식민지압제의 얼음장밑에서 광복의 세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세계대전의 포연이 행성을 뒤덮고 반일광복전의 총포성이 백두의 지심을 구르는 가운데 임오년(1942년) 2월 16일이 밝아왔다. 립춘을 넘어선 백두의 대자연은 키를 넘는 장설에 묻혔어도 봄기운은 완연했다.

홀연 천지의 얼음장이 터갈라지는 소리가 지동처럼 울려퍼졌다. 오랜 세월 천지의 호심에 잉태되였던 조선의 대통운이 분출하는 고고성이련 듯 장쾌한 그 소리는 백두의 련봉에 길게 메아리쳤다.


백두산밀영 귀틀집

뒤이어 정일봉기슭의 귀틀집에서는 천고의 정적을 깨고 위인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고고성이 울려나왔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광복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성 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장남이신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력사의 날을 고대해서인지 겨우내 얼지 않고 지졸대던 소백수의 맑은 물은 정갈한 입김을 뿜어 골짜기에 하얀 서리꽃 동산을 펼쳤다. 정일봉 정수리에서는 산꼬대가 일면서 은백색의 꽃보라가 무너져내렸다. 그것은 분명 대자연의 축복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탄생을 맞이한 백두산의 환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그 탄생부터가 이렇듯 거룩하였다.

참으로 그분은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과 천지의 푸른 정기를 그대로 타고나신 조종의 산 백두산의 아들이시다.

1968년 7월 18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백두산은 아버님께서 강도 일제놈들을 때려부신 의의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태여난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뜻깊은 곳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조종의 산으로 불러오던 백두산이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던 그때로부터 혁명의 성산으로 되였습니다.

밀림속을 지나 이렇게 백두산을 눈앞에 바라보며 걸으니 고향집대문을 열고 뜰 안에 들어서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그분께서는 백두산은 걸어 올라가야 탐승의 진미를 알 수 있고 백두산의 자연도 밟아보고 고산지대의 정경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며 걸어서 산정에 오르시였다.

백두산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앞에 태고의 신비속에 감춰온 장관을 펼쳐드렸다. 구름이 널린 파란 하늘, 쪽빛으로 일렁이는 천지, 굽어봐도 하늘이요 쳐다봐도 호수다. 그리고 그 호반에 뿌리를 박은 험산준봉들이 하늘로 치솟았는가하면 물 속에 거꾸로 박히기도 하였다. 동서남북으로 연연히 뻗어간 산줄기와 계곡들에는 유구한 민족의 력사가 서려 있고 현대의 영웅전설들이 새겨져 있다.

그분께서 굽어보시는 백두산의 웅자, 그것은 력사의 세파에도 굽힘을 모른 단군조선의 슬기와 기상이 용암으로 굳어진 장엄한 천연의 비돌이요, 영광찬 항일혈전사를 서리서리 풀어



향도봉

헤치는 한편의 웅혼한 서사시였다.

주먹같은 돌멩이를 모래처럼 뿌려던지는 백두의 세찬 바라도 그분의 옷자락에 머물러서는 봄날의 미풍이련 듯 어리광을 부리고 거창한 백두산은 그분의 거인상을 받들고 선 하나의 대돌이양 싶었다.

≪백두산은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백두산은 명산 중에 명산입니다. 천지의 푸른 물에 비낀 백두산정은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기상과 유구한 우리 조국의 력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아마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가 있다 해도 백두산의 장엄하고 숭엄한 모습은 그대로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백두산의 위용은 그릴 수 있다 해도 백두산이 안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야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분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천지호반을 질러 령봉들에 찌렁찌렁 메아리를 남기는 듯 싶었다. 숭엄한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 없어도 그분께서는 백두산의 위용을 그대로 닮으셨을 것이다. 뭇사람들이 여기에 올라 ≪신비감과 전율, 현훈증과 공포감, 천지만물의 왜소감 등 5감을 그낀다.≫는 백두산이건만 백두산에서 나시여 백두산에서 자라신 그분께서 보시는 백두산은 유정한 고향집 뜨락이고 그지없이 아름답고 웅장한 조선의 자랑이며 민족적 슬기와 영광의 모태인 것이다. 참으로 그분이시야말로 백두산의 아들로서 백두산을 그대로 닮으신 백두산형의 인간이시고 백두산이야말로 그분을 그대로 닮은 **김정일**령도자의 산인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백두산을 볼 때면 **김정일**동지를 생각합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아들입니다, 백두산은 그의 고향이며 그의 담을 키워준 요람입니다, 그의 사상이나 성격을 보아도 그렇고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그렇고 그는 신통히 백두산을 닮았습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그의 온 정신과 온몸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야말로 백두산형의 인간입니다 라고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단군민족의 력사이고 철학이며 정신인 백두산의 아들인 동시에 애국의 혈통을 이으신 만경대가문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인격형성에서 그가 출생하고 성장한 가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의 자질과 풍모가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교육교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속성일진대 애국적인 가문에서 애국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담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의 한 구절이 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사회의 법칙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백두산밑에서는 백두의 정기를 타고난 후대들이 생기기 마련이다.≫(≪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편 제4권, 319~320페이지)

애국의 혈통을 이어받고 애국적이 교양을 받은 사람은 애국자가 되기 마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가 탄생하신 만경대가문이야말로 현대조선을 세계사의 흐름우에 우뚝 세워놓은 명가문이다.

아버님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일제강점자들의 발굽밑에 들어간 치욕의 연대초엽한 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14살 되시던 해에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민족의 해방자이시며 주체사회주의의 창업자이시다.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첫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인류사상사에 일대 획선을 그어놓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밝히시여 민족의 진로를 명시하시였으며 장장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 대업을 성취하시였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력사상 최단기간내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제와 민주주의변혁을 성공리에 수행하시였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또 한차례의 전쟁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하시였고 전후 폐허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민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주체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가장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였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촉진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창출과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 인류로부터 세계정치의 원로중의 원로로 칭송되였으며 자주시대를 견인해가시는 령도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면서 민중과 동고동락하시였으며 ≪인민행 렬차≫에 오르시여 전생애를 통해 쉬임없이 이어오신 현지지도의 그 길에서 애석하게도 1994년 7월 8일 만 82세를 일기로 서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어머님이신 **김정숙**녀사께서는 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덕의 애국적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피눈물나는 식민지망국노의 생활체험과 부모님의 애국주의 교양은 녀사를 어린 시절에 벌써 반일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녀사께서는 1931년 9월 청소년들의 혁명적인 반군사조직인 소년선봉대에 입대, 1931년~1932년 간도에서 추수, 춘황 폭동에 참가하시였고 1932년 7월에 공청에 가입, 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수많은 대소전투들과 군중공작, 지하투쟁에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투쟁한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다. 뿐만 아니라 녀사께서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과 녀성해방을 위해 정열적으로 활동하신 걸출한 녀성운동지도자이시였다.

김정숙녀사는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해, **김일성**주석을 위해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혁명가의 귀감이시였다. 그리고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숭고한 의리와 한없이 고결한 성품을 지녔던 까닭에 만인의 존경과 흠모를 일신에 모으신 민족의 슬기로운 딸이였고 겨레의 자애깊은 어머니이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조부 김형직선생은 평양숭실중학교출신의 직업적인 독립운동자이시였다. 선생은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최대규모의 반일독립운동사건으로 기록된 ≪105인회사건≫의 중핵적인물로서 그 사건의 조직체인 ≪조선국민회≫(1917. 3. 23 결성)의 조직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조모 강반석녀사는 김형직선생과 아드님이신 **김일성**주석의 반일혁명투쟁을 백방으로 도와주신 애국자이시였고 중국 무송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혁명적 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조직(1926. 12. 26), 그 첫 회장직을 맡으셨던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작은할아버지 김형권선생은 **김일성**장군의 무장항일로선을 받들고 국내에서 무장소조투쟁을 하시던 중 1933년 9월 일제에게 체포되시여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하시였고 삼촌 김철주선생 역시 1926년 10세에 우리 나라 첫 공산주의적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에 가입, 그후 조국광복성전에 헌신하시다가 1935년 6월 일본군과의 처렬한 조우전(중국 연길현 석인구부근)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시였다.

외삼촌 두분도 항일광복전에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열렬한 애국투사들이시였다.

이처럼 대대로 온 가문이 스스로 애국의 길에 나서 인생 초반에 이국의 산야에 묻혔거나 무주고혼으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애국일가, 혁명가문은 력사에 일찌이 없었다. 사상초유의 애국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정통과 슬기로운 기상이 어린 조종의 성산에서 격변하는 시대의 태동을 안고 탄생하신 **김정일**령도자이시기에 그분의 범상치 않은 탄생에 접한 민족의 환희는 그처럼 크고 그분에 대한 겨레의 기대 또한 지대한 것이였다.

고향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백두산밀영 고향집

해방직후 어느날, 어리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어머니, 고향이란게 무엇이나요?

고향이란 자기가 나서자란 곳을 말한단다. 고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있고 가까운 친척들이 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동산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그럼 누구에게나 다 고향이 있나요?

그래,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이 있지.

어머니, 내 고향은 어딥니까?

고향말이냐? 네 고향이야 백두산이지 어디겠니. 너의 고향은 조선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란다. 백두산은 천지가 있고 나무도 많고 또 아버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눕힌 곳이란다.

너도 크거들랑 백두산에 가보아라.

야, 백두산! 우리 아버지 산!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는 환성을 올리시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고향은 유서깊은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제일의 준봉이며 이 나라 조종의 산이다. 아득한 태초에 장차 이 땅을 풍미할 조선민족의 영용한 기상과 창창한 미래를 예시하며 지심깊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백두산의 기봉을 이루고 그 지맥이 조선반도 삼천리에 연연히 뻗어내렸으며 분화구의 정점에 층층 고인 천지의 맑은 물이 민족의 영원한 젖줄기로 되어 이 땅의 천만계곡으로 흘러내린다. 백두산 정점의 장군봉에서 동남쪽으로 약 40리 상거한 곳에 만리창공으로 치솟아오르려는 백두의 기상인양 천애의 봉우리 하나가 웅건히 솟아있다. 백두영봉에 태맥을 둔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한품에 그러안아 영원한 생의 활력을 부어주고 있는 듯한 이 봉우리가 정일봉이다.

신령스런 운치가 초연히 감돌고 상서로운 기운을 은은히 발산하는 정일봉기슭 천고의 수림 속으로는 태초의 그날부터 백두의 계곡을 누벼내린 벽계수가 흐른다. 백두천상에 미명이 비낄 때 정가로운 물안개를 피워올려 서리꽃의 절경을 펼치기도 하고 천지호반에 뿌리박은 칠색무지개를 정일봉마루에 이어놓기도 하는 이 유정한 물줄기가 소백수이다.

이끼오른 분비나무, 가문비나무가 희끗희끗하고 갖가지 수목이 울울창창한 속에 절벽을 이루며 솟아있는 정일봉과 정가로운 소백수의 흐름이 어우러져 천혜의 택지를 이룬 아늑한 골안에 자그마한 귀틀집이 있다. 백두산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천고의 수림 속에 전개

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의 중심에 위치한 백두산밀영의 이 귀틀집이 바로 **김정일**영도자님의 생가이다.

그분께서 탄생하시던 때는 바야흐로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오던 희망찬 격동의 시기였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1936년 2월에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구상을 밝히시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중국경일대의 넓은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비밀근거지를 창설할데 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이에 따라 1936년 가을부터 백두산의 수림 속에 밀영형태의 비밀근거지들이 수많이 전개되게 되였는데 소백수골에 위치한 백두산밀영에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자리잡았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중심적 영도거점으로 삼고 중국 동북지방과 국내 종심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에서의 군사정치활동과 전민항쟁준비사업을 통촉하시었다. 그 무렵 **김정일**영도자님의 어머님이신 **김정숙**여사께서도 이 밀영에 계시면서 양강도 신파지구와 함경북도 연사군, 함경남도 신흥군, 평안남도 양덕군 일대에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시었다.

민중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수림 속에서 장수들을 키우신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백두산을 조국광복의 성지로 바라보았고 오직 거기에 모든 운명을 기탁하고 있었다. 민중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꺼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건져주고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지켜줄 구세주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오기 마련이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린 총성으로 더욱 고양된 항일무장투쟁이 바야흐로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하는 역사적 단계로 발전함으로써 조국강토에는 광복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백두산밀영의 자그마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었다. 그날은 1942년 2월 16일이었다. 아직은 삼라만상이 깊은 눈 속에 묻혀있고 지심깊이 뿌리박은 천연바위마저 밑뿌리째 뒤흔들며 밤새도록 기승을 부리는 백두의 눈보라 속에서 절명하는 맹수의 포효성이 간간이 끊어지던 그 새벽에 홀연 천체의 모든 운동이 정지되기라도 한듯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면서 정가로운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쌓인 밀영의 창가에서 우렁찬 고고성이 터져올랐다.

쩌엉—

천지의 얼음장이 터갈라지는 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며 그에 화답했다. 오랜 세월 천지의 호심에 잉태되어 있던 이 나라 대통운의 분출이랄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백두산이 간직하고 있던 만복이 발복함을 알리는 뇌성이랄까, 장쾌한 그 소리는 백두의 연봉에 길게 메아리쳐갔다. 때맞춰 눈발이 그치고 동녘하늘이 훤히 열리면서 미명이 황홀한 주홍색으로 불타올랐다. 하지만 천계의 성스러운 축복을 받은 위인의 탄생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었다.

그분께서 고고성을 울린 고향집은 통나무를 올려쌓은 귀틀벽틈새를 이끼풀로 메우고 동기와를 얹은 자그마한 집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 귀틀집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여대원들의 정성이 깃든 쪽무이포단에 싸여 생의 첫 출발을 하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분의 탄생을 민족사적 일대 경사로 받아들이었다. 슬픔은 나누고 싶고 경사는 서로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상정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은 항일대전의 전장에서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안고 탄생하신 그분께서 장차 조선을 빛내이는 태양, 겨레와 민중을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원한 행복에로 이끌어주는 태양이 되어주실 것을 기원하여 ≪백두광명성≫이라고 존칭하였으며 아름드리 거목에, 천연바위에 불멸의 글발을 새겨 그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었다.

아, 조선아 겨레들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함경남도 신흥군 부연리)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삼천리강산에 밝은 빛 뿌리며 솟아난 백두광명성 만세(평안남도 안주시 입석리)

백두산에 광명성 떴다 백두광명성 삼천리를 비친다 모두 광명성 바라보라(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

영도자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안겨준 환희는 그처럼 열광적인 것이었고 그분의 앞날에 건 기대는 크나큰 것이었다.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격동적인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가 백두천상에서 광복의 새봄을 안아올 소년장수가 일황의 천궁을 뒤흔들며 천출용마를 타고내렸다는 신비로운 전설을 낳았다. 이 전설은 조선민중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왜놈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주었다.

백두산의 기상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백두산 해돋이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여염집의 아랫목이 아니라 맹수도 한번 길을 잃으면 헤어나기 어렵고 날새도 함부로 깃들지 못하는 천고의 밀림 속에서 성장하시였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과 아름드리 고목도 뿌리째 쓰러뜨리는 사나운 눈보라 그리고 화약내 풍기는 어머님의 군복자락과 원쑤격멸의 총포성, 이것이 그분께서 맞이하신 첫 세계였다. 아늑한 요람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으로 끼니를 에우셔야 하는 때가 많았다.

그분의 부모님들도 요람을 지켜주는 한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만이실 수 없었다. 아버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늘 전구에 나가 계셨고 어머님이신 **김정숙**여사께서도 혹은 자제분을 업으시고 혹은 밀영에 남겨두신채 전투임무와 지하공작의 길을 떠나곤 하시였다.

어리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물어가는 밀영의 창가에서 부모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잠기기도 하시고 일제와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한 유격대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것을 애타게 지켜보기도 하시었으며 우등불이 사위어가는 깊은 밤 푸른 하늘에 떠가는 조각달을 바라보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사향가≫를 부르기도 하시었다. 실로 유년기의 보통 어린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엄혹하고 처절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모든 극한상황을 초월하는 비범한 천품을 지니고 계시었다. 눈길을 들어 만리대공을 바라보면 가없는 천계의 뭇별들이 그분의 심령에 다투어 화답하면서 전광같은 예지와 무한한 정력을 부어주는 것만 같은 환희를 느끼시었고 백두의 산하 망망한 대지를 굽어보면 왜놈에게 짓밟힌 조국산천과 겨레가 외치는 항일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으시었다. 그분께서는 천지에서 발원한 소백수 맑은 물을 마시고 눈덮인 산발을 누비며 장수힘을 키우시었고 순간에도 천변만화하는 백두산의 풍운지변 속에서 슬기와 담력을 키우시었다.

그분께서 지니고 계시는 비범한 천품은 자제분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시려는 부모님의 웅심깊은 노고에 의해 더욱 위대한 풍모로 승화되었다.

1942년 6월 중순의 어느날이었다.

자제분께서 태어나시기전에 원정에 오르셨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날 밀영에 돌아오시어 처음으로 아드님을 안아보시게 되였다.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의 심중은 정녕 형언할길 없는 것이였다.

하많은 사연이 흘러넘치는 시선을 서로 나누며 아드님을 품에 안으신 장군님께서는 흉중에 일어나는 격정을 간신히 달래시며 이슥토록 아드님을 들여다보시다가 여사에게 자제분을 광복된 조국땅위에 민중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울 혁명의 후계자로 억세게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의 설한풍 속에서 태어나신 아드님에 대한 한없이 크고 숭고한 기대와 염원이 어린 말씀이였다.

며칠후 소부대활동을 하던 몇몇 지휘관들이 백두산밀영에 도착하여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를 만나뵙고 아드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유격대의 밀영이라 검소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소박한 방안의 정경을 보고는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이 좌중의 마음을 대변하여 장군님께 머리 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 형편이 이렇게 되어 면목이 없노라고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미소어린 안광으로 전우들을 둘러보시면서 물론 동무들의 마음은 알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후대들을 따뜻한 온실에서가 아니라 항일대전의 포성 속에서,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이 백두의 폭풍 속에서 억세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해방된 조국땅에서 부러움없이 살 때에도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혁명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무릇 자식에게 세상의 귀한 것을 다 주고 싶고 보다 안락한 내일을 기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이라 하겠지만 장군님께서는 아드님이 단란한 한가정의 아들이기전에 백두의 넋과 덕망을 지니고 겨레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투사로 성장할 것을 바라신 것이였다.

김정숙여사께서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자제분께서 일찍부터 남다른 용맹과 호방하고 인정스럽고 웅심깊은 성품을 지니도록 무척 마음쓰시였다.

1942년 마가을 어느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돌도 채 차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군정학습을 필하고 늦어서 돌아오시던 여사께서는 마당에서 노시는 아드님을 먼발치에서 부르시였다.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는 어머님의 기척을 가려듣고 움찔 일어서시더니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두손을 흔드시였다. 아직은 걸지를 못하시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사께서 거의 다가가시었을 때 갑자기 어머님께로 몸을 쏠으시며 걸음을 떼시는 것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격대원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탄성을 올리었다.

하지만 몇걸음 옮기지 못하고 넘어지셨다. 손뼉을 치며 떼이른 걸음마에 감탄하던 여대원들이 얼른 달려가 일으켜드리려는데 여사께서는 그들을 만류하시며 오히려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시더니 두팔을 벌리고 다정히 아드님을 부르시였다.

어머님의 음성에 금시 환한 얼굴이 되신 영도자님께서 다시 몸을 우뚝 일으키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으나 이내 또 넘어지셨다.

한 여대원이 병실에 달려가 모포를 안고왔다. 깔아드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사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제지하시면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지 마세요. 좀 넘어져 아프면 뭐랍니까. 앞으로 가야 할 우리 혁명의 길은 이보다 더 험할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다심하고 자애로운 것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자제분께서 수난받는 민중의 뼈저린 아픔을 억세게 딛고 일어나 세상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영원히 가셔줄 백두산의 영용한 장수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여사의 마음은 그것을 초월한 것이었다.

여사께서는 밀영의 밤이면 아드님을 품에 안고 다독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시었다.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한없이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염원을 담아 부르시는 자장가소리는 어리신 영도자님의 부드러운 뇌리에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라는 엄숙한 당부로 새겨졌다.

영도자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이끄시는 부모님을 따라 일찍부터 총폭탄이 작렬하는 전장의 소음과 초연을 몸에 익히시었으며 경각에 박두한 신변의 위험도, 주야로 이어지는 행군과 살벌한 총검의 숲을 헤쳐야 하는 적구투쟁의 시련도 몸소 겪으시었다. 그 나날에 어리신 그분께서는 영장의 기개와 후더운 인정미를 깊이 체득하시었다.

그분께서 나무권총을 차고 쌍안경을 가슴에 드리운 차림새로 군마같이 생긴 바위를 타고 앉아 나무칼을 휘두르며 왜놈이다! 돌격앞으로!하고 목청껏 외치실 때면 천하를 호령하는 용장의 모습으로 온 밀림에 가득차 보였고 낮에 밤을 이어가는 행군길에서 혁명가요를 씩씩하게 부르실 때면 천근으로 무겁던 걸음에 백배의 힘을 보태주었으며 여사와 함께 병고에 신음하는 유격대원의 머리맡에서 밤이 새도록 찬물찜질을 해주실 때에는 고향에 두고온 인자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을 적셔주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백두산적인 호방한 기상과 무비의 담력, 준수한 기품과 후덕한 아량을 엿보게 하는 유소년시절의 일화가 많다.

해방직후의 어느날 동평양경마장에 구경을 가셨던 그분께서는 한번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으시었다. 아드님의 심정을 헤아리신**김일성**장군님께서 이튿날 낮에 백마 한필을 끌고와 마상에 아드님을 앉히고 마당을 몇바퀴 도신 다음 고삐를 넘겨주시었다.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는 조금도 주춤거리는 기색이 없이 고삐를 단단히 틀어잡고 자, 백두산으로 가자, 백두산으로 가면 날개돋힌 용마가 된다!라고 외치시며 힘껏 박차를 가하시었다. 경쾌하게 달리던 말은 과연 날개라도 돋친듯 네굽을 안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고삐를 바싹 다잡고 박차를 가하는 어리신 그분의 안광에는 섬광이 번뜩이고 전신에는 비상한 슬기와 담력이 넘쳐흘렀다.

그분의 이런 호방한 기백과 담력은 의젓하고 부드러운 인품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당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쏘련군 사령관 스티코프 대장이 **김일성**장군님의 저택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점심식사후 오침하고 계시는 때였다.

스티코프는 그날도 여느때처럼 정원에 들어서는 길로 저택현관으로 곧장 갔다. 그런데 어리신 영도자님께서 깍듯이 인사를 하시며 그가 현관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나서시었다. 불철주야로 새 조국 건설에 진력하시는 아버님께 모처럼 차례진 휴식시간을 지켜드리시려는 것이었다. 스티코프 대장은 무인다운 장대한 풍채에 눈매가 엄하여 웬간한 사람은 그 위풍에 먼저 기가 질린다고 정평이 나있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나 공경스런 예위에 습관되어 있던 그로서는 몹시 놀라운 한편 하도 담찬 그분의 모습에 저절로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군님을 만나뵈올 수 없는가, 내가 누군지 아는가 하고 말을 건넸다.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만나뵈올 수 없다, 스티코프 대장이라는걸 안다고 대답했다. 스티코프는 또 정말 지금은 안되는가, 내가 무섭지 않은가고 물었다. 이번에도 영도자님께서는 절대로 안된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었다.

이렇게 오고간 대화는 결국 스티코프 대장의 기다리겠다는 의향표시로 낙착되었다. 어리신영도자님께서는 그를 대기실로 안내하시고 이 방에서 얼마동안 기다려달라고 예절있게 말씀하시며 문까지 열어주시었다. 그분의 의젓하고 예의범절이 분명한 행동에 다시금 감동된 대장은 그분께 사의를 표시하며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리신 영도자님과 함께 밖에 서있게 되었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후 출근차로 현관을 나서시다가 스티코프 대장이 장승처럼 서있는 것을 보시고 왜 거기 서있는가고 물으시었다. 대장은 사연을 이야기하고나서 아무데나 거침없이 ≪무사통과≫해온 대장을 댁의 어린 주인이 내쫓아 졸장부로 만들어버렸다고 농담을 하며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함께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스티코프 대장은 어리신 영도자님을 번쩍 안아 추켜올리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어린 영웅, 소년장군 하고 격찬해 마지 않았다. 이날 그는 진정으로 영도자님의 담차고 준수한 기품에 감탄했던 것이다.

근로민중에 대한 경애심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만경대를 찾으실 때마다 증조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일가분들 모두가 편히 지내시는 것을 보실 수 없었다. 증조할아버님은 김을 매거나 새끼를 꼬기도 하시고 무슨 농사일이나 다하시었다. 증조할머님도 낮에는 밭일을 하시고 밤에는 물레질이나 바느질을 하시면서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으시었다.

어머님께서도 댁에 계실 때나 만경대에 가셔서나 늘 일감을 잡고 계셨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한 일가분들을 보시며 생각이 깊어지셨다. 왜놈도 없어지고 지주도 없는데 이제는 좀 편히 지내도 되시련만 왜 그냥 일들만 하실까, 늙으신 증조할아버님께서는 허리마저 굽으셨는데 그래도 쉬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셨다.

어느날 영도자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로 가시니 그날도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뙤약볕이 내리쬐이는 남새밭에서 김을 매고 계시었다. 서둘러 호미를 들고나서시는 어머님을 따라 영도자님께서도 밭으로 나가시었다.

땅에서는 더운 기운이 풍기고 호미날에서는 흙먼지가 팍팍 일었다.

영도자님께서는 흐르는 땀에 옷이 화락하니 젖었는데도 그냥 김을 매고 계시는 증조할아버님에게 덥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덥지, 왜 안덥겠니.

허리 아프지 않나요?

허리도 아프지.

그런데 왜 김을 매나요. 저 나무밑에 앉아 쉬세요. 서늘한데서요.

증조할아버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면서 속담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아드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어 앞정서 일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에 땀을 흘리며 일을 많이 해야 풍년이 든다는 말이라고 풀이해 주시였다.

말씀의 뜻은 이해가 되셨지만 영도자님께서는 늙으신 증조할아버님께서 땀을 흘리며 김을 매시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분께서는 시내에 있는 댁에 가서 함께 살자고 조르시면서 그렇게 되면 터밭은 어머님과 자신께서 매겠으니 편히 쉬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시었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영도자님을 꼭 그러안아주시면서 농사꾼이 땅을 두고 어데로 가겠는가고, 난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시였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날 댁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어머님께 너무나 일을 많이 하며 고생하여 허리가 굽으신 증조할아버님걱정을 하시면서 이제는 왜놈들이 다 쫓겨가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왜 그냥 힘들게 일하시는가고 안타까워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젠 좀 쉬시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왜놈세상에서는 애써 지은 곡식을 지주놈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분통이 터졌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잘살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면서 일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였다.

영도자님께서는 왜 일을 많이 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잘살게 되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일을 많이 해서 기계도 많이 만들고 낟알도 많이 내고 집들도 많이 지으면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살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는 강대한 나라로 될게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란다.

영도자님께서는 어머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였다.

그후 어느날 만경대집으로 가신 그분께서는 증조할아버님께서 잠시 뜨신 사이에 밭에 놓고 가신 호미로 김을 매보시였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작 해보니 힘에 겨우시였다. 잠깐사이에 빨갛게 익은 얼굴로 땀이 흘러내렸다.

아서라. 넌 못한다. 발을 다치겠다.

증조할아버님께서 급히 소리치며 다가오시였다.

영도자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할아버지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대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일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시고는 또다시 허리를 굽히고 꼼꼼히 호미질을 해나가시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미질이 아니라 만경대가문의 애국적 가풍인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대한 성실한 체험이였으며 세상의 모든 재보를 창조해내는 근로민중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키우는 수련이였다. 민중에 대한 이런 열렬한 사랑심은 그들이 창조한 재보를 무한히 아끼는 마음으로 자라났다.

그분께서는 벼알 한알도 그것이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곡식이기에 무심히 대할 수 없으시였다. 한번은 어머님과 함께 쌀에서 골라내신 벼알을 모아두었던 것을 혼자서 까고 계셨는데 이웃에 사는 여인이 띠어보고 그걸 왜 까는가고 물었다. 그분께서 밥을 지어먹자고 그런다고 대답하시자 여인은 어이없는듯 웃으며 그까짓 여남은알 되나마나한걸 내버리지 무얼 수고스럽게 까는가고 했다.

어이없는 것은 사실 그 여인이였다. 농민들의 수고와 땀이 배인 낟알을 아낄줄 모르고 그렇게 허술히 대하다니. 어리신 영도자님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니예요. 이것도 다 농민들이 애써 지은 것인데 버리면 되나요? 노동자, 농민들이 땀흘려 만든 것은 무엇이나 다 귀중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로하는 사람들이 창조한 재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영도자님의 마음은 오랜 세월 압제자, 착취자들에게 억눌리고 유린당해온 근로민중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 더욱 강렬해지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승화되었다.

1947년 4월 어느날 어머님을 따라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였다. 영도자님께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곳 노동자들이 해방된지 얼마 안되는 사이에 왜놈들이

마사놓고 달아난 공장을 복구하고 비단실을 뽑아낸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제사공장 누나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계셨다.

그래서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공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담장위에 쳐놓은 가시철조망을 보시게 되었다. 해방전에 쳐놓은 것을 미처 걷지 못했던 것이다. 영도자님께서는 대뜸 안색을 흐리시며 여기는 왜놈의 공장도 아닌데 왜 가시줄을 쳤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전에 청진에서 만났던 방직공누나도 저런 가시줄때문에 집에 못왔었다고 했노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분께서 어머님과 함께 청진에 머무르고 계실 때 왜놈이 경영하는 대구방직공장에 끌려가 고역을 치르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온 한 방직공누나를 만나시였는데 그 처녀는 감옥같은 공장에서 혹사당하던 애어린 처녀들이 너무나 힘들어 도망치다가는 가시줄때문에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놈들에게 잡혀 매맞아 숨지곤 했다고 울면서 말했다. 그때 그 방직공누나가 자기도 앓고 있는 부모들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여 매일밤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으나 가시줄때문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와보니 부모님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더라고 하면서 목놓아울던 일이 몹시 가슴아프시었던 것이다.

영도자님께서는 왜놈처럼 밉고 미운 저 가시줄을 당장 없애버리고 그자리에 꽃전등을 달아주며 마당에는 꽃밭을 만들어 비단실을 뽑는 누나들의 공장을 제일 곱게 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가슴아픈 일은 가시철조망뿐이 아니였다. 해방된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힘든 일도 많았고 작업조건도 좋지 못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는 조사공누나들의 손은 허옇게 부풀고 진무러져있어서 보기에도 마음이 저려드시였다. 영도자님께서는 어머님에게 누나들의 손이 왜 저렇게 터졌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한 조사공처녀의 터지고 물크러진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루종일 더운 물에 손을 잠그고 일해서 그렇다고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김이 서려오르는 물에 두 손을 잠그어 보시였다. 뜨거운 물에 손가락이 빨갛게 되면서 아려났다. 누나들의 손이 정말 몹시 아프겠다고 생각되시였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그 조사공누나의 진무러진 손을 살살 어루만져주시였다.

조사공처녀는 목이 메였다. 그는 어리신 그분의 손목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김일성**장군님 덕분에 왜놈들이 거꾸러지고 우리가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쯤한 것이 무슨 고생이겠는가고 말했다.

어리신 영도자님에게는 그 누나의 말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그럴수록 어서 커서 그 보배로운 손들이 더는 진무러지지 않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올랐다.

그날 저녁이었다.

그분께서는 자주 들리곤 하시던 이웃집에 찾아가 손이 아픈데 바르는 약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시였다. 어떻게 하면 조사공누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종일 궁리하시다가 고약이라도 많이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었다.

주인은 늘 허물없이 찾아와 재미나는 이야기도 나누고 축음기도 듣다가곤 하시던 그분께서 그저 약을 달라고만 하시는 바람에 의아해 하면서 있는대로 꺼내드리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그 고약통들과 집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내놓으시면서 어머님께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이 약을 누나들에게 보내주세요.……

제사공장누나들이 이 약을 바르면 손아픈 것이 인차 나을거예요. 내 손이 텄을 때 어머니가 이런 약을 발라주시니까 인차 나았댔어요.

그러시고는 이다음에 크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도 비단실을 뽑을 수 있는 기계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웅심깊고 기특한 그 마음에 어머님께서도 감동을 금할 수 없으시였다.

어리신 영도자님의 가슴속에 싹터오른 근로민중에 대한 뜨거운 애정은 새 조국 건설의 벅찬 현실 속에서 더욱 숭고한 경지에로 승화되어갔다.

어머님의 영전에서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인생에는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슬픔도 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너무나 이르신 나이에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하시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 있어서 **김정숙**여사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실 뿐 아니라 조국의 아들, 민중의 아들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겨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었다. 그 자애로운 품속에서 고매한 넋을 키우며 백두산의 아들로 자라나신 영도자님께서는 민중의 보람찬 새 생활이 펼쳐지는 해방된 조국땅위에 더욱 살기 좋은 낙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포부를 키워가고

계시였다. 그런데 미증유의 세기적 변혁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창한 앞날에 대한 희열과 의욕으로 충만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던 그분께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어머님의 돌연한 서거는 실로 참기 어려운 슬픔이였다.

사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항일전에 나서시어 백두광야의 임해설원에서 풍찬노숙하시면서 얻은 병이 일신을 돌보지 않고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하시는 과정에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여사께서 임종의 시각을 가까이 하고 계시던 그날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황해북도 토산으로 현지지도를 떠나시였고 댁에는 병색이 깊으신 여사께서 홀로 계시게 되였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심상치 않은 어머님의 병상을 지켜드리고 싶었지만 어서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는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댁을 나섰다가 유치원공부를 필하고서야 돌아오시었다.

영도자님께서 방에 들어서시니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군복을 안으신채 누워계셨다.

아드님을 유치원으로 떠나보내신 뒤 자신의 병세를 이미 짐작하고 계신 여사의 눈앞에는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신 나날들이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어 양친부모와 형제분들을 왜놈의 총칼에 다 잃으신 여사에게는 오직 혁명의 품밖에 의지할데가 없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여사께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 삼도만유격구며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으시던 불우한 가정사까지 다 아뢰며 장군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일념을 가슴깊이 새기시던 만강의 봄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그때로부터 여사께서는 장군님의 친위전사로 계시면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 진력해오시었다. 왜놈들의 총구가 지척에서 겨누는 위급한 순간에장군님을 몸으로 막아나서시며 적들을 쏴눕히던 대사하치기전투며 끓는 죽가마를 이고 탄우 속을 헤쳐야 했던 급박한 상황과 얼음구멍을 까고 장군님의 옷가지를 빨아 가슴에 품어 말리우시던 고난에 찬 행군길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시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었다. 그러기에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지하공작을 나가셨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신 최악의 순간에도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충성의 길은 해방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니 여사께서는 항일의 나날에 누적된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그리운 고향과 친척들을 찾는 일도 뒤로 미루시고 건국위업에 심혼을 다 기울이시었다.

하많은 사연을 더듬게 하는 상념의 갈피 속에 늠름하게 커가시는 아드님의 모습이 비껴드는 순간 사랑하는 자제분들을 남겨두고 영영 떠나셔야 하는 가슴저미는 영별의 아픔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아드님을 혁명의 아들로 억세게 키워오시던 나날의 가지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시었다.

돌이켜보면 실로 고난과 시련은 첩첩했어도 영광으로 빛나는 한생이었다.

여사께서는 옷장에 정히 간수해두셨던 장군님의 군복을 꺼내시었다.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전을 앞두고 여사께서 손수 지어올리신 것이었다.

항일전의 나날을 일시에 더듬어보게 하는 그 군복에는 여사의 모든 염원과 전생애가 비껴있었다. 항일의 그 나날처럼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원히 분투하실 깊은 의미를 담아 고이 보관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군복을 아드님께 넘겨드려야 할 때가 닥쳐온 것이다.

여사께서는 혼신의 정력을 모아 군복을 다이기 시작하셨다. 아드님께 남기고 싶은 천만마디의 말을 담아 다림발을 세워나가시는 여사의 가슴은 백두의 기상과 고결한 덕망, 비범한 슬기와 영장의 담력을 아울러 갖추신 아드님에 대한 크나큰 기대감과 철석 같은 믿음으로 그득히 차올랐고 장군님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안도감으로 평온해지시었다.

이윽고 방에 들어서신 아드님을 띠어보신 여사께서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안고 계시던 군복을 넘겨주시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었다.

이 옷은 아버님께서 조국을 해방하는 최후공격전에로 떠나실 때 입으셨던 군복이다.……

아버님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 수 있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된단다.

영도자님께서는 백두의 넋이 깃든 아버님의 군복과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철의 신조로 체득하시고 빛나는 한생으로 지켜오신 어머님의 좌우명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안으시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머님의 그 말씀이 자신께 남기시는 마지막유언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이 장군님께 어서 알려드리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국사로 출타하신 그분께 지장이 된다고 하시며 극구 만류하시던 여사께서는 가물거리는 의식을 가다듬으시며 정 전화를 하겠으면 자신께서 앓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언제 돌아오실 수 있겠는가만 알아보아달라고 하시고는 그만 혼수상태에 드시고 말았다.

엄습해 드는 육신의 아픔 속에서 장군님께서 곁에 계셔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얼마나 간절했으랴. 하지만 혁명에 대한 열정도, 민중에 대한 사랑도 다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서 찾으시는 여사이시기에 임종이 박두한 그 시각에조차 그분께서 떠나가신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시며 그 길에 영원한 영광과 안녕이 있기만을 바라신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영도하시는 민중의 위업에 마지막일각까지 다 바치시는 숭고한 그 영상은 영도자님의 가슴속에 더없이 숭엄한 계시로 흘러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돌아오시었다. 생전 처음으로 자리에 누우신채 장군님을 맞으시는 여사를 굽어보시며 이미 병세가 기울었다고는 차마

믿을 수 없으시었다.

얼마후에야 장군님을 알아보신 여사께서는 밤이 깊었는데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어서 보던 일을 마저 보시라고 조용히 뇌이시며 눈가에 미소를 지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아무런 불길한 징후도 예시해 주지 않는 그 평온한 미소를 믿으시고 한 항일투사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옆방으로 병문안을 가시었다.

그런데 1분이나 되었을까. 장군님께서 문병의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시각에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시던 여사께서 조용히 운명하시었다.

1949년 9월 22일 새벽이었다.

너무나 억이 막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치밀어오르는 오열을 가까스로 누르시며 여사의 영전에 이윽토록 서계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여사의 손을 따뜻이 감싸쥐시었다.

조국을 위해, 민중을 위해 그렇게도 열정에 넘친 한생을 살아오신 여사,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이 쓰다듬어주시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떠밀어주시며 귀여운 어린이들의 볼을 어루어주시던 여사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단장의 비애가 녹아내리는 듯한 장군님의 음성은 간간이 끊어졌다.

정숙동무가 가다니……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던 동무가, ……동무가 이렇게도 빨리 간단말이오. 동무들에게 행복을 주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자고 그리도 열렬히 말하던 동무가 그 일을 앞에 두고 어찌 눈을 감았소.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비통하시어 말씀을 잇지 못하시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이라면 일제의 총검이 숲을 이룬 천리 머나먼 적구에 계시다가도 단숨에 달려오시고 장군님께서 바라신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열화같은 충정의 한생을 바쳐오시던 여사께서 어찌하여 아무 대답도 없으신가!

오열 속에 동이 트고 미구하여 아침해가 솟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날이 밝는줄도 몰랐다.

여사의 영구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 안치되었다.

향기 그윽한 생화 속에 여사를 모신 영안실에는 온 나라의 슬픔이 가득차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치밀어오르는 비감을 가까스로 누르며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동생을 잃고 친척들과도 생이별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여사는 실로 한생을 바쳐 역사에 불멸할 공적을 유산으로 남긴 혁명가의 사표였다. 거룩한

생애와 불멸의 공적처럼 고귀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조객들 속에서는 더욱 세찬 흐느낌이 터져올랐다.
9월 24일 오후 1시, 어머님과의 마지막 영결의 시각이 다가왔다.

……
열사들의 뼈와 살은 옥토 속에 묻혔으나
혁명정신 살아있고 일편단심 남아있다
……

추도가의 선율이 비장하게 흐르는 가운데 영구가 발인되었다.
영구를 모신 마차는 해방산을 굽이돌아 저택정문앞에 잠시 멈추어섰다가 연도에 운집한 추모인파 속을 누비며 장지인 모란봉기슭으로 천천히 멀어져갔다.
어리신 영도자님께 있어서는 정녕 믿을 수 없는 현실이였다.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만시름이 봄눈처럼 사그라지던 자애에 넘친 그 안광, 한번 웃으실 때면 온 누리를 환히 비쳐주는 것만 같던 어머님의 정다운 그 미소에 어떻게 어둠이 깃들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사랑에 넘친 어머님의 그 음성을 다시는 들어볼수 없단 말인가!
운구차를 바라보시는 영도자님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어머니! ……
불러도 대답이 없고 천지간 그 어디에서도 더는 찾을 길 없는 어머니를 부르는 애통한 소리만이 컴컴하게 흐린 하늘아래로 메아리쳐갔다.
영도자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님과 영결하시었다.
며칠후 영도자님께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묘소로 가시었다.
빨간 흙이 눈뿌리를 저미는 봉분위에는 철이른 단풍잎이 점점이 떨어져있었다. 그속에 어머님께서 누워계신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치밀어올랐다.
오래지 않아 가을이 깊어지면 낙엽이 져서 한벌 덮이고 좀더 있으면 눈발이 흩날리겠는데 오가는 찬바람이 그칠새 없는 이 한 적한 산기슭에 어머님께서 홀로 누워계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으시었다.
봉분앞에 정히 헌화하고 깊이깊이 읍하고 계시는 영도자님의 눈가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께서 우시면 어린 동생이 따라 울고 그러면 아버님께서 상심하실까봐 참고 참아오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였다.
장군님께서도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시며 추연히 흐르는 대동강쪽으로 돌아서시었다.
숲 속에는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는 자제분들을 차례로 안아일으키며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어머니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는 조선의 훌륭한 딸이였다.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일찍이 손에 총을 잡고 10년세월 백두산에서 나와 함께 싸웠다. 아직도 백두산의 산발마다에는 너의 어머니의 피어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격해올라 말씀을 끊으시고 한동안 걸음을 옮기시었다.
영도자님께서도 아버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따라 걸으시었다.
모진 슬픔을 이겨내시는 걸음, 아버님께서 개척하시고 어머님께서 한생을 바치신 숭고한 위업을 끝까지 이어가실 굳은 결의가 어린 걸음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혁명의 길은 간고했지만 너의 어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싸웠다. 너의 어머니가 백두산줄기마다에 뿌려놓은 피와 땀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 속에는 수많은 혁명열사들과 함께 너의 어머니가 바친 수고가 깃들어 있다. 우리 인민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머니처럼 조국의 훌륭한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에 대한 값높은 칭송인 동시에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염원을 빛나게 실현하실 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가 어린 말씀이였다.
어머님의 분묘앞에서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눈앞에는 백두의 산발이 우렷이 떠오르고 유격대의 우렁찬 진군나팔소리가 귓전에 우레쳤다. 가슴속에는 엄숙한 사명감이 한가득 차올랐다.



혁명소설 ≪삼천리강산≫에서

…



새조국건설시기
어리신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계시는
김정숙동지

담장을 따라 발자욱소리를 조심하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는 희끗한 그림자가 보였다. **김정숙**녀사이시였다. 특히 가로를 끼고있는 동쪽과 남쪽 담장이 걱정되시여 그 밑을 걷고 또 걸으신다.

≪이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으면 **김정숙**동무가 또 밤을 세울것 같습니다.≫

≪산에 있을 때는 몇백메터밖에 적을 두고 며칠씩 숙영한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김정숙**동무가 있기때문에 장군님댁의 호위는 마음을 놓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빨찌산투쟁시기 그러했던것처럼 조국에 개선해서도 자신을 장군님의 친위전사로 여기고 지금과 같은 심야에 그이께서 정원에 나와계실 때는 적들이 준동을 할수 있음직한 어스크레한 뜨락 구석을 떠나지 않으시였다. 밤중에도 한두번은 반드시 저택주변을 주의깊이 살피고 다시 잠자리에 들군 하시였다.

김책은 일부러 기침소리를 크게 내며 정문을 나섰다. 장군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니 녀사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

옷매무시를 거울에 비쳐보고난 김책은 좁은 길을 하나 사이에 둔 장군님댁으로 향했다. 정원에 들어선 그는 저도 모르게 못박힌듯 한자리에 굳어졌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허리에 창문을 꼭꼭 닫았을뿐만아니라 창가림까지 드리운 응접실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헤아릴수 없는 거대한 중량이 어깨에 실린듯 걸음은 느리고 무거워보였다. 형편이 어렵게 된 조선혁명, 민족의 장기분렬, 장군님께서 거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낱말들이 김책의 머리속을 꿰지르고 지나갔다. 엄혹한 현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다시던 말씀이 귀청을 때린다. 김책이 모지름을 쓰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쓰던 민족의 운명을 건 사색을 그이께서는 계속하고계시는것이다. 김책이 선뜻 현관앞으로 다가가기가 저어되여 어둠이 깔린 정원길을 잠시 거닐고있는데 **김정숙**녀사께서 소리없이 그의 옆으로 다가오셨다.

≪부위원장동지가 오셨군요.≫

녀사께서는 한시름 던듯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아직 식사도 드시지 않고 응접실에 계십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식사는 드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김책은 근심이 낀 **김정숙**동지의 그늘진 안색을 언뜻 스쳐봤다.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깊은 근심에 잠겨계시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오시는 **김정숙**동지가 아닌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을 때만 해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였다고 바쁜 시간을 틈내서 대중강연

에도 출연하고 남조선에서 찾아오는 이름난 정객들을 맞이하여 장군님의 구상을 알려 주시군 하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런데 이제 조국의 장기분렬이 눈앞의 엄혹한 현실로 닥쳐왔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괴로와 하시겠는가. 김책은 낮에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김정숙**동지께 말해줄수 없었다.

≪내 들어가서 식사를 드시라고 권해보겠소. 정숙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오.≫

김책은 응접실쪽을 바라보며 나직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현관앞으로 다가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유리미닫이문을 열고 발자국소리를 크게 내며 마루우에 올라섰다. 응접실한가운데 놓인 원탁을 틀어쥔 주먹으로 지그시 내리누르고 서서 깊은 사색을 이어가던 장군님께서 방안에 들어서는 인기척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시였다.

≪김책동뭅니까? 거기 앉으시오.≫

쉬여버린것 같은 석쉼한 음성이였다. 불과 한나절사이에 모색도 한결 축간것 같은 모습이였다. 얼마나 심각한 사색을 계속하셨으면 음성이 석쉼해지기까지 했겠는가. 김책이 자리를 잡자 그에게 바람이 쏠리게 선풍기를 돌려놓으신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집무실안을 무거운 걸음으로 오가기 시작하시였다. 김책이 와있다는것을 잊은듯하셨다. 어찌나 근엄한 안색인지 김책은 식사를 드셔야 한다는 말을 입밖에 낼수가 없었다. 그렇게 좋이 30분은 지난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심스럽게 응접실문을 열고 들어오시였다.

≪밤도 깊어서 좀 서늘해졌습니다. 창문을 여는게 좋지 않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하시며 김책을 돌아보셨다. 김책은 녀사의 눈길을 감촉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 하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창가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활짝 여시였다. 이렇게 한것만으로도 한결 근심을 던듯한 기색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응접실을 나서며 뒤일을 부탁한다는 뜻이 담긴 눈길을 김책에게 보내시였다.

…

김책은 눈물이 번져가는 불그레한 눈으로 장군님을 마주보며 힘주어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김책동무의 말을 전우들의 부탁으로 알고, 아니 조선인민, 우리 민족의 념원으로 받아들이고 미제침략자들과 투쟁하겠습니다. 조선민족과 외세와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뭣입니까?≫

≪나는 성시백동무나 만나보고 곧 모스크바에 가서 쓰딸린을 만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갔다와서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합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책은 목메인 음성으로 진심에 넘친 뜨거운 말을 주고받았다. 방문밖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시던 **김정숙**녀사께서 눈물이 어린 눈굽을 저고리고름으로 찍으며 응접실에 들어오시였다. 아직도 어깨를 힘있게 그러안고있는 장군님과 김책을 미소를 지은 안색으로 잠시 지켜보던 녀사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부위원장동지댁에서 별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이 식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의 얼굴을 여겨보시였다. 그의 다심한 마음을 고맙게 여기시는 안색이였다. 잠시후 그이와 김책은 녀사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향하셨다.

…

장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남조선이란 온갖 사상이 별의별 형태로 둔갑을 해서 판을 치는 사상의 범람지대라고 할수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개량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봉건주의, 친미사대주의, 개인주의… 그것이 또 분파를 이루고 새끼를 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잡사상을 정견으로 내걸고 악마구리 끓듯하는 정계에서 남조선민중을 반미구국투쟁에 불러일으킬수 있는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진 사상이란 어떤것이겠는가? 성시백이 혼신의 힘을 다바쳐 조선민족이 진두에 세울 기발의 명구를 생각하고있는데 가벼운 손기

척소리가 들리는가싶더니 응접실문이 열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웃음지은 밝은 모습으로 방에 들어오셨다. 장군님께 가까이 다가가시여 나직한 음성으로 몇마디 말씀을 하시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리 식사를 한후에 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몇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수 있는 검소한 안방에 안내되였다. 두칸 남짓한 작은 방이였다.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음식그릇을 들고오군하시였다.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며 백두의 녀장군이신 녀사께서 접대원이 해야 할 일을 손수 맡아하시다니? 부엌을 향해 말씀을 할 때도 동무라는 친근한 호칭을 달아 상대를 불렀으며 음성은 무척 부드럽고 다정하시였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부엌에서 녀사를 특별히 존대하여부르는 말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지어 사모님이라는 존칭사마저 쓰는것같지 않았다. 직무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인간으로서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공산주의리념이 장군님댁에서는 벌써 구현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사상과 리념을 생활에 구현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성시백은 마음이 정화되는듯한 뜨거운 감회에 휩싸였다. 장군님댁에 이런 숭고한 가풍이 형성된것은 녀사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기때문일것이다.

깊은 상념에 빠져있는 성시백에게 기울여주는 녀사의 정성은 또 얼마나 각별하신가. 적구에서 사업하시자니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겠는가? 긴장한 생활을 계속하느라고 음식맛을 즐기며 때식을 들기도 어려울것이라고 하며 그의 식성에 맞는 낙지, 명태같은 마른 음식을 성시백앞에 놓아주시는것이였다. 항일대전시기 녀사께서 적구투쟁을 많이 하셨다는것을 알고있는 성시백은 그 경험을 듣고싶은것이 소원이였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닥지 않은 사업과 고충을 이렇듯 크게 사주시니 몸둘바를 알수 없었다.

≪성시백동무는 자기전에 밤참을 먹는 버릇이 있다는데 혹시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벌써 수면장애를 받고있는게 아닙니까?≫

녀사께서 마른 음식을 좋아하는 자기의 별스런 식성을 알고계시여 저으기 놀랐는데 장군님께서는 늦은 저녁을 먹군하는 습관까지 알고계신다. 혹시 호텔의 료리사들이며 의사들이 자기의 남다른 습관을 말씀드린것이 아닐가?

≪그런것이 아니라 광복전에 밤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밤참을 먹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것처럼 혁명투쟁에서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식탁을 차려놓고 방에서 나가시려는 **김정숙**동지를 불러세우시였다.

≪거 내게 말하던것이 준비됐으면 지금 들여오오. 정숙동무의 성의인데 식사를 하기전에 봅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별로 크지 않은 함통을 들고 들어오시였다. 정성을 들여서 짠 함인데 부드러운 인견으로 싼 그릇같은것이 들어있는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문을 몰라하는 성시백앞에 찬합을 놓으며 소박한 선물을 송구해하는듯한 빛으로 말씀하시였다.

≪민순임동무(성시백의 안해)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그릇을 고르롭게 갖추지 못했어요. 남쪽에서 사업하시니까 태여날 아이가 백날이 돼도 가보지 못할것 같구 돌잔치에는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는지…≫

아직 세상에 태여나지도 않은 아이의 백날이며 돌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시다니.… 내가 무엇을 했기에! 존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셨는가. 김책의 말이 아직도 머리속에서 어른거려 부끄러움을 금하기 어려운데 선물까지 준비하시다니.…

김정숙동지께서 그릇을 덮었던 부드러운 천을 들어 한옆으로 제쳐놓으시였다. 어린애의 밝은 웃음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는 은으로 만든 중발이며 종발, 애기은수저… 동그랗게 꽃모양을 세공한 그 가운데에 역시 섬세한 솜씨로 새겨놓은 글씨가 보였다.

≪자립≫

순간 성시백은 전기에 감전된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환한 웃음을 짓고계신 장군님을 마주보고 **김정숙**녀사를 마주보는 안경속의 두눈이 환희로 불탔다. 격정을 억제하는데 습관되고 세련된 동작이며 말투가 몸에 밴 성시백이 거치장스러운 이른바 례절이라는것을 순간에 날려버리고 흥분한 목소리로 웨쳤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어떤 사상을 단결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겠는지 알았습니다.≫

≪정숙동무가 생각해낸 이름인데 사내가 태여나면 별루 이상할것 같지 않은데 처녀애가 태여나면 좀 유별나게 들릴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의 장래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신문에서 보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듣기도 했는데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성시백동무가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쁩니다. 남조선인민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사상을 발견했으니 성공의 첫대문을 열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 성시백동무에게 한가지 의견을 말할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시백동무가 정치가로 활동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선전, 통일전선사업이 첫째이고 이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을 말씀해주셨다. 어느 한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해 투사들이 파견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했는가, **김정숙**녀사, 권영벽의 사업경험을 특히 자상하게 말씀하시였다.

성시백의 간곡한 소청을 받은 **김정숙**녀사께서도 식당에서 들어와 항일대전시기의 투쟁경험을 직접 말씀해주시였다.

녀사께서 경험담을 끝내시자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조국의 절반땅이니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신갈파나 연사, 장백이나 신흥지역을 혁명화한 경험은 오늘도 참고로 할수 있을겁니다.≫

장군님께서는 한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직을 꾸리고 지도핵심과 대중과의 련계는 어떤 방법으로 취했으며 선전은 어떻게 하고 자체보위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우리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면 성시백동무는 민족자체력량을 편성하기 위해 사상사업, 통일전선사업을 하는 정치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신문도 내고 조직도 더 잘 꾸리고 자체보위를 할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끝낸 장군님께서는 성시백의 사업을 위해 축배를 들자고 하시였다.

…


허헌

허헌은 불타는 선망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면서 소란스러운 강물소리를 짓누르며 울려퍼지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말씀을 넋을 잃고 들었다. 공산주의자라면 우선 쏘련과 만국의 로동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헤게모니쟁탈이니, 타도대상이니, 포섭대상이니, 동정자니 이런 말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던 허헌이였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애국과 단결, 사랑, 인간중심을 주장하신다. 허헌도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저서들을 주의깊이 읽어보았다. 그들의 저서들을 읽을수록 그가 만나본 남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리념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탐구와 열정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원한 철리에서 벗어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곧 목적으로 삼고 티각태각하는듯이 생각되였다. 그것은 종교가 창시될 당시의 리념에서 벗어나 시정배들이 국가관리와 계급적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속화시킨것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감을 주었다. 그런데 **김일성**동지의 말씀에서는 도무지 그런것을 느낄수 없었다. 그이한테서는 독자적인 사상을 창시한 창조자의 사색과 열정만이 느껴졌다. 공산주의자는 우선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만 해도 얼마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

만일 장군님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좌익운동을 전개했더라면 미제가 남조선에 발을 붙일 시간을 주지 않았을것이며 좌익분렬은 말할것 없고 중간파, 일부 량심적인 민족주의세력과도 손을 잡고 반미투쟁을 전개할수 있었을것이다.

≪류영준녀성에 대해서는 **김정숙**동무에게 이야기해서 고무하는 편지를 보내게 하겠습니다.≫

허헌은 그이께서 친근하게 부르신분이 백두산의 녀장군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것을 곧 알



농민들의 영농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수 있었다. 류영준이 **김정숙**녀사께서 보내신 고무의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힘을 얻을것인가!

≪북조선녀성동맹을 대표해서 남조선녀성동맹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는것이 더 좋을것입니다. 백남운선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우리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하긴 앞으로 선생님이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백남운선생이 겪고있는 그런 고통은 없어질것입니다.≫

허헌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해서 장군님의 정력에 넘친 얼굴을 마주봤다.

...

성시백은 전번 평양에 들어온 기회에 누이 성소조를 서울에 데리고 나가 안해와 함께 시내의 련락임무를 담당하게 하고있었으며 막내동생에게는 그가 이번에 리용한 련락통로를 개설하게 했다. 처컨의 친척들은 주로 적중에 들여보내 조직을 엄호할 과업을 맡겼다. 개중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중심가를 관활하는 경찰서장자리를 타고앉은 사람까지 있었다. 종로경찰서장 민병홍이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온 일가친척이 남조선혁명에 떨쳐나선셈이였다.

성시백은 그들모두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일신을 돌보지 않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지금쯤은 아주머니가 해산을 했을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성시백은 열적은 얼굴로 생남을 했다고 말씀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집안의 경사처럼 기뻐하며 **김정숙**녀사를 부르시였다.

녀사께서는 팔소매를 걷어붙인 그대로 손의 물기를 미처 씻지도 못하고 급히 응접실에 오시였다.

≪성시백동무가 옥동자를 보았다오. 종발에 조각한 그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됐소.≫

녀사께서도 못내 기뻐하며 민순임동무에게 생남을 축하하는 자신의 인사를 전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그이의 축하속에 얼마나 뜨거운 정성이 담겨 있었는가 하는것은 성시백이 서울에 나갈 때 들고 나갈수 있게 산후의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산삼을 비롯한 여러가지 보약을 준비하신것만 보아도 능히 알수 있는 일이다.

흥성거리던 응접실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장군님께서는 자세를 바꾸며 이날의 상봉을 마련한 본문제로 말씀을 돌리시였다.

≪성시백동무의 견해를 김책동무를 통해 들었습니다. 북조선민전의장단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그사이에 성시백동무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

귀빈실을 나선 장군님께서는 허정숙의 안내를 받으며 농민대표들이 들어있는 려관으로 향하시였다. 농번기에 들어선 때에 농민들이 이십여일이나 평양에 올라와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지 걱정되시였던것이다. 농민대표들이 들어있는 려관은 담장너머로 거무칙칙한 기와지붕이 보이는 조촐한 단층집이였다.

고려호텔, 해방호텔, 동양려관과 같이 설비가 비교적 좋은 려관들은 남조선대표들과 기자들에게 배정되여있어 북조선대표들은 학교기숙사가 아니면 그닥지 않은 려관들에 들어있었다.

한발 먼저 려관에 들어갔던 허정숙이 널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김정숙**녀사께서 나오셔서 농민대표들과 담화를 하고계십니다. 녀사께서도 농사가 걱정되여 나오신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활동에 장군님께서도 자못 감탄하실 때가 한두번이 아니시였다. 남북협상을 앞둔 요즘도 그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조선대표들이 들어있는 숙소를 찾아다니며 민주주의 새사회가 눈부신 속도로 건설되고있는 북조선의 현실이며 광복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북조선녀성들의 처지를 해설해주면서 대표들이 애로를 느끼고있는 미세한 점까지 찾아내여 해결해주군하시였다. 그의 한 실례가 38선을 넘느라고 옷주제가 말이 아닌 남조선대표들에게 20여벌이나 새옷을 지어주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대문안에 들어가서자 **김정숙**동지의 두리에 모여 이야기를 듣고있던 농민들이 희열에 넘쳐 만세를 웨치며 그이앞으로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잔잔한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토방밑에 서계시였다. 그이옆에 김성란이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어서 장군님 앞으로 나서라고 성란의 등을 떠밀고 계시였다. 그러나 성란은 **김정숙**동지와 함께 장군님을 뵙고싶은듯 그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다. 장군님께서는 만세를 웨치고 깊은 절을 드리는 농민대표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



몸소 새조국건설의 앞장에 서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2개의 총탄자욱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히시는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주체29(1940)년 3월 25일에 진행된 홍기하전투때였다.

이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어버이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홍기하기슭에서 매복전으로 뒤쫓아 오는 적들에게 섬멸전타격을 주었다. 그때 사령부는 전투지휘에 유리한 골짜기동쪽의 높은 고지에 자리를 잡았다. 전투는 저녁무렵에 시작되였다. 마에다부대놈들이 매복권안에 들어 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놈들에게 일제사격이 가해 졌다. 좁은 골짜기안에 든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하다가 앞뒤에서 날아 드는 총탄에 무리로 쓰러졌다. 한창 통쾌한 섬멸전이 벌어 지고 있을 때였다. 매복권안에서 간신히 벗어 난 한무리의 적들이 사령부가 자리 잡은 고지릉선에 나타났다. 적들을 족치시면서도 예리하게 사령부주변을 살피시던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놈들을 발견하시였다. 사령부에 닥쳐 온 뜻밖의 위험한 정황속에서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바위며 진대나무를 단숨에 뛰여 넘어 그쪽으로 달려 가시였다. 그리고 적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놈들을 쏴제끼면서 사령부와 반대방향으로 달리시였다. 총탄이 **김정숙**동지의 귀전을 스치며 무수히 날아 갔지만 존경하는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적들을 뒤에 달고 내달리시였다. 사령부와 멀리 떨어 진 지점에 이르시자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름드리나무에 의지하시여 달려 드는 놈들에게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퍼부으시였다. 적들은 마지막놈까지 소멸되였다.

사령부가 자리 잡은 릉선에서 울리는 뜻밖의 총소리를 듣고 경위중대원들이 손에 땀을 쥐고 달려 왔을 때는 이미 총소리가 멎은 뒤였다. 그들이 영문을 몰라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주 달려 오시며 기쁨에 넘치시여 안심들 하라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 동지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난 대원들은 존경하는 그이의 배낭우에 얹혀 진 양재기에서 2개의 탄알자욱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김정숙**동지께서 놈들을 유인하면서 달리실 때 적탄 두알이 그 양재기를 뚫고 지나갔던것이다. 그러니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셨겠는가.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줄곧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시다고 되뇌이시며 기쁨에 넘쳐 환히 웃고 계시였다. 자신께서 겪으시였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드렸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행복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는 대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 올랐다.

백발백중의 사격술의 비결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항일대전의 나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소유하신 명사격술은 참으로 신묘한것이였다. 임의의 순간에 아무리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방아쇠만 당기면 영낙없이 백발백중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는 또한 이름난 명사수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시던 총

주체24(1935)년 9월 안도현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쥐겠습니다. 이 총알 한알을 백알로 알고 원쑤를 쏘겠습니다.≫라고 하신 그날의 맹세를 실천으로 지켜 가시였다.

그 나날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의 명사격술을 익혀가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날이였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부대에서는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사격경기가 조직되였다.

이 경기는 한편 신입대원들의 사격술을 평가하는 계기로도 되였다.

신입대원들은 사격경기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조준련습도 하고 사격좌지에서 여러가지 사격동작도 훈련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그들과 꼭같이 훈련에 열중하시였다. 그러시면서도 동작이 서툴고 익숙되지 못한 대원들을 정력적으로 도와 주시였다. 드디여 실탄사격경기가 시작되였다.

먼저 구대원들이 사격좌지에 나섰다. 신입대원들에게 자기들의 사격술을 자랑하려는듯 모두가 능란하게 총을 쏘아 갔다. 그들 못지 않게 신입대원들의 기세 또한 높았다. 뒤이어 신입대원들의 사격이 있었다. 그들은 300m앞 전신용목표에 땀 흘려 익혀 온 사격동작으로 침착하게 한방한방 쏴나갔다. 처음 참가하는 사격경기여서인지 그들의 성적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이어 **김정숙**동지께서 사격좌지에 나서시였다.

침착하고도 능란하신 솜씨로 여유작작하게 장탄을 하신 그이께서는 목표판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땅, 땅…≫연방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마다 목표판에는 통구멍이 뚫리고 장내에서는 환성이 터져 올랐다. 참으로 놀라운 명사격술이였다. 신입대원들은 물론 구대원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김정숙**동지의 사격술을 따라 배워야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안기신 **김정숙**동지의 신묘한 사격술에 탄복하였다.

모든 대원들이 사격을 끝마치시고 좌지에서 나오신 **김정숙**동지를 둘러 싸고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백발백중의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였다.

그들을 정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비결이 따로 있겠는가고 가볍게 웃으시면서 참으로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쏜 탄알이 한알이라도 빗나가면 장군님을 보위할수 없고 조선혁명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드팀 없는 수령보위, 혁명수호의 정신을 지니시고 대원들의 가슴속에 백발백중의 비결을 심어 주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해 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 져 있다.

기발한 전술적묘안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우리의 승리로 빛나는 항일전쟁사에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기발하고 대담무쌍한 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던 수많은 전투이야기들도 들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동무였습니다.≫

주체26(1936)년 겨울 내도산방어전투때 있은 일이다.

전투당시 적아간의 력량대비는 800대 40이였다. 게다가 유격대는 대부분이 재봉대와 병기창, 병원 등 후방성원들이라면 적들은≪신선대≫라는 악질적인 부대였다. 참으로 어려운 전투였다. 첫날전투가 끝난 저녁무렵이였다. 대원들에게 나누어 줄 솜장갑이며 버선들을 가지고 고지에 오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쪽옆에 무드기 쌓여 있는 나무단들을 보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급히 지휘원을 찾아 가시였다.

그러시고는 내도산동쪽 후면고지와 7형제고지, 남쪽고지들에서 일시에 수많은 우등불을 지펴 올리자고 제기하시였다. 그러면 우등불이 목표로 되어 적들의 습격을 받지 않겠는가, 지휘원은 깜짝 놀랐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등불을 피워 적들을 유인한 다음 유리한 위치에 매복해 있다가 답새겨야 한다. 만약 적들이 습격해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손해 될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야간습격이 무서워 불도 못 피우고 있는 적들은 우리의 우등불을 보면 아마 저절로 사기가 뚝 떨어 질것이다.≫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발한 전술적묘안앞에서 지휘원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그날 밤 내도산에서는 통쾌한 싸움이 벌어 졌다. 우등불을 보고 달려 들던 적들은 매복전에 걸려 숱한 시체만 남기고 도망쳤다. 한편 숙영지를 습격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불을 피우고 쉬던 적들은 습격조원들의 된 벼락에 얻어 맞군 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령하 40℃의 강추위속에서 불도 못 피우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였다.

악에 받친 적들은 다음날 아침 또다시 공격해 왔다.

이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공격이 제일 심한 고지돌출부에 나가 싸우시였다. 전호가에서 기여 드는 적들을 노려 보던 유격대원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적들이 눈만 내놓은 백포를 뒤집어 쓴데다가 땅에 납작 엎드리여 한치한치 기여 드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때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펴 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돌격하려고 머리를 쳐들 때 쏩시다. 그러면 놈들을 온종일 눈속에 처박아 둘수 있습니다.≫

불리한 전투조건을 역전시키게 하는 기발한 명안앞에서 신심이 생긴 대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적들이 머리를 쳐드는족족 단방에 쏴제끼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종시 돌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온종일 눈속에서 떨다가 물러 갔다. 1주일간이나 계속된 이 전투에서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갑자기 조성된것은 한두번만 아니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림기응변의 뛰여 난 전술적방안들을 내놓으심으로써 적들을 제압하고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지 다섯달도 채 못되는 때였다.

오곡동지죽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성시백

주체36(1947)년 동지 전날에 서울의 어느 한 가정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

동지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것이 조상전래의 풍속으로 되여 왔다. 하지만 그때에 이 가정에서는 류별나게도 벼, 보리, 조,콩, 기장으로 오곡동지죽을 쑤었다. 이 집이 바로 통일혁명가 성시백동지의 가정이였다.

준엄한 지하혁명투쟁의 나날에 언제 한번 가정일에 대해서는 비치지 않던 성시백동지는 이해의 동지날에는 안해와 함께 오곡동지죽을 쑤었다. 어데서 생겼는지 탐스럽게 여문 오곡을 내놓은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새알심을 만드느라 홍에 겨워 망질까지 하니 안해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려운 적구투쟁으로 늘 바삐 지내다나니 가사에 관심을 돌릴 여념도 없는 남편이였다.

오곡죽이 다되여 안해가 죽을 푸려고 하자 성시백동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만은 내가 풀테니 당신은 받기나 하오. 그리고 옷을 갈아 입소.≫

안해는 동지날도 절반은 명절이라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러는줄로만 알고 새옷을 갈아 입은 다음 상으로 다가갔다. 성시백동지는 안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이 상은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요.≫

≪예?!≫

성시백동지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황송해 하는 안해에게 오곡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얼마전에 있은 일이였다.

성시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댁으로 가게 된 성시백동지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서 차리신 저녁식사를 들게 되였다. 존경하는 녀사의 지극한 정성과 적구전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안겨 오는 저녁상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몸둘바를 몰라 하는 그를 식탁에 앉혀 주시며 별로 차린것은 없어도 많이 들라고 자애깊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술병을 드시고 ≪성동무는 술을 좋아 한다는데 얼마나 합니까.≫라고 물으시며 알맞춤하게 마시면 몸에도 좋다고, 적구에서야 언제 술 한잔인들 마음 놓고 들었겠는가고, 오늘저녁은 제 집이나 같으니 마음껏 들라고 하시며 그의 잔에 먼저 술을 부으시였다.

성시백동지는 어느새 어려움도 잊고 고향집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한상에 마주 앉은 기분으로 식사를 하였다. 성시백동지가 고사리반찬을 달게 먹는것을 보신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그의 반찬그릇에 고사리반찬을 덧놓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백두산일대 수림속에는 실한 고사리들이 많다고 하시며 행군도중의 쉴참에 고사리를 뜯으시던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감회깊에 회상하시였다.

이때 성시백동지는 존경하는 녀사께 항일무장투쟁시기 지하사업경험을 들려 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러자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 다음과 같은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지하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혁명적신념이예요. 적들에게 추격을 받을수도 있고 련락이 끊어 진채 적들속에 혼자 남을수도 있고 또 굶주리고 병들수도 있어요. 이런 때 신념이 약하면 주저하거나 흔들릴수 있어요. 때문에 지하사업을 하는 동무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는것이 중요해요. 그 신념이란 뭐겠어요. 그것은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한마음이예요. 이 한마음을 굳게 가지면 적들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으며 난관에 부닥쳐도 자신만만해요. 저는 이것을 지하사업을 하는 과정에 가슴깊이 체험하였어요.≫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적구전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뜻 깊고 교훈적인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였다. 성시백동지는 그날 저녁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안타까왔다.

생각 같아서는 존경하는 녀사의 가르치심을 며칠을 두고 받고 싶었다.

그날 밤 위대한 수령님의 배웅을 받으며 성시백동지가 현관문을 나섰을 때였다.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성시백동지의 손에 하나의 들가방을 쥐여 주시며 ≪성동무, 38선을 넘어야 하겠길래 맛이나 보라고 조금씩 넣었어요, 오곡이예요. 자, 그러면 모쪼록 신변에 주의하세요.≫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적구로 들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하활동에 긴요한 물품만을 가지고 가는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혁명사에는 그런 상례를 벗어 난 경이적인 사실, 알알마다에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오곡을 가지고 적구로 들어 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수 놓아 졌다.

성시백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사랑이 깃든 오곡을 정히 간수하였다가 이해의 동지날에 안해앞에 풀어 놓게 되였던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한 ≪오곡동지죽≫이 생겨 났다. 그날 밤 오곡동지죽을 차려 놓은 상앞에 앉은 성시백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서 우리들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를 꼽자면 끝이 없소. 내 그 은혜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수 있겠는지 그게 걱정되오.≫

성시백동지와 안해가 그날 밤에 든 특이한 오곡동지죽은 송죽 같은 절개와 혁명적신념을 안겨 준 귀중한 사상적보약이였다.

다시 이어 주신 ≪구만리≫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것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천품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원래 **김정숙**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주체35(1946)년 봄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양덕군 대탕지마을에 있는≪동일려관≫에 숙소를 정하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있을 일이다.

어느 날 **김정숙**동지께서 양덕철도병원 원장을 만나 담화하신적이 있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담화중에 뜻밖에 한 젊은 철도로동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생명이 위급하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청년의 나이도 물으시고 병상태도 세세히 물으시였다. 그런데 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뼈가 몹시 부서졌기때문에 다리만은 잘라야 될것 같다고 말씀 드리는것이였다. 한참 말씀이 없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인데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다리를 자르지 않고 고칠 방도는 없는가고 걱정스럽게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약들은 어떤것이 필요한가고 거듭 물으시였다.

그처럼 다심하고 은정 깊으신 백두산녀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원장은 커다란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는 청년의 다리를 자르겠다는 마음을 고쳐먹고 병원에 항생제가 떨어 졌다고 **김정숙**동지께 말씀 드렸다.

항생제만 있으면 다리를 자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 고쳐 보겠다는 답변을 들으시고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소 마음을 놓으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항생제를 구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을 못 구하면 평양에 가서라도 필요한 약들을 구해다가 철도에서 일한다는 그 청년의 다리를 꼭 고쳐 줍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재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다리를 원상대로 고쳐 주자고 하시면서 의료일군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뜨거운 인간애와 환자에 대한 정성이 기본이라고 당부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의 은정어린 귀중한 말씀과 배려에 접한 환자와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보내주신 승용차를 타고 원장의 안해는 멀리 평양까지 가서 고급약들을 구해 왔으며 병원에서는 부스러진 환자의 다리를 잇기 위한 철야전투가 벌어 졌다. 드디여 기적이 일어 나게 되였다. 다 죽게 되고 다리를 잘라야만 하겠다던 그 청년이 6개월만에 완치되여 대지를 마음대로 활보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날 청년은 평양하늘을 우러러 보며 석쉼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백두산녀장군님의 대해 같은 사랑으로 죽었던 이 몸이 세상에 다시 태여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의 옆에 모여 섰던 의사들과 철도로동자들은≪백두산녀장군님이 다 끊어진줄만 알았던 구만리 같은 저 청년의 앞길을 다시 이어 주시였구나!≫라고 하면서 감사의 정에 넘쳐 있었다.

만경대에서의 뜻 깊은 하루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주체37(1948)년 8월의 어느 일요일 만경대에서였다.

그날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평양으로 들어 온 한 혁명가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숙소뜨락을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그가 바로 통일혁명가 성시백동지였다.

멀리서 승용차 한대가 달려 오더니 숙소앞에 와 멎었다. 차안에서는 한 일군이 20대의 젊은 청년과 함께 내렸다. 그 청년은 성시백동지를 보자≪아버지!≫하고 부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순간 성시백동지는≪아니?! 네가 세창이로구나.≫이렇게 웨치며 달려 와 안기는 아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아들을 그러안은 성시백동지도 눈물을 머금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도 두볼을 적시였다. 아들은 남조선에 있는 어머니생각이 북 받쳐 올라 ≪아버지, 어머니도 편안하신가요?≫라고 물었다.

≪응, 어머니도 잘 있다. 어머니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단다.…≫

성시백동지와 아들은 그동안 서로 가슴에 품고 있었고 또 하고 싶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참으로 너무도 뜻밖의 감격적인 혈육의 상봉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날의 이 상봉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그 깊은 사연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혁명가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이루어주시려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고마운 은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얼마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시백동지와 담화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관계부문 일군을 통하여 평산에 있던 그의 아들이 평양에 와서 중앙당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그 아들을 데려 오게 하시여 이날의 상봉을 마련해 주셨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전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후에는 남조선에서 통일혁명을 하느라고 성시백동지가 오래동안 아들과 헤여 졌으니 이날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지내라고 그들을 승용차에 태워 만경대에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뒤따라 **김정숙**동지께서도 몸소 만경대에 오시여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시백동지의 아들을 보시자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면서≪아버지와의 상봉을 축하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라고 말씀하신후 그가 지난 날 아버지와 헤여 져 산 경위에 대하여 들으시고는≪지난 날 많은 고생을 하였겠어요, 먹을것도 못 먹고 입을것도 못 입고… 살뜰한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 곧 장군님께서도 만경대로 나오신다는것을 알려 주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 부자간의 상봉을 매우 기뻐 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성시백동지와 그의 아들 성세창동무의 가슴은 **김정숙**동지에 대한 형언 못할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 번졌다. 그런데 때마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생가앞에 와서 멎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시였다.

≪아, 벌써 왔구만. 그동안 건강은 어떻소. 좀 쉬였소?≫

이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성시백동지의 맏아들을 소개해 드리시였다. 그리고 그의 생활경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올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성시백동지에게 큰 아들이 있다고 기뻐 하시며 성세창동무를 보시며≪해방전에 아버지가 없이 고생이 많았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도 어려워 하지 말고 당에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전망문제도 의논해 주신후 성시백동지에게 아들걱정은 말라고, 아들은 당에서 맡아 돌봐 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성시백동지와 그의 아들은 만경대에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내면서 **김정숙**동지의 자애깊은 사랑과 뜨거운 은정에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보통당원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녀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김정숙**동지

당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당원이 있을수 없다.
이것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조직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혁명가의 풍모를 훌륭히 갖춘 참다운 녀성공산주의자였습니다.≫

조국이 광복된 후 어느 날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속한 당조직의 세포위원장을 찾아 가시였다. 그이의 차림새는 류달리 단정한 조선옷차림이였다.

≪아니, 오늘은 어딜 가시렵니까?≫

평상시에는 늘 수수한 옷차림으로 로동자들과 한집안식구처럼 함께 지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명절옷차림으로 나서신것이 놀라와 세포위원장은 이렇게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세포위원장에게 당비를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선거된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세포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비를 받는 날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것이다.

≪그런거야 누구를 시켜 보내도 되겠는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 오셨습니까.≫

세포위원장은 서둘러 말씀 드렸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저도 이 세포에 소속되여 생활하는 당원인데 남에게 보내다니요. 어서 당비를 받으세요.≫

세포위원장은 의자를 내놓으며 그이께서 앉으실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였다. 세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당비수납부를 펼쳐 놓은 다음에야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송구스러워 어쩔줄 모르는 세포위원장앞에서 단정한 자세로 당비를 바치신 다음 전달 분공수행정형을 보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포위원장으로부터 새달 분공까지 받으신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도 전달과 꼭같은 차림새로 또다시 세포위원장을 찾아 오시였다. 사실 그때 세포위원장은 당비수납부를 들고 **김정숙**동지를 찾아 가려던 참이였다. 그러나 전달에 있은 일이 떠올라 문턱에 서서 전전긍긍해 있던 참이였다. 세포위원장은 또다시 어색한 자세로 당비수납부를 펼쳐 들었다.

그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원장동무에게 한가지 비판하겠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어지간히 긴장된 세포위원장을 따뜻이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온화하신 음성으로 위원장동무는 저에게 분공 주기를 몹시 어색해 하는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자주 당세포위원장을 찾아 가시여 분공도 받으시고 분공수행정형도 보고하십니다. 누구나 다 당세포위

원장에게 자기의 당생활정형을 보고하고 새 분공도 받는것은 우리 유격대안의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떼여 낼수 없는 하나의 기풍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 주신 당생활기풍대로 사는것이 당원들의 의무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원장동무도 저에게 분공도 주고 잘못한것은 비판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도 이 세포의 보통당원이예요.≫

참으로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는 가장 평범한 보통당원이시면서도 가장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어머니품

김정숙동지의 혁명일화 모음집에서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만경대혁명학원의 외진 병동에서 울려 나온 ≪어머니!≫하고 부르던 원아들의 세찬 흐느낌소리가 오늘도 들려 오는것만 같다.

와락 안기고 싶었지만 뒤걸음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열병이 든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주시던 혁명의 어머님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주체36(1947)년 11월 초의 어느 날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을 돌아 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음식그릇을 들고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유가족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시였다.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가고 하시면서 ≪그런데 식사는 어데로 가져 가는것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유가족아주머니는 ≪…앓는 아이들에게…≫하고는 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모든것을 알아 차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는가고 하시며 여간 나무람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어서 아이들이 앓고 있는 격리실로 가보자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과 유가족아주머니는 **김정숙**동지의 앞을 가로 막아 나섰다.

≪그곳으로는 절대로 가실수 없습니다. 열병이므로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 가지 못하게 되여 있습니다.≫

일군들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격리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격리실앞마당에 이르자 일군들은 또다시 **김정숙**동지앞을 막아 나서며 밖에서 돌아보고 제발 격리실안에만은 들어 가시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듯 말씀 드리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장군님께서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아이들이 앓고 있는데 가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친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이 열병을 앓는다고 그냥 돌아 서지 는 않을것이라고, 자신의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 가 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저없이 격리실안에 들어 서시였다. 격리실안에는 병기운이 꽉 차 있었다.

뜻밖에도 **김정숙**동지를 뵙게 된 아이들은 일시에 ≪어머니!≫하고 웨치며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하지만 열병을 앓는 몸으로 **김정숙**동지의 품에 안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은 굳어 진채 눈물만 훔치는것이였다.

아이들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격해 지는 마음을 금치 못해 하시며 ≪너희들이 그래도 어머니걱정을 다 하는구나. 나는 일없다.≫라고 하시면서 뒤걸음질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당겨 한품에 안아 주시였다.

이날 불덩이같이 달아 오른 그들의 머리도 짚어 주시고 지금 무엇을 먹는가, 먹고 싶은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의 병을 깨끗이 고치고 그들의 몸을 빨리 추켜 세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처음부터 **김정숙**동지의 친어머니사랑에 목이 메여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던 원아들이 격해 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세차게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에 안긴 원아들이 격정에 넘쳐 터친 이 목소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강산에 영원히 메아리쳐 갈것이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

존경하는 김정숙여사께서 이남혁명가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

인터넷구국전선 / 기성혁


새조국 건설시기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위인의 초상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색바래지 않고 영원히 빛난다.

그토록 남북 민중의 총애를 받으신 존경하는 **김정숙**여사의 탄생 80주년을 앞둔 이즈음 여사에 대한 각별한 그리움으로 가슴 태우고 있는 우리 이남 전위투사들의 마음속에 더욱 선명히 안겨지는 여사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숙**여사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이남의 딸들을 위대하신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견결한 혁명가로, 반미구국항전의 용맹한 투사, 애국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일찍이 이남의 빨치산 처녀들을 자애의 한 품에 안으시어 반미구국항쟁의 영웅으로, 훌륭한 애국자로 키워주신 존경하는 **김정숙**여사의 위인상, 사랑의 이야기를 아래에 전한다.

친어머니의 사랑으로 한 품에 안으시어

새 조국건설의 열망으로 남북이 세차게 들끓고 있던 1948년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남북총선거에 참가하기 위해 강릉지구 민중대표로 이북에 들어간 두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이정숙(당시 20세)과 김춘옥(23세)양이었다. 그녀들은 선거가 끝난 후 배우고 싶던 소원을 풀기 위해 이북의 모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그 해 9월24일 상오 9시,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녀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형제들의 소식은 아는가, 학원생활이 힘들지 않는가를 다정하게 물으시고 그녀들이 이남에서 벌인 투쟁이야기도 들어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요 ! 동무들은 지난날에도 잘 싸웠지만 앞으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오 라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면서 한국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국사로 1시간이 새로우신 장군님이시지만 그날 그분께서는 그녀들을 위해 3시간 이상을 바치시었다. 그러시고도 헤어지실 때에는 못내 서운해 하시며 오래도록 발길을 돌리시지 못하시었다.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한국혁명가들에 대한 사랑은 그토록 뜨거운 것이었다.

위대하신 장군님의 햇빛 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그날 하오 4시, 그녀들이 머물고 있

던 합숙으로 존경하는 **김정숙**여사께서 몸소 찾아오시었다.

흰광목겹저고리에 까만치마를 받쳐 입으신 첫눈에도 준수한 인품이 느껴지는 젊으신 분이 두 여성간부들과 함께 커다란 보꾸러미를 안고 그녀들의 방으로 들어오시었다.

그분께서는 어리둥절하여 한옆에 서있는 그녀들을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껴안아주시며 ≪장군님께서 말씀 다 들었어요. 산에서 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몹시 반가워 하시었다. 그러시고 밝은 미소를 함빡 피워올리시고 동행한 여성간부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건강하고 순박한 처녀들입니다. 이 동무들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순결한 동무들입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그윽하고 그러면서도 마디마디가 명쾌한 음성이시었다.

그분을 동행해 온 한 중년부인이 ≪장군님 사모님이십니다≫하고 귀띔해주어서야 그녀들은 깜짝 놀라며 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었다. 그리고는 그처럼 검박하시고 소탈하신 존경하는 **김정숙**여사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두 손을 모아쥔 김춘옥양의 손을 눈 여겨 보신 여사께서는 놀라신 어조로 ≪이런！… 손을 얼궜었군요！…≫하시며 그녀의 두 손 안팎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었다.

≪…심하게！… 아직도 이렇게 푸릇푸릇한걸 보니… 얼마나 저리고 쑤셨을까… 심하게도 얼궜었군요…≫ 거듭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었다.

여사께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신 채 ≪손이 이렇게 얼었으니 고생이 많았겠어요… 발도 얼었을 테지. 어디 발을 한번 봅시다.≫하시었다.

김양은 ≪…발은 일없습니다…≫하며 치마자락 속에 발을 감추었다.

그러자 여사께서는 ≪내 눈은 못 속여요. 자, 한쪽 발을 이리 줘요.≫하시며 그녀의 발을 끌어당겨 손수 양말을 벗기시었다. 그녀의 퉁퉁 부은 발잔등을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보시며 ≪발이 이 정도로 얼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도 밤에는 근질근질 쏘겠지. 우리도 산에서 싸울 때 손발을 얼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빨치산의 날개는 발인데 경험이 없다나니 이렇게 심한 동상을 입었군요. 손발을 얼궈보지 못한 사람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하시며 못내 가슴 아파하시었다.

그녀의 동상은 태백산에서 유격투쟁을 하면서 강릉 일대의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전투 때 입은 것이었다. 동상은 몹시 심했으나 언제 한번 그토록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한 그녀였다. 춘옥양은 뜨거운 눈물을 여사의 손등에 점점이 떨구었다. 그 눈물 자국을 얼른 닦아올리려고 급히 손을 내밀던 그녀는 잠시 주춤했다. 여사의 손에는 그녀가 입은 동상보다 더 험한 동상 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격정을 못참고 ≪사모님, 사모님의 손은 저보다 더 심한 동상을 입으시었습니다≫하며 여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여사께서는 자신께서도 몇번이나 동상 입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가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치시었다.

≪…언독은 잘 빼면 돼요. 자그마한 베자루 네개를 만들어서 콩을 담고 그 속에 손발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약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그 방법이 간단하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제일 좋아요. 그래도 언독이 잘 빠지지 않으면 얼음이 버적버적한 물에 손발을 담가야 해요. 물론 손발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저리고 아프지만 인내성 있게 참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쯤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콩자루와 얼음물에 번갈아 가면서 손발을 넣으면 아무리 심하게 배긴 언독도 깨끗이 뺄 수 있습니다.≫

진정이 넘치게 안겨오는 자상한 가르치심이었다.

참다운 인생관을 안겨주시어

존경하는 **김정숙**여사께서는 그녀들의 이름과 나이를 물으시었다.

이양의 이름과 나이를 들으신 여사께서는 몹시 기뻐하시었다.

≪내 이름과 똑 같구만. 정숙이가 또 한명 생겼어요. 조선에는 정숙이라는 이름이 많기도 하지… 우리도 산에서 싸울 때 감장정숙, 노란정숙, 파란정숙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격대에 입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향가를 들으시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한 **김정숙**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대할 때에 입고 온 의복 색깔에 따라 지은 거예요. 나는 감장정숙이였어요.≫

여사께서는 자신께서 걸어오신 보람찼던 항일투쟁의 나날을 추억하시듯 그윽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도 동무들만한 때에는 달리는 범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 못해낼 것이 없었어요.

이 시절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해요. 아까운 청춘시절을 헛되이 보내면 안돼요.

빨치산투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통일도 되고 조국도 빛나고 민족의 자랑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깊은 말씀이시였다.

알기 쉽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이 그대로 그녀들의 심장 속에 새겨졌다.

여사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도 산에서 싸울 때에는 온 몸이 얼어서 감각을 잃은 때도 있고 땀과 비로 군복이 마르는 날이 없었고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투쟁했습니다. 더구나 지하투쟁할 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많았지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으로서 사는 보람이 있고 영예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세상에 태어난 바에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한몫 기여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 혼자만 편안히 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날 그날 밥이나 먹고 흥타령이나 부르며 허송세월을 보내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장군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도 똑똑히 살아야 합니다.≫

참된 인생관의 심오한 진리가 어려있는 귀중한 말씀이시였다.

여사께서는 반미구국투쟁의 길에 나섰던 이정숙양의 부모가 적들에게 학살된 경위를 자세히 들으시고는 분노가 서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정숙이, 내 말을 명심하세요. 동무는 꼭 자기의 부모와 오빠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에도 원수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동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은 항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글이글 타번지었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전투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총창을 비껴들고 돌격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마지막까지 잘 싸웠습니다.

해방된 오늘에 와서 이들이 다 조국의 기둥이 되었어요. 정숙이도 조국이 통일되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해요.≫

존경하는 **김정숙**여사께서는 화제를 그녀들이 벌인 투쟁이야기로 이끌어가시였다.

여사께서는 그녀들이 몇시간 전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 올린 투쟁이야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였다. 그래도 다시 더 자세히 물으시면서 과분한 치하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들은 일일이 일깨워주기도 하시는 것이였다.

김춘옥양이 여사께 정숙양이 산에서 싸울 때 보초를 서는 ≪토벌대≫놈의 총을 뒤로 가서 날쌔게 빼앗아 온 사실을 말씀 올리자 매우 기뻐하시였다.

≪참 용감하고 대담했어요. 고추는 작아도 맵다고 하더니 정숙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혁명가는 용감하고 대담한 혁명적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이것저것 제기만 하면 결정적 순간을 다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혁명을 못합니다.

정숙동무의 그 대담한 기질이 내 마음에 꼭 들어요. 예로부터 조선여성은 남성들 못지않게 용감하고 슬기로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조선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부정의를 증오하는 데로부터 그런 용감성과 대담성이 나오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 무비의 희생정신, 이런 것이 그와 같은 대담성을 낳게 하지요.≫

방안에는 혁명에 대한 신념과 열정의 기운이 넘쳐났다.

귀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존경하는 **김정숙**여사께서는 가지고 오신 꾸러미를 푸시고 사과를 꺼내놓으시더니 손수 깎으시어 ≪자, 이거나 들면서 이야기하자구. 강원도빨치산 처녀동무, 강원도도 사과고장은 아니라던데 어서 들어요.≫하시며 정숙양에게 몸소 사과를 쥐어주시였다.

사과를 두손으로 받아드는 이양의 눈가엔 이슬이 가랑가랑 맺혔다.

여사께서는 사과를 또 깎으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은 사과를 왜 능금이라고 불렀는지 모를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임금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민들이 다 골고루 먹게 되었어요…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사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산에서 자랄 때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가고 물어보면 그저 이렇게 둥굴둥굴하게 생겼다고 손시늉으로 말하군 했어요…

나는 어려서 두만강을 건너 만주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과를 한 조각도 먹어보지 못했지요. 가겟방에서 가끔 빛을 보이는 사과를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다가 빨치산에 들어가서 일제놈들의 수송대를 치고 사과상자를 빼앗아 처음으로 먹어보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그런데 이런 것을 일본놈들이 다 빼앗아간다고 견딜 수 없었어요…≫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안으시고 몸부림치시던 수난의 그 세월을 생각하시는 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창문밖에 시선을 보내시던 여사께서는 그녀들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이 산에서 투쟁하자니 식량도 곤란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라고 외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시는 것이였다.

≪유격투쟁 할 때 제일 곤란한 것이 식량이지요. 굶는 것을 부자집 아이들 밥 먹듯 하니까요… 산에서 싸울 때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송기떡, 쑥떡은 제일 고급음식이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드문드문 해먹어보는데 그때처럼 맛이 없어요. 며칠씩 굶다가 그것을 한 개 먹으면 어찌나 맛이 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부자놈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다 해도 음식의 진맛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기 굶어본 것도 빨치산이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것도 빨치산인 것 같애요…≫

여사께서는 즐겁게 웃으시고 나시어 말씀을 계속 하시었다. 귀중한 체험을 하나라도 더 말씀하시어 이남혁명가들에게 양식으로 되게 하시려는 여사의 심정은 정녕 뜨거운 것이였다.

≪산에서는 산나물, 나무 열매, 풀 뿌리 이런 것이 아주 귀중한 식량입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단오 전에 가시 돋힌 풀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말리웠다가 겨울에 먹으

면 다 식량이 되어요. 산나물을 많이 먹으면 눈도 잘 보이고 병도 없어지고 기운도 납니다.≫

존경하는 **김정숙**여사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였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사께서 직접 체험하신 사실들이여서 더욱 귀중하게 들렸다.

여사께서는 말씀을 재미있게 엮어나가시였다.

≪산에서도 노력만 하면 별음식을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식사를 보장해드리면서 깡통에다 구멍을 내여 옥수수 국수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모래톱에다가 콩을 묻어서 콩나물도 길러서 장군님께 대접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조국의 광복과 겨레의 해방을 위하여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시던 장구한 나날 여사께서 몸소 쌓으신 귀중한 경험들은 그대로 그녀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다.

여사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총을 들고 싸우건, 지하투쟁을 하건, 여성은 여성다워야 해요. 모든 면에서 여성답고 아름답고 알뜰해야 됩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는 남자들 못지 않게 용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다운 풍모를 잃어버리면 안되지요. 외모도 단정히 하고 바느질, 뜨개질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 줄 알고 시부모, 시동생들도 잘 받들고 세간살이도 알뜰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맑은 아침의 나라인 조선의 딸인 것만큼 고유한 조선여성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다심한 친어머니의 가르치심이였다.

여사께서는 머리가 길면 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니 최근 유행되는 파마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여사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더욱 뜨거웁고 살뜰하였다.

혁명을 하자면 배워야 한다시며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여사께서는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이양이 ≪…공부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공부를 이제 배우자고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 올리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다짐을 두시듯 절절히 말씀하신 여사께서는 만년필과 수첩을 내놓으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써보라고 하시었다. 당시 이북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글공부를 시작한 이양은 서툴게 겨우 써놓고 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사께서는 다정하신 눈길로 그녀가 쓴 글을 보시며 ≪큼직큼직하게 잘 썼어요.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하고 치하해 주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산에서 싸울 때 우리 유격대원들은 나무꼬챙이로 땅에다 글쓰는 연습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싸우고 큰일을 하자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사께서는 이번에는 이양에게 신문을 주며 읽어보라고 하신 다음 그녀가 잘 읽지 못하자 매일 당보나 잡지 같은 것을 읽는 것을 습관하여 아무 글이나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여기서는 해방 후 문맹퇴치운동을 벌여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글을 배웠어요. 물론 처음 배우는 글이고 처음 해보는 공부니까 남들을 따라가기가 힘들겠지만 단단히 결심하고 학습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정숙양은 ≪꼭 명심하겠습니다≫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여사께서는 그녀가 대견하신 듯 미소를 담으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 정숙이가 총을 잘 쏘아요？≫하고 물으시였다.

그 말씀에 그녀는 활기를 띠며 여사께 응석을 부리듯 말씀 드렸다.

≪사모님께서 총을 잘 쏘신다는 소문을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총을 잘 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사실 그녀들은 이남에서부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부인께서 신기에 도달한 명사수라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었었다. 그녀들은 여사께서 적들의 전화선도 면발치

에서 영낙없이 쏴끊어버리시고 풀 속에서 기는 꿩과 날아가는 새도 단방에 명중시키시며 캄캄한 밤에 미친듯이 짖어대며 몇백발자국 뒤에서 좇아오는 일본놈 ≪토벌≫대의 군견도 소리나는 쪽에 대고 어림짐작으로 쏘셔도 틀림없이 맞히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얼마나 황홀해 했는지 모른다.

김양도 말씀올렸다.

≪축지법을 쓰시며 신출귀몰하시는 장군님의 전설과 함께 사모님의 신기한 사격술도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여사께서는 겸손의 미소를 지으시고 잠시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하고 제봉공은 바느질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빨치산은 총을 잘 쏘아야 합니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 우리 빨치산들은 누구나 다 총을 잘 쏘았습니다. 사격술도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노력을 거쳐야 됩니다.≫

여사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가 더욱 열정을 담으시어 말씀하시었다.

≪빨치산투쟁을 해본 사람만이 총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빨치산의 총알은 동지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로 얻어진 것만큼 절대로 빗나가는 총알이 없어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명사수로 되는 비결입니다.

조준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짬만 있으면 앉아서도 서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조준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총이 자기 몸의 한부분처럼 되어버려서 마치 그릇이나 옷가지를 쥘 때 손을 뻗치면 그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쏘려고 마음먹은 것은 틀림없이 맞히게 됩니다. 조준을 안해도 그쪽으로 총신을 돌려대고 당기면 맞아요.

이렇게 총이 제것으로 될 때까지 익히면 되는 거지요. 꼭 맞히겠다는 정신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솜씨가 몸에 푹 밸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솜씨가 서투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유격대원은 아무 총이나 다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권총으로부터 보총, 중기관총, 수류탄까지 다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나도 그것들을 다 보았는데 손에 익히기만 하면 틀림없이 들어가 맞아요…≫

여사께서는 옛날 한석봉이라는 글공부하는 아들과 떡장수하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 있게 해주시면서 불을 켜지 않고 떡장수어머니가 떡을 곱게 써는 것처럼 총을 쏘는 것도 그렇게 숙달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치시었다.

참으로 여사의 말씀은 명사수의 더없는 보감이었다.

그녀들은 여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심장 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이정숙양은 여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우러러 보다가 ≪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신다는데 사모님께서도 축지법을 쓰십니까?≫하고 물었다.

여사께서는 그녀의 물음에 소리 내어 웃으시다가 자세를 바로 하시고 ≪장군님의 전술이 하도 유명하여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 것이지요. 정말 장군님의 전술은 말 그대로 신출귀몰하였어요.

동무들도 장군님의 전술대로 싸우면 아무리 우세한 적도 타승할 수 있습니다.≫하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다심한 사랑은 끝이 어딘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었다.

여사께서는 큼직한 종이꾸러미 2개와 돈을 그녀들 앞에 내놓으시었다.

≪돌아가서 동무들과 나누어 써요. 바늘이랑, 실이랑 소용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파마도 하고 또 극장에도, 영화관에도 가봐요.…≫

여사께서는 이어 ≪동무들은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도 다녀와요. 아마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남반부에서 싸우다가 온 동무들을 만나면 매우 반가워 하실거예요. ≫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도 여사께서는 웃음을 띠시고 ≪국수를 좋아하는 정숙동무는 유명한 평양냉면도 사먹고…≫하시었다.

친어머니인들 이처럼 자심하실 수가 있을까. 격정은 그냥 솟구쳐 올랐다.



≪사모님!…≫하고 울먹이는 이정숙양의 등을 쓸어만지시는 여사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여사께서는 그것을 감추시듯 급히 밖으로 나가시였다.

여사께서 주시고 가신 꾸러미안에는 각각 10여미터의 흰 옥양목과 6타래를 하나로 묶은 흰 실과 검은 실, 크고 작은 각종 바늘쌈지, 12개씩 포장한 크림과 분등이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들은 여사께서 주신 돈으로 제일 잘한다는 국수집에 가서 쟁반국수도 사먹고 연극구경도 하였다.

빨치산의 여장군이신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것은 그녀들에게 있어 최상의 영광이었고 행운이었다.

그날 밤 그녀들은 넘치는 행복을 속삭이며 뜬눈으로 한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였다.

여사께서 운전사편에 그녀들에게 새 옷을 보내주시었다. 방안으로 달려들어와 보자기를 푼 그녀들은 아이들처럼 환성을 질렀다. 실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담청색 모직바탕에 줄무늬가 간 춘추양복 두벌에 그것을 받쳐입을 흰 블라우스와 속치마 그리고 살색이 도는 긴 명주양말이 각각 쌍을 지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들은 여사의 끝없는 사랑에 목메어 그저 울기만 하였다.

여사 자신께서는 그처럼 수수한 광목옷을 입으시고 군인용 면양말을 신고 지내시면서도 그녀들에게는 그토록 난생 처음보는 모직양복을 해주시는 여사의 고귀한 사랑에 그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참이나 그냥 서있었다.

김정숙여사께서 보내주신 모직양복을 입고 파마까지 하고 길거리에 나선 그녀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았다.

그녀들은 그길로 여사께서 전날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 겨레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찾아가 김보현할아버님과 이보익할머님께 큰 절을 올리고 살뜰한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

이정숙양은 여사의 말씀을 명심하고 글쓰기와 신문읽기를 꾸준히 하여 짧은 시일에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고 신문독보책임자로 되었으며 학습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였다.

위대한 사랑속에 이남변혁운동가들은 튼튼히 자라났다.

통일을 위해 함께 싸우자 하시며

행복의 요람 속에서 해가 바뀌어 주체38(1949)년 봄이 되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는 3월7일 국제부인의 날 39돌 기념행사에 참가하도록 이정숙, 김춘옥양과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지하투쟁을 하다가 이북으로 들어간 신삼칙씨를 불러주시었다.

이양과 김양은 여사께서 지어주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갔다.

그녀들이 평양에 있는 중앙여맹청사 2층으로 올라가 봄볕이 따사로이 비껴드는 밝은 방에 들어가니 뜻밖에도 그곳에 자나깨나 그리워마지않은 **김정숙**여사께서 여맹간부들과 함께 계시었다.

여사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활짝 피워올리시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리고 살뜰한 정이 넘쳐흐르는 음성으로 ≪내 동생들이 왔구만! …≫하시며 반달음으로 다가오시어 이양과 김양을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보고싶었어! 더 건강해졌군요!≫

여사께서는 친동생, 친딸을 애무하시듯 그녀들을 붙들고 놓지를 못하시였다.

잠시 후 곁에 있던 신삼칙씨가 여사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여사께서는 겸손하신 몸가짐으로 인사를 받으시고 그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초면입니다. 건강합니까?… 이렇게 남조선에서 싸우다가 온 동무들을 만나는 게 제일 반갑습니다.≫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녀들을 이끄시어 자리에 앉히신 여사께서는 김춘옥양의 두손을 다시 잡으시고 자세히 들여다 보시였다.

≪언독을 뺐구만!…≫기쁨어린 말씀이시였다. 그녀는 지난 겨울에 여사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서 동상을 치료했던 것이다.

여사께서는 그녀의 손등과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고 꾹꾹 눌러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깨끗이 쏙 다 빠졌어! 이렇게 빼느라고 고생했겠는데 그래도 됐어!…이젠 주의해서 다신 얼구지 말고…다시 얼구면 큰일이야!…≫

자애로움이 마디마디에 진하게 스며있는 말씀이시였다.

여사께서는 김양의 손을 놓으시고 이양쪽으로 돌아앉으시며 눈가엔 여전히 웃음을 띠시었으나 짐짓 엄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공부를 못하겠다더니 이젠 좀 어때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양이 대답 대신 수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양이 대신 말씀올렸다.

≪이젠 공부를 잘 합니다. 학습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 용쿠만!≫이렇게 기뻐하시던 여사의 안색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바뀌였다.

≪가만, 앞니가 왜 그렇게 됐어요?≫

여사께서 한쪽끝이 입쌀알만큼 떨어져 나간 이양의 앞니를 보신 것이다. 자세히 눈 여겨 보지 않으면 잘 알리지 않아 늘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자그마한 것을 여사께서는 첫눈에 알아보셨던 것이다.

≪…넘어지면서 돌에 닿아 그렇게 됐습니다.≫이양이 앞니를 손으로 가리우며 부끄러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여사께서는 그녀의 손을 꼭 쥐시며 ≪그만하길 다행이구만. 벌레가 먹기 전에 인차 때야겠어.≫하시었다.

그때 충청남도 서산군에서 유격투쟁을 하다가 48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때 이남에서 한 선거날인을 가지고 이북으로 간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귀에 입은 동상을 치료하느라고 볼에까지 가제를 대고 있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그녀를 따뜻이 맞으시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위로해 주시면서 가슴이 아프신 듯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경험들이 없으니 손발도 얼구고 귀도 얼구고… 미제원수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아니라면 왜 이런 고생들을 하겠어요.…≫

이어 여사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도 그런 고생, 그런 투쟁을 거쳐서 나라를 찾았어요. 고생끝에 낙이 있다고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웁시다.

갈라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우리 힘으로 통일하고 한나라 한강토에서 3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다 자유와 행복을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사께서 하시는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불꽃으로 깊이깊이 새겨졌다.

그날 보고대회는 저녁 6시경부터 **김정숙**여사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녀들은 다시 휴게실로 갔다.

잠시 후 그곳으로 나오신 여사께서는 정겨운 눈길로 그녀들을 마주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그냥 보내기가 서운해서…기념으로 받으세요. 마음뿐인데 하나씩 차고다녀요.…≫

여사께서는 그녀들에게 여성용 팔뚝시계를 선물로 주시었다. 거기에는 진정 이남변혁운동가들에 대한 여사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여사께서는 그녀들과 헤어지시면서 내일 오후에 차를 보낼테니 어디 가지들 말고 있으라고 이르시었다. 그녀들이 의아해 하자 여사께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며 ≪미리 알면 재미없어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납시다.≫하시고 떠나시었다.

그날 밤 그녀들은 난생 처음 차보는 팔뚝시계, **김정숙**여사의 그처럼 따뜻하고 살뜰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깃든 그 귀중한 시계를 꼭 그러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힘있게 울리며 심장에 챙챙 맞혀오는 초침소리를 들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의 사랑과 높으신 뜻을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깡그리 바치리라 굳게 굳게 마음다졌다.

명사격으로 과녁에 새겨주신 ≪정숙≫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위대한 사랑은 사격장에서도 이어졌다.

다음날 하오 3시, 여사께서 보내주신 승용차를 타고 이양과 김양을 비롯한 그녀들이 간 곳은 모란봉 사격장이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항일유격대의 군복차림을 하시고 허리에 권총과 함께 대여섯개의 탄창을 차고계셨다.

군복을 입으신 여사의 모습에는 백만대군을 전율케 하시던 백두산 여장군의 기상이 그대로 넘쳐나고 있었다.

≪자 이제는 알만해요? 왜 오라고 했는지…남조선의 빨치산 처녀들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봅시다.≫

여사께서는 사격장 지휘관에게 총들을 가져오라고 이르시고는 ≪빨치산은 무슨 총이나 다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적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는 무엇이나 척척 다룰 수 있어야 해요.≫하시었다.

여사의 말씀에 따라 실탄사격준비가 갖추어졌다. 소총의 사격거리는 2백미터, 권총의 사격거리는 30미터였다.

소총은 일본제인 ≪38식≫, ≪99식≫, 미국제인 ≪카빈≫, ≪엠-1≫이었고 권총은 독일제인 ≪모제르≫와 미국제인 ≪콜트≫등이 준비되였고 과녁도 여러 개가 있었다.

먼저 소총사격부터 했는데 이정숙, 김춘옥, 신삼칙의 순서로 쐈다.

여사께서는 그녀들의 사격 자세와 조준방법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소총사격에서는 세 명이 다 ≪우≫의 좋은 성적을 맞았다. 명중신호가 오를 때마다 여사께서는 ≪훌륭해요! 아주 잘 쐈요! 이만하면 미국놈을 까부수겠어요.≫라고 하시며 몹시 기뻐하시었다.

이어 권총사격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권총사격은 잘 되지 않았다.

≪권총을 처음 잡아보니까 안맞는 게 당연하지요. 무슨 총이나 손에 익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심을 가지고 정확히 조준하면 틀림없이 들어가 맞아요.≫



항일대전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시던 싸창과 권총

여사의 가르치심은 뜨거웠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그럼 우리 정숙에게 선물을 하나 만들어 줄까.…≫하시었다. 모두는 호기심이 동했다.

여사께서는 침착하시면서도 익숙하고 날랜 솜씨로 소형≪모제르≫권총을 꺼내드시고 거기에 탄창을 끼우시었다.

그녀들은 숨을 죽이고 여사를 우러렀다.

여사께서는 언제나 짓고 계시던 자애

롭고 부드러우신 안색은 씻은듯이 거두시고 영채도시는 눈을 조금 쪼푸리시듯 하시면서 왼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권총을 쥐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리시었다.

여사께서는 언제 팔을 멈추셨는지 벌써 ≪땅!≫하는 첫 총성이 울리고 연이어 ≪땅땅땅…≫하는 연발사격소리가 뒤따랐다. 첫 탄창의 탄환이 다 나가자 재빨리 두번째 탄창을 갈아끼우시고 이번에는 오른팔을 머리 높이로 들어올리셨다가 총구를 내리시면서 역시 연발로 사격하시었다. 세번째 탄창부터는 과녁쪽으로 총구를 바로 내디시며 조준도 하시는 것 같지 않게 쏘시었다. 이렇게 여사께서는 총신을 식혀가시면서 대여섯 탄창을 쏘시었다.

총성이 멎고 사위에 정적이 깃들자 여사께서는 그녀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밝게 웃으시며 ≪제대로 되었겠는지 모르겠는데 맞은 자리에 나무못을 끼워서 가져와 봐요.≫하시었다.

이양이 과녁으로 달려나가 한참 총탄자리에 나무못을 꽂아나가다가 ≪어마나!≫하고 탄성을 질렀다. 이윽고 ≪세상에-! 어쩌면!…≫하고 연속 감탄을 터뜨리며 이양이 과녁을 안고 달려왔다. 과녁을 본 모두의 경탄과 기쁨은 절정에 달했다. 과녁 한가운데에 ≪정숙≫이라는 두 글자가 탄흔으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가로 세로 빗겨간 획은 더 말할 것 없고 ≪정≫자의 ≪ㅇ≫받침까지 조금도 이지러진데가 없이 동그랬다.

≪제대로 됐어요?≫

여사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을 때에야 그녀들은 과녁을 그분께 보이며 한마디씩 했다.

≪제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전해 듣는 사람은 정말 곧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신도 울고 가겠습니다. 정말…≫

김정숙여사께서는 그녀들의 찬사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잘하고 사격도 잘 해서 조국통일을 하는 싸움에 한몸 바치자요.≫

김정숙여사께서 명사격으로 과녁에 새겨주신 두글자 ≪정숙≫, 그 두 글자에 얼마나 깊은 뜻이 어려있는 것인가.

이남변혁운동가들에 대한 여사의 영원한 사랑과 크나큰 기대와 뜨거운 믿음이 탄흔으로 인각된 것이다.

장군님의 심려를 그대로 안으시고

사격이 끝난 다음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께서는 그녀들을 봄향기 짙은 산기슭 잔디밭에 둘러앉히시었다. 여사께서 손수 만드신 음식이 차려졌다. 그날 제일 인상깊은 것은 팥밥이었다. 구운 고기와 물고기에 철이른 오이김치며 풋고추까지 곁들어 있어 음식은 간소했으나 별미였다.

여사께서는 그녀들 앞으로 음식 그릇들을 밀어놓으시며 많이 들라고 몇번이고 권하시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하시며 그녀들을 다정하게 둘러보시던 여사께서는 정색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해서 잠도, 휴식도 미루고 계시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여성의 몸으로 총을 잡고 나선 동무들은 참으로 귀중한 동무들입니다.

동무들은 아마 장군님께서 조국통일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려하시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지는 장백의 밀림 속에서 휴식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15성상 싸워오신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오늘엔 조국통일문제 때문에 깊이 심려하시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며 매일밤 밝히고 계십니다.

마음같아서는 나도 동무들과 같이 총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서 장군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 동무들이 내 마음도 합쳐서 조국통일을 위한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앞장서 싸워주세요.≫

여사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믿음에 찬 눈길로 그녀들을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은 산에서 총을 잡고 싸우다가도 필요할 때에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지하공작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작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자신께서 직접 체험하신 귀중한 경험들을 들려주시는 여사의 말씀은 진정 백과전서적이였다.

여사의 말씀은 계속 되였다.

≪…그리고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밀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놈들은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경각성을 높이고 여성군중 속에 푹 파묻혀 색깔을 내지 말고 앞뒤가 딱딱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이 끈을 잡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어 피치못할 정황에 부닥쳤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며 제정신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선수를 써야 합니다.≫

여사께서는 눈빛을 빛내이시며 말씀을 계속 하시였다.

≪혁명은 간고하고 장기적입니다. 그 과정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말고 핏값을 하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여대원이 적들에게 체포되였는데 일제 원수놈들이 그의 두눈을 빼내고 젖가슴을 도려냈어도 그는 한마디도 불지 않고 혁명조직을 지키였으며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여대원은 우리 빨치산의 모범이였으며 자랑이였습니다.

동무들도 장군님의 전사답게 그렇게 싸워야 해요.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 죽겠어요? 혁명가는 하루를 살고 한 순간을 숨쉬어도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잘 싸우리라고 믿어요. 그래야 앞으로 다시 만나도 면목이 서고 기쁨이 있지요.≫

그녀들은 여사를 우러러 무한히 격동된 마음을 진정 못하고 있었다. 이정숙양이 상기된 얼굴로 벌떡 일어서서 바른 자세를 하고 여사 앞에 굳게 결의다지였다.

≪사모님 말씀 명심하고 잘 싸우겠습니다.≫

여사께서는 ≪그래, 우리 정숙이가 그렇게 하겠단 말이지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약속한다.?…≫하시며 그녀를 대견스레 바라보시였다.

이양이 잠시 생각하다가 씩씩하게 말하였다.

≪적 장교놈의 권총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사모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사께서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시며 기뻐하시였다.

≪그럼 꼭 그렇게 약속해요. 정숙이의 선물을 기다리겠어요.≫

김정숙여사를 모시고 사격장에서 보낸 반나절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였으나 이남의 빨치산 여대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한때였다.

영원한 충성의 한길을 가자시며

원래 강원도 강릉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모진 가난 속에서 고생스럽게 자란 이정숙양은 반미구국항전에서 부모와 오빠를 잃고 자신이 탈취한 무기를 들고 어린 나이에 유격투쟁에 참가한 후 그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으며 살뜰한 정도 모르고 지내왔다. 그 어려운 싸움의 길에서 열병에 걸려 무척 고생도 했다.

그런만큼 **김정숙**여사께서는 그에게로 쏠리는 정이 더 하시였다. 여사께서는 그녀를 댁으로 데리고 가시어 ≪내동생≫, ≪우리 정숙이≫하고 다정히 부르시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비다듬어 주시였다.

여사께서는 다음날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시어 상한 치아를 든든하게 때고 백금으로 곱게 해넣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치마저고리가 입고 싶겠느냐고 하시면서 자주색 끝동을 드린 파란색 비단저고리에 남색뉴똥치마며 내의와 속치마를 다 새로 해입히셨다.

삼베치마 하나 변변히 입어보지 못한 이양은 그 때 새 옷을 꼭 그러안고 여사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울고 또 울었다.

어느날 그녀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신 여사께서는 무엇이 먹고 싶은가고 하시면서 군고구마를 한보자기 사시어 ≪동생, 어서 실컷 먹으라구≫하시였다. 여사께서는 찰떡도 쳐주시고 빈대떡도 부쳐주시였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음식들은 무엇이나 맛이 별스레 좋았다.

그녀는 여사의 이런 살뜰한 보살피심속에 날이 다르게 얼굴이 피여났다. 얼굴에 다문다문 박혔던 주근깨는 씻은듯 말끔히 없어지고 거밋거밋하던 얼굴은 우유빛으로 새뽀얗게 피였는데 발그레 홍조가 어려 청춘과 건강이 넘쳐흘렀다.

김정숙여사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양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친히 지도해주시였다. 여사께서는 매일 아침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보신 신문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당보는 당의 목소리예요. 매일 세끼 식사하는 것처럼 당보를 보는데 습관이 되어야 해요.≫라고 하시며 그날 신문은 그날로 꼭꼭 보도록 하시였고 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해설해 주기도 하시였다.

여사께서 하시는 일을 좀 거들어드리려고 하면 어느새 일감을 빼앗으며 말씀하시곤 하시였다.

≪그건 내가 할테니 정숙이는 공부해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장군님께서는 늘 가르치셨어요. 꼭 명심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그러시고는 등을 밀어 공부를 하라고 방으로 들여보내곤 하시였다.

여사께서는 조용한 저녁시간이면 ≪자유가≫며 ≪여성해방가≫,≪사향가≫등 혁명가요들을 조용조용히 부르시며 배워주시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시였다.

여사께서는 노래를 많이도 알고 계셨고 또 잘 부르시였다.

여사께서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시는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장군님을 모시는 여사의 정성에는 늦은 밤, 이른 새벽이 따로 없었고 또 눈에 뜨이지도 않았다. 장군님께 언제나 더운 진지를 올리시기에 온갖 지성을 다하셨고 댁의 안팎은 항상 정갈하였다.

그녀가 오늘은 내가 마당을 꼭 쓸리라 결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면 벌써 여사께서 언제 쓰셨는지 마당은 깨끗했고 물까지 뿌려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모시는 여사의 정성과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불씨를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이남땅의 한 이름없는 딸에게는 그토록 아끼는 것이 없이 비단옷을 해입히시고 색다른 음식을 차려먹이시면서도 여사 자신의 생활은 너무도 검박하시였다. 그분께서는 댁에서 지내실 때에는 기운 양말을 신으시었고 귀중하신 자제분께도 기운 양말을 신기시고 기운 바지를 입히시였다. 진지도 찬밥을 드시는 때가 많으셨다.

이양이나 댁을 찾는 손님들이 그에 대해 섭섭하게 말씀올리면 ≪일없어요. 나나 아이들이야 기운 양말을 신으면 뭐래요.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인민들이 아직 다 잘 살지 못하는데…≫하곤 하시였다.

어느덧 위대한 사랑의 보름이 지났다. 이양은 여사와 헤어져야 하였다.

떠나는 날 아침, 여사께서는 이양의 숱많은 머리에 기름칠을 해서 손수 빗겨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머리가 참 소담해요. … 이렇게 차리니 얼마나 고와요. 세상 꽃들이 다 아름다운 정숙이가 부러워 눈물을 흘릴거야.…앞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시집갈 때에는 내가 정숙이의 잔치를 차려주겠어요. 그런데 결혼은 꼭 혁명하는 사람끼리 동지결혼을 해야 돼요. 정숙이에게는 그게 좋아요.

정숙이는 부모와 오빠까지 다 피살되였으니 누가 잔칫상을 차려주겠어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장군님이 계시고 내가 있지 않아요. 섭섭지 않게 잘 해줄테니.…≫

그러시고는 그녀를 꼭 그러안아 주셨다.

여사께서는 떨어지기 서운해서 울먹해 있는 이양의 손을 꼭 쥐시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요. 혁명하자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또 만나곤 하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나나 정숙이나 우리는 다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정숙이는 변함없는 영원한 충성의 한길을 걸어가자요.≫라고 하시였다. 여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배여 있었다.

이정숙양은 눈물속에 여사를 하직하였다.

위대한 사랑은 충성의 꽃으로 (그 뒤의 이야기)

위대한 사랑은 무한한 충성을 낳는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은정깊은 사랑을 받은 그녀들은 반미구국성전에서 용맹하였고 그 길에서 충성의 꽃으로 피어났다.

1949년 봄 신삼칙씨는 서울로 나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다.

적들의 고문은 혹독하였다. 그러나 신씨는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죽음의 고문 앞에서도 조직을 지켜 견결하였다.

적들은 그녀를 발가벗기고 쇠줄로 결박한 다음 서울거리를 끌고 다니며 ≪빨갱이년≫을 구경하라고 했다.

어느날에는 그녀를 트럭에 싣고 서울공설운동장에 가서 강제로 끌려나온 사람들 앞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연설을 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했다.

그러나 적들은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는 그녀의 깨끗한 마음과 견결한 구국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강의한 신념과 혁명절개 앞에 전율하였다.

신삼칙씨는 교형리들이 트럭에 밧줄을 매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김일성**장군님 만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높이 외쳐 29살의 길지 않은 생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정숙, 김춘옥양은 위대하신 장군님과 **김정숙**여사의 믿음과 사랑을 안고 1949년 4월 이북을 떠나 태백산 준령을 타고 이남으로 나왔다.

당시 이남땅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배들을 반대하는 전민중적 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었다. 도처에서 무장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 당황한 원수들은 악명높은 국군≪백골부대≫를 선두로 군경을 총동원하여 ≪대토벌≫전을 악착같이 벌이고 있었다.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강원도 삼척군 청옥산 유격근거지에 도착한 그녀들은 가열한 전투의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녀들은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싸웠다.

이정숙양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를 깨끗이 하고 복장을 정돈하고는 북녘하늘을 향해 ≪장군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사모님 옥체건강하십니까?≫하고 아침인사를 드렸으며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군님, 사모님 편히 주무십시오≫하고 밤인사를 드리는 것을 매일 같이 어느 하루 빠짐이 없는 일과로 집행하였다.

그녀는 학습장소나 전투장이나 가림이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의 전투경험담과 **김정숙**여사께서 해주신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혁명가요들을 배워주었다. 그리고 어버이 수령님과 여사의 고매한 덕망에 대해 눈물겹게 이야기하면서 여사의 숭고한 모범을 따르도록 대원들을 고무하였다.

산으로 기어오르는 ≪백골부대≫놈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어느날, 이정숙양은 연대장놈의 면상에 명중탄을 안기고 놈의 권총을 노획하였다. 그녀는 그 권총을 **김정숙**여사께 올리겠다고 정히 간수하고 틈만 있으면 닦고 또 닦으며 여사를 몹시도 그리워했다.

그해 가을 오십천 건너마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백골부대≫에 대한 야간습격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온 날에도 이정숙양은 나직한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다.

≪…뵙고 싶어요! 사모님께서 그 때 들려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여 못견디게 뵙고 싶어요!…≫

≪그래!…≫

김양도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눈물이 그렁하여 속삭이듯 말하였다.

≪사모님께서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해주실 거야. … 정숙이가 장군님과 사모님의 말씀 받들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소식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움 속에 가을도 다 가고 그해 겨울도 무사히 넘겼다.

유격대는 많은 전투들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여사께서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대로 손발을

잘 간수하여 한사람의 동상자도 내지 않았다.

1950년 3월8일 그녀들은 여사를 한자리에 모셨던 그날을 뜨겁게 생각하며 국제부인의 날 40주년 기념모임을 싸우는 태백산 중턱에서 보초를 세워놓고 가졌다.

그날은 온종일 전투가 치열하였다.

다음날인 3월9일, 날이 밝으면서부터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졌다. 온종일 굶으며 싸웠다. 식량도 떨어지고 탄환도 떨어졌다. 형세는 매우 급박했다.

하오 늦어서부터 부대는 유리한 지점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져가던 그 때 부대가 퇴각하는 쪽과는 반대방향에서 갑자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들려왔다. 이정숙양의 노래소리였다.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든 김양은 급히 그쪽으로 건너갔다.

아니나 다를까.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은 이정숙양은 몸을 일으키고 노래를 부르며 적들을 자기쪽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적들은 그녀에게로 점점 조여들고 있었다. 거리는 30미터나 될까 말까 했다.

김양을 발견한 이양은 ≪언니, 이 권총을 사모님께 꼭 전해줘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인사도…≫하며 품속에 간수했던 권총을 꺼내 볼에 꼭 대었다가 김양의 품에 안겨주는 것이었다. 적들을 쏘아보던 이양은 자신의 소총을 김양에게 주며 ≪통일되는 날 이 정숙이의 총을 꼭 메고 열병식에 나가줘요.…≫하고는 말릴새도 없이 수류탄 두개만을 억세게 틀어쥐고 저쪽 반대편 능선으로 갔다. 그녀가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산너머에서 여전히 힘차게 들려왔다. 그녀가 간 쪽으로 적들이 우르르 모여 갔는데 잠시후 ≪**김일성**장군님 만세!≫소리와 함께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그 때 이정숙양의 나이는 22살이었다.

50년 6월25일 전쟁이 터진 뒤, 서울이 해방된 다음에야 이정숙양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김정숙**여사, 온 남녘민중이 그처럼 경모해마지 않던 여사께서 서거하신 것을 알고 김양은 목놓아 울었다. 인민군대의 전략적 후퇴 때 다시 북으로 들어간 김춘옥양은 평양을 통과하는 기회에 여사께서 누워계시는 모란봉으로 뛰어올라 갔다.

여사의 영전에 그대로 쓰러진 그녀는 잔디를 쥐어뜯으며 울었다.

≪사모님! 춘옥입니다. … 춘옥이가 왔습니다! … 사모님!…≫

한참 뒤 멀기쳐오는 오열을 가까스로 참고 품속에 고이 간수했던 이정숙양의 선물권총을 꺼내놓았다.

≪사모님, 정숙이가 올려달라던 권총입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도 가시고 정숙이도 못오고 이 권총만 왔습니다.…≫

그대로 오열을 터치며 태를 쳤다.

김춘옥양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여사의 영전에 맹세했다.

≪사모님!

사모님의 생전의 뜻대로 어버이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영원히 충성 다하겠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겠습니다! …≫

그녀의 그날의 맹세는 이남변혁운동가들 모두의 서약 그대로였다.

그후 주체55(1966)년 3월초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김춘옥씨를 만나주시었다. 그분께서는 김춘옥씨 등이 이남에서 총을 들고 싸운 이야기, 이정숙양의 장렬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진짜배기≫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태백산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전사하였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거기에 그들의 비석을 크게 세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하신 **김정일**영수께서는 그녀들의 충성심과 애국적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어 김춘옥씨에게 공화국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그리고 이정숙씨에게는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는 진정 우리 이남변혁운동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머님이시다.

오늘도 **김정숙**여사께서 이남의 변혁운동가들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뜻과 크나큰 사랑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영수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반미구국항전, 조국통일투쟁의 일념 속에 영원히 살아빛나고 있다.

김정숙여사 서거 50돌

인터넷 구국전선

≪좌 담≫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

참석자: 정복희 (한민전 성원)
유성철 (대구 교수)
김용진 (본사기자)
시일: 주체88(1999)년 9월13일

[김] 9월 22일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여사께서 서거하신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민중의 마음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시고 혁명동지이신 **김정숙**여사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숙**여사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유] 감사합니다. 저는 해방직후부터 **김정숙**여사는 어떤 분이실까 많이 생각해 왔고 그동안 제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연구하고 여사에 대한 도서도 많이 탐독했습니다.

그 과정에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정숙**여사의 위인상을 잘 알게 됐는데요. 여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될수록 정말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여장군이시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어요.

여사께서는 주체6(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면 오산동(오늘의 회령시 동명동)의 극빈한 가정에서 김춘산선생과 오씨의 따님으로 탄생하셨어요.

여사의 일가분들은 회령에서 소작살이를 하며 어렵게 사셨고 더욱이 가장인 아버지가 독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는 **김정숙**동지



삼도만유격구에서 **김정숙**동지를 만나시는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

립운동에 나서시었기 때문에 살림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빚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땅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도 어머님일가는 지주의 땅을 얻어부치며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탓에 이국땅에 가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게 된 여사의 일가분들은 모두 높은 애국심을 지니시고 혁명조직에 참가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정] 네 여사께서는 31년 9월, 그러니까 열네살 되시던 해에 벌써 **김일성**장군님께서 결성하신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셨죠. 그리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영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손에 총을 들고 10여성상 백두밀림에서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어 빨치산의 여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셨는데요. 여사께서는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셨고 슬기와 용맹이 출중하고 동지애와 인품이 뛰어나셨어요.

위대한 **김정숙**여사께서는 주체24(1935)년 9월 18일 만주의 처창즈유격구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셨는데요.

이날 여사께서는 수여받으신 총을 굳게 잡으시고 혁명선열들의 피가 스며있고 겨레의 조국광복염원이 어려있는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며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이 총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것,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이 총을 메고 조국으로 개선하겠다고 굳게 맹세를 다지셨다고 해요. 그후 여사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설한풍 휘몰아치는 만주광야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이겨내며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처럼 위대한 분이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아픔을 금할 수 없어요.

[김] 동감입니다. 저도 직업상 이북 원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김정숙**여사의 업적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아야 할 공적은 민족의 운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철저히 보위하셨을 뿐 아니라 정력적으로 보좌해 드리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정] 그렇습니다. 저 역시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말그대로 방패가 되시어 한몸으로 장군님을 보위하신 것은 민족운명의 보위차원에서 볼 때 위대한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간고했던 항일대전시기 언제나 자신의 신변을 돌보지 않으시고 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의 신변에 늘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여사께서는 한몸으로 장군님을 보위해 나서시었죠. 어디 그 뿐이예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 불조차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장군님의 식사만은 어김없이 보장해 드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진 항일대전의 나날 여사께서 엄동설한에 **김일성**장군님의 옷을 빨아 몸에 품고 행군하면서 말리신 사실

은 보통여성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외에도 자신의 머리채를 잘라 장군님의 신발깔개를 마련하신 얘기는 **김정숙**여사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사에게 있어서 **김일성**장군님은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민족의 태양이셨고 친근한 스승이셨으며 생의 전부이셨습니다.

[유]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정숙**여사께서는 백두산시절 뿐 아니라 해방후에도 **김일성**장군님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여사께서 직접 경위대원이 되시어 정원을 돌아보시고 입초도 서곤 하셨다고 하니 여사의 그 숭고한 충정을 어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영수께서 오늘 충효의 화신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것도 어머님의 그 충정을 가슴에 새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김정숙**여사의 한평생은 민족의 영수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준 위대한 귀감입니다.

[김] **김정숙**여사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공적 등 하많은 업적들을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대한 업적은 민족의 태양을 안아 키우시어 휘황찬란한 민족의 앞길을 마련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 그렇습니다. 위인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자녀들을 훌륭히 키운 여걸들, 위인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김정숙**여사께서 아드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키우시기 위해 기울이신 숭고한 뜻과 노고를 생각할 때 그것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여사에 대해 회고하시면서 사람들은 자신께서 **김정일**장군님을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여사께서 쌓아 놓은 것이라고, 여사의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민족의 태양으로, 주체위업의 승계자로 키우신 **김정숙**여사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김]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지개혁의 기쁨을 농민들과 함께 나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중에서

인터넷 구국전선



≪도탄 속에 빠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하자면 2천만 겨레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뭉치면 일제침략자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능히 타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행운이예요.≫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호위할 영예로운 임무가 우리 소부대에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숙영한다고 휴식할 수 없으며 눈을 감고 누워있다 해도 잠들어서는 안됩니다. 온몸이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성벽이 되어 조선혁명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2천만 우리 동포들을 능히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나둘 묶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놈들도 쪽을 못쓰고 맙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 혼자만 편안히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날그날 밥이나 먹고 흥타령을 부르며 허송세월을 하여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장군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도 값높게 살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피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장군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잘 돌봐드려야 하겠습니다.≫

≪미제는 절대로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쑤입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태양을 안아올리신 그 위업

인터넷구국전선 / 김용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억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강의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동생을 다 잃고 친척들과도 생리별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였고 동지들을 사랑하였으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동지를 위한 것이었지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이 우리한테 온후 무송현성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여투사로서의 담력과 지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무송현성전투에서 살아난 것도 **김정숙**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일대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만만치 않은 수완과 능력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에게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 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몸을 내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뱃심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까 위험한 고비에 부닥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그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나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세가 복잡하니 어찌 한시인들 제자리를 떠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일가친척을 찾는 것도 미루어온 혁명동지입니다.≫

김정숙여사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3천만 인민을 다 해방하자고 그리도 많은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나라의 절반땅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군요.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동무들은 아마 장군님께서 조국통일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려하시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지는 장백의 밀림 속에서 휴식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15성상 싸워오신 장군님은 해방된 오늘도 조국통일문제 때문에 깊이 심려하시면서 식사도 제시간에 하지 못하시며 매일밤 밝히고 계십니다.≫

≪미국놈들은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놈들이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분열시켜 놓고 남조선인민들을 또다시 식



민지노예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대체 미국놈들이 무엇 때문에 바다 건너 먼 우리 나라에까지 기어들어와 이런 악독한 짓을 하겠어요. 우리 조선사람은 자기 민족문제를 얼마든지 제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조선의 통일은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해요.≫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면 혁명하는 사람이 자기의 초보적인 임무를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예요. 극악한 원수와 맞선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 더 간고하고 복잡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놈을 내쫓고 꼭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 것입니다.≫

불멸의 업적 만대에 빛나리

　12월 24일은 조국과 민족,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숭고한 인간애와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정숙**여사의 탄생 82돌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김정숙**여사의 거룩한 생애와 빛나는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게 된다.
　나라 잃은 민족의 비운이 반도 삼천리에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수난기인 주체6(1917)년 12월 24일 회령의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여사께서는 짓밟힌 조국땅과 바람세찬 이국땅에서 망국노의 설움을 골수에 사무치게 체험하셨다. 여사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조국광복노선을 받들고 용약 민족해방성전의 길에 나서시였다.
　지하투쟁과 유격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견결한 혁명투사로 성장하신 **김정숙**여사께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조국광복대업을 무장으로 받들어 한몸바쳐 끝까지 싸울 철석의 신념을 안으시고 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어 항일의 혈전장에서 걸출한

정치군사활동을 벌이셨다.

피어린 항일무장투쟁과 건국위업으로 이어진 여사의 일생은 인류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장 헌신적인 충신, 가장 위대한 어머니, 가장 열렬한 애국자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한평생이었다.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시고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높이 치켜드시어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충신의 빛나는 귀감이시었다. 여사께서는 주석님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전 생애에 걸쳐 수령결사옹위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었다.

무송현성전투와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와 황구령전투를 비롯하여 적탄이 빗발치는 수많은 격전장에서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주석님을 보위하셨고 백발백중의 신기한 사격술로 주석님을 믿음직하게 호위하셨다. 민족의 운명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위해 총탄도 뚫지 못한다는 명주솜외투를 지어드리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솎아서 신발깔개를 만들어 드리시었으며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주석님의 옷을 빨아 몸의 온기로 말려 드리신 이야기, 자신은 여러날 끼니를 번지면서도 비상미만은 정히 간수하셨다가 주석님께 매끼 더운 식사를 해드리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정숙**여사께서 항일의 그 간고한 나날에 아로새기신 충신의 일화들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김정숙여사께서는 광복후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백두산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교대없는 호위대원이 되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보위하셨다.

5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결사옹위하시어 민족의 운명과 행운을 굳건히 지켜주신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고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빛날 것이며 우리 겨레의 가슴 속에 자자손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위대한 **김정숙**여사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노선의 절대적인 신봉자, 가장 견결한 관철자이시었으며 걸출한 조직적 수완과 노숙한 영도예술을 지니신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셨다.

여사께서는 1939년 4월 배신자를 심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여사께서는 바로 그러한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배신자와 정면대결하던 청봉밀영에서의 나날과 대오안에 일시 패배적인 ≪41년의 바람≫이 불던 시기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노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해 견결히 싸우셨으며 조국광복후에도 주석님의 민주건국노선을 헐뜯는 종파사대주의자의 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셨다.

여사께서는 1937년 여름과 그 다음해 5월과 9월 그리고 1940년대 전반기 여러 회에 걸쳐 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하시어 조국광복의 결정적 승리를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출데 관한 주석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셨다. 광복후에도 여사께서는 광범위한 민중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셨고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할 때에도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다.

정녕 **김정숙**여사는 탁월한 정치활동가의 자질과 품격을 겸비하신 혁명투사이시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여장군, 전설적인 여성영웅이셨다.

위대한 **김정숙**여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향도성으로 안아 키우시어 주체혁명위업의 대, 인류자주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거룩한 어머니이시다.

여사께서는 **김정일**장군님께 어리실 때부터 혁명의 난국을 이겨나가시는 강인한 의지와 투지, 한번 넘어지면 백번천번 다시 일어나는 위인의 웅지를 심어주셨다. 일본의 백만 관동군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처럼 준엄했던 대격전장에서 대를 이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후계자를 키워 내세운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는 고금동서에 없는 줄 안다.

오늘 우리 겨레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만난을 이겨내며 자신만만하게 강성대국에로 비약하는 이북의 경이적인 모습을 보면서 민족이 낳은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여사의 크나큰 민족사적 공적 앞에 경건히 머리를 숙인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또 한분의 영수,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 올림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대대로 영수복, 장군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김정숙**여사의 영세불후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이남의 인사들

인터넷구국전선 / 진용찬

이남사람들중에는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를 만나뵈온 사람들이 많다.

몽양의 탄복


여운형

몽양 여운형선생은 8.15광복직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저 이북에 갔다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영웅 **김정숙**여사 그리고 어리신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웠다.

몽양 여운형선생은 자기 호의 의미와도 같이 꿈속에서도 햇빛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었다. 나라 찾을 청운의 뜻을 품고 독립운동에 나서 3.1만세도 불렀고 동방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국제회의장 연단에서 약소민족의 설움도 토로했다. 상해, 인도, 필리핀, 모스크바로 동분서주하며 간디와 네루, 손문 그리고 레닌도 만나보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햇빛은 볼 수 없었다.

이 과정에 그는 이 세상의 이름있다는 정치인들, 영웅호걸들을 속눈썹 아래로 굽어보는 도고한 마음이 생겼다.

햇빛을 찾아 헤매이던 그에게 마침내 광명의 햇빛이 비쳐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만주광야에서 일본백만대군과 맞서 항일대전을 벌이신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김일성**장군님께서 국내의 보천보를 치신 소식은 그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이 광복되자 주체35(1946)년 초에 지체없이 북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받은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컸고 더욱이 항일의 여장군으로 명성이 높으신 **김정숙**여사의 극진한 환대까지 받았으니 참으로 여운형선생의 감격은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여사께서는 몽양을 따뜻이 맞이하여 주시고 불편이 있을세라 보살펴 주셨다. 인자함과 소박함이 그대로 안겨드는 여사의 고결한 성품,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자애에 넘치신 밝은 웃음, 친혈육을 맞아주시는 것 같으신 한없이 친근하고 부드러우신 음성, 몽양 여운형선생은 **김정숙**여사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여운형선생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늘 ≪… 나는 내평생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여걸들과 여성명사들을 많이 보아왔소. 그러나 **김정숙**여사 같으신 분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소. 유명한 사격수로 이름떨친 여장군이신데다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뛰어난 정치활동가이시오. 그처럼 현숙하고 상냥하며 소박하고 소탈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소. **김정숙**여사 같으신 분은 동서고금에 두분도 없을게요…≫라고 탄복했다 한다.

벽초의 환갑상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숭고한 인정미는 벽초 홍명희선생에게도 뜨겁게 미쳤다.

선생이 환갑상을 받던 일도 그 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주체37(1948)년 7월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승용차를 보내시어 평양의 ≪고려호텔≫에 들어있던 홍명희선생을 댁으로 오게 하셨다.

그가 장군님과 **김정숙**여사를 따라 방안에 이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푸짐히 차려진 환갑상이 놓여 있었고 여러 명의 항일투사들과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명희선생은


홍명희

환갑상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신통히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였다.

(…누가 이 환갑상을 차렸을가. 어떻게 내 식성까지 이처럼 세심히 알고 있을가.…)

환갑연이 한창 진행될 때 비로소 환갑상에 깃든 사연을 안 선생은 **김정숙**여사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여사께서는 어느날 장군님께서 홍명희선생의 환갑상을 차려주어야 하겠는데 서울음식법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걱정하시는 것을 보시고 서울음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물어가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날부터 여사께서는 서울음식법과 예법을 배우셨고 몸소 그것을 하나하나 익히시면서 벽초의 환갑상을 준비하셨다. 한편 홍명희선생의 식성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다.

그래서 당시 국가적인 연회도 그 준비에 하루이상 품을 들이신 일이 없으신 여사이셨지만 벽초의 환갑상준비에는 무려 3~4일이 잘 걸렸다 한다.

홍명희선생은 무척 감개무량하여 ≪나는 서울에서 소문난 음식점들을 다 가보았지만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차려주신 음식들은 서울장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참말로 작식솜씨가 대단하십니다≫라며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한다.

소낙비 내리던 5.1절


김구

백두산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의 위인상에 탄복한 이남의 정객 가운데는 백범 김구선생도 있다.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1일 유서깊은 성도 평양에서는 메이데이를 경축하는 근로자들의 군중대회가 있었다.

이날 백범은 주석단 한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그 명성이 높으신 **김정숙**여사와 백두의 초연 속에서 탄생하시어 준엄한 폭풍우 속을 헤치시며 애국의 뜻을 키워오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와 계셨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한창 군중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다. 군중들은 소낙비를 함뿍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도 그대로 비를 맞고 계셨다. 한 수원이 장군님께 우산을 받쳐드리자 장군님께서는 군중들이 다 비를 맞고 있는데 내라고 우산을 받겠는가고 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셨다. 이것을 본 백범은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남의 정객들이 다 그대로 우산을 받고 있는데 자기만 유독 물리칠 수 없어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김정숙**여사와 어리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사와 자제분께서 그냥 비를 맞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군중대회장의 민중들과 똑같이 비를 맞고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여사 그리고 **김정일**장군님, 세분을 번갈아 바라보는 김구선생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군중대회가 끝난 다음 숙소에 돌아온 김구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런 말을 했다 한다.

≪만민을 위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철석같은 이념은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광장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실례의 하나로서 민중과 더불어 내내 억수의 비를 맞으며 서 계시는 장군님의 기상이 그러하며 그리고 장군님의 부인과 지어는 예닐곱살에 불과한 자제까지도 민중과 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기특하기 이를데 없는 심정으로 스산한 그 소낙비를 줄곧 맞으며 서있는 광경이야말로 그러했다. 요컨대 어지럽고 부끄러운 나의 한생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광경이였다.≫

정녕 **김정숙**여사는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가문

구국의 소리(주체90 2월 16일 ~ 주체90 2월 17일)



백두3대장군

사회자 : 이 세상에는 이름있는 가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문에서 세분의 위대한 장군을 낳은 가문, 온 인류가 애국가문으로 칭송하는 가문은 오직 **김정일**장군님의 가문 뿐이라 할겁니다.

≪위대한 가문≫ 신수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현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우리 7천만 겨레는 물론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은요, 이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가문처럼 위대한 가문은 없었다면서 장군님의 가문을 세인 모두가 천하제일 애국가문으로 우러르며 높이 칭송하고 있잖아요.

신수현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고금엔 뭇사람들로부터 찬양 받은 그런 가문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엔 이름난 과학자들을 배출한 가문도 있구요, 역사에 이름 떨친 사상가 예술가들을 배출한 가문도 있고 나라와 민중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애국자를 배출한 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문들은 만민의 아낌없는 경탄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만민을 경탄시키고 매혹시키는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가문이 천하제일 애국적 가문인 **김정일**장군님의 가문입니다.

사회자 : 네, **김정일**장군님의 일가분들은요 모두가 재산이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 민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신 참다운 열렬한 애국자, 투사 가문이라고 할수 있죠?

신수현 : 그렇죠. 고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1862년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하는 투쟁을 진두에 서시어 해적선을 불태워 수장해 버리신 애국투사셨어요. 그런가 하면 증조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증조할머님이신 이보익여사께서도 자손들을 모두 항일전에 내보내시고 일제의 압력과 지주놈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해 강인하게 싸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일가

신 애국자들이셨습니다.

사회자 : 네, **김정일**장군님의 할아버님께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셨구요, 할머님께선 조선여성운동에 탁월한 지도자셨죠?

신수현 : 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숭실중학교 출신의 직업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항일운동의 전환시기 세상에 널리 알려진 105인회 사건을 조직해 온 조선국민회의 조직자이셨습니다. 그런가하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할머님이신 강반석여사께서는 남편인 김형직선생님과 아드님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을 백방으로 도와주신 애국자이셨구요, 중국 무송에서 1926년 12월 26일에 우리 나라 최초의 혁명적 여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셨고 그 조직의 첫 회장직을 역임하셨던 조선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 뿐이 아니예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작은 할아버님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 역시 광복성전에 고귀한 청춘을 바친 열혈 애국투사들이셨습니다.

사회자 : 네, 작은 할아버님께서는 1936년 2월에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하셨구요,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은 1935년 6월에 장렬하게 전사하셨죠?

신수현 : 네, 작은 할아버님이신 김형권선생님은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항일노선을 받들고 국내에서 무장소조투쟁을 하시던 중 1930년 9월에 일제에게 체포되시어 옥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시다가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 역시 1926년에 우리 나라 첫공산주의적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에 가입하셨구요, 그후 조국광복성전에 참여하시어 헌신하시다가 1935년 6월에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던 중 장렬하게 전사하셨어요.

사회자 : 네, 그리고 외삼촌이신 강진석, 강용석선생님들도 항일민족성전에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열혈 애국투사들이셨잖아요?

정말 **김정일**장군님의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작은 할아버님과 삼촌, 외삼촌 되시는 분들 모두가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떠나온 고향집 사립문을 다시는 열어 보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이처럼 온 일가분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가문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가문은 특히 세분의 위대한 장군을 배출한 가문으로, 동서고금 가장 훌륭한 가문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현 : 그렇죠. 우리 7천만 겨레 뿐 아니라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

는 문제입니다만 **김정일**장군님의 아버님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14살 되시던 해에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남기시고 압록강을 건너신 후 손에 무장을 잡으시고 항일전을 조직전개하시어 일제침략자를 짓부수고 마침내 조국을 광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조국을 찾아 주신 조국광복의 은인이시며,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 조국의 시조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세계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이셨구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이론의 영제, 걸출한 영도자, 만민의 친근한 어버이시고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신 절세의 위인, 희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사회자 : 네, 한마디로 말해서 10대에 항일대전에 나서시어 30대에 일제 백만대군을 타승하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고, 40대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15개 연합군 무력을 굴복시키신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아버님이시죠.

신수현 : 그렇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요 80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민중 속에 들어가셔서 민중과 동고동락하셨구요, 민중행 열차에 오르시어 전 생애를 현지지도로 이어가시다가 주체 83 (1994)년 7월 8일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셨습니다.

사회자 :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역사에 다시없을 절세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님 또한 훌륭하신 분이시죠.

신수현 : **김정일**장군님의 어머니이신 **김정숙**여사께서는 주체 6 (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읍 오산*의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셨는데요, 피눈물 나는 식민지 망국노의 생활체험과 부모님의 애국적 교양은 여사께서는 어린시절에 벌써 반일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여사께서는 1931년 10월 청소년들의 혁명적인 반군사조직인 소년선봉대에 입대하셨구요, 1932년 7월에는 공청에 가입하셨고 1935년 9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참가하셨던겁니다. 여사께서는 수많은 대소전투들과 군중공작, 지하투쟁에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항일의 여성영웅, 항일의 여장군이십니다.

사회자 : 네, 여사께선 유명한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지니셨다죠.

신수현 : 네, 그뿐이 아니죠. 여사께서는 광복 후 새 사회건설과 여성해방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걸출한 여성운동지도자셨구요, 일편단심 오직 **김일성**주석님을 위해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혁명가의 귀감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김정숙**여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성다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공산주의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십니다.

사회자 : 네, 참으로 여사께서는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봉사정신, 그리고 숭고한 의리와 한없이 고결한 성품을 지니신 까닭에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일신에 모으신 민족의 슬기로운 딸이셨고, 겨레의 자애로운 어머니셨죠?

이처럼 훌륭하고 위대하신 두 장군의 슬하에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 또한 절세의 위인이시고 천출명장이시잖아요.

신수현 : 그렇죠. 현 시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지독한 경제봉쇄와 압력, 위협과 회유기만, 그리고 몇해째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주저도 없이 자주권을 철통같이 수호하시며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가신 분이 다름 아닌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사회자 : 네, 역사에 애국명장을 낳은 가문은 있었습니다만은요 이처럼 온 겨레와 인류가 숭앙해 마지 않는 세분의 위대한 장군, 백두산 3대 장군을 낳은 가문은 없는 거예요.

신수현 : 그렇죠. 대대로 온 일가분들이 애국애족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깡그리 바친 가문은, 더욱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세분의 장군, 백두산 3대 장군을 배출한 가문은 동서고금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일**장군님의 가문을 전인류가 천하제일 위대한 가문으로 우러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이런 위대한 가문이 있어 우리 민족의 내일은 밝고 창창한 것이고요, 민족의 자긍심 또한 큰 겁니다. 우리 각계애국민중은요 이러한 훌륭한 가문에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분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살 그날을 위해 6.15공동선언 실현에 모든 걸 다바쳐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수현 : 감사합니다.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시고

구국의 소리 (주체 90, 4월 29일 ~ 주체 90, 5월 5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여류명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동서고금 역사에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처럼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 그처럼 높고 빛나는 업적을 쌓은 만고의 여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겨레가 오늘도 **김정숙**어머님을 가슴 뜨겁게 추억하고 있는 건 조국과 민족 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함께 그분께서 지니신 무한한 인정세계에 대한 매혹 때문인데요. 그럼 이번엔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닌 숭고한 사랑에 대한 얘기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죠.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해온 항일혁명투쟁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들이 많은데요. 특히 백두의 여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지적 사랑에 관한 전설 같은 얘기들이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많고 많은 사연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도산 방어전투가 시작되어서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물통에 끓는 물을 담아들고 한 대원과 함께 싸우는 고지로 오르셨어요. 날씨는 흐렸고 눈보라도 휘몰아쳐 한치 앞도 가려볼 수 없었던 건데요. 캄캄한 밤에 산길을 헤치면서 급한 경사들을 톺아 오셨던 그 길은 결코 헐한 길이 아니었죠.

얼마 후 앞장서 길을 개척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만 미끄러지시어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같이 가던 대원이 한참만에야 눈속에 파묻힌 **김정숙**어머님을 찾았는데 그때 그 대원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말았어요.

글쎄 그때까지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옷섶에 물통을 꼭 그러안고 계셨던 거예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벼랑에서 떨어지시면서도 고지에서 싸우는 대원들에게 가져다 줄 뜨거운 물이 담긴 물통만은 그대로 꼭 그러안고 떨어지셨던 거예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고지로 오르자고 하시면서 또다시 앞장서 산행길을 헤쳐 가셨습니다.

그날밤 고지의 전호에서 불도 피우지 못하고 적들을 감시하고 있던 대원들은 **김정숙**어머님의 동지적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는 뜨거운 물을 받아들고 감격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김정숙어머님의 이처럼 뜨거운 동지적 사랑은 파탕지를 떠나 내도산에로의 행군노정에도 어려있는데요. 어느날 부대와 함께 행군하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불의에 달려든 적들과 격전을 벌이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한 대원이 ***** 그런데 그만 그 신입대원이 **안으로 뛰어넘다가 나뭇가지에 총끈이 걸려 총이 벗겨 진줄도 모르고 그냥 달렸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대원에게 총이 벗겨졌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원은 되돌아가서 총을 벗겨 가지고 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총탄이 빗발치고 꼬리에는 적들이 바짝 달려들기 때문이었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 않으시고 그 사지판으로 내 달려가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신입대원의 총을 벗겨들고 왔습니다. 접전이 끝난 후에야 신입대원은 자기의 총을 받으려고 **김정숙**어머님에게 달려와 자기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군의 총은 동지들의 피와 목숨으로 가진 것이라고 유격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총을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타이르셨다는 겁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 혁명가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놓고 겁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동지들의 비판을 받으며 그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해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참으로 뜨거운 동지적 사랑을 안겨 주셨다고 해요.

항일의 나날 백두의 여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접전장들 마다에 뜨거운 동지애의 화폭을 찬란히 수놓으셨습니다. 정녕 **김정숙**어머님은 동지애의 최고 화신이셨습니다.

아동단원들의 친근한 지도자

구국의 소리 (주체 90, 9월 16일~22일)



아동단원들과 함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신 **김정숙**동지

김정일장군님의 어머님이신 빨치산여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 아동단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성으로 그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을 위해 베푸신 그 정성은 그들의 운명과 조국의 앞날을 연결시킨 혁명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아동단원들의 친근한 보호자이셨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소개드립니다. 임현아씨.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 20(1931)년 봄, 두만강연안일대에서 아동단원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근위대, 혁명의 믿음직한 후대로 키우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단원들을 **김일성**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주체 22(1933)년 봄,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기상나팔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을 뛰쳐나와 조기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동단원들을 돌아보시며 오늘아침은 뒷산에 올라가 해돋이를 구경하자고 하셨어요. 아동단원들은 환성을 울리며 뒷산으로 치달아 올라 해돋이를 구경했습니다. 늘 봐오던 해돋이였지만 높은 산정에서 보

는 일출은 너무도 장쾌해서 아동단원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답니다. 그러는 아동단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모두 태양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한 아동단원은 태양은 밝고 따뜻한 빛을 준다고 했고 다른 아동단원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동단원은 비가 온뒤 고운 무지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동단원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말 태양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태양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알아야하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만물이 태양이 없이는 못사는 것처럼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찬란히 태양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태양과 같은 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우리들에게 나라찾는 투쟁의 길을 밝혀 주시고 우리들을 반갑게 품에 안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태양이시다, 아동단원동지들을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을 따르는 참된 전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은 아동단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늘 아동단원들을 평가하시어 그들을 교양하시고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저녁마다 가지는 모임때마다 아동단원들의 생활과 임무수행정형을 어김없이 총화해주셨고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지적해주고 잘못된점을 제때에 고쳐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언제나 얼굴에 묻은 때를 거울을 보고 닦듯이 자기의 생활을 ***다고 하시면서 비판을 싫어하고 대중앞에서 자신의 결함을 숨기려고하는 사람은 참된 아동단원이 아니며, 혁명가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또한 혁명의 후대들인 아동단원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굳세게 키워나가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으로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언제나 미시가루가 든 양식주머니와 소금, 내의, 모포, 옻나무껍질에 싼 딱성냥 공책, 연필등을 가지고 다녔어요. 배낭뒤에는 곤봉을 두개씩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아동단원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 부닥쳐도 굳세게 살며 싸워나갈수 있는 전투의 무기였으며 생활도구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토벌대놈들이 달려들면 ***아동단원들을 이끄시고 유격대원들을 도와 힘껏 싸우시곤 하셨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친부모도 주지못할 뜨거운 사랑을 주셨으니 정녕 이 나날에 아동단원들을 위해서 바치신 그 사랑과 은정은 뭇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끼니를 거르시면서도 먹을 것이 좀 생기면 항시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린 아동단원들에게 나누어주셨고 자신께서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적통치구역 마을들에 나가셨다 돌아오시면 아무리 ***도 아동단합숙부터 들리시어 그들이 어디 다쳤거나 앓는 아이는 없는지 알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곤 하셨답니다.

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에게 베푸신 그 정성은 그들의 운명과 조국의 앞날을 연결시킨 혁명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의 품, 그들 모두를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시려는 가장 고귀한 은정이였습니다. 이 나날 **김정숙**어머님께서 아동단원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투지를 키워주시기 위해 바치신 노고는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녕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적인 교양과 세심한 보살피심으로 인해서 아동단원들은 **김일성**주석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소년전사로 미덥게 성장할수 있었습니다.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공적

(평양 주체 87년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21일부 ≪로동신문≫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1돐을 맞으며 어머님께서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전통을 마련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쓰고있다.

≪위대한 **김정숙**동지는 혁명적동지애의 최고귀감이시다≫라는 제목의글에서 필자는 오직 동지들을 위하여 한생을 살아오신 어머님은 동지들에 대한 헌신성에 있어서나 고결한 량심과 의리에 있어서나 그누구도 지닐수 없는 가장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높이 발양된 가장 숭고한 동지애이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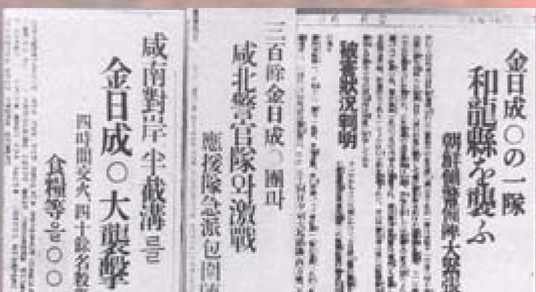
신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숙동지께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끝없는 충실성은 모든 동지적관계의 출발점이였고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높이 발양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동지애만이 참다운 동지애이며 수령을 떠난 그 어떤 동지애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김정숙**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이 충성심이야말로 어머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의 근본초석이며 바로 여기에 어머님의 동지애의 근본특성이 있고 그 숭고성이 있는것이다. 신문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혁명적동지애의 숭고성은 동지들에대한 무한한 헌신성, 희생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동지들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원칙적인 사랑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숭고성은 또한 한없이 고결한 동지적의리로 수놓아져있는데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의 혁명선렬들에 의하여 창조된 동지애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끗끗이 이어져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숙녀사의 업적을 칭송

각국당령도자들


金日成○の一隊 和龍縣を襲ふ
三百餘金日成○團과 咸北警官隊와激戰
咸南對岸半截溝를 金日成○大襲擊

김정숙동지께서 참가하신 주요전투에 대한 신문보도

(평양 주체 87년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세계 여러나라 당령도자들이 이에 대한 전문을 계속 보내여오고있다.

미국로동자세계당 위원장 쌤 마씨는 빨찌산투사 **김정숙**영웅의 생애는 인민들의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의 모든곳에 알려져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함께 그이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해방전쟁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진보당 전국위원장 라꾸뚜만딤비 쎌레스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빨찌산의 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한생을 바쳐 벌리신 위대한 투쟁은 언제나 우리들의 투쟁의 기치로 될것이며 어머님의 존함과 빛나는 업적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 구스만 리베라 까스따네다,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난 라포 무뇨스, 도미니까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령도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영원히 빛나는 존함

김정숙녀사81돐기념

(평양 주체 87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12월 24일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81돐이 되는 날이다.

김정숙동지(1917. 12. 24 부터 1949. 9. 22)의 한생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또한 준엄한 항일혁명과 새 조국건설의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효와 문무를 겸비한 주체혁명위업의 걸출한 계승자로 키우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녀사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생애는 오늘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이것은 녀사의 혁명활동업적이 깃든 **김정숙**군을 비롯하여 전국각지많은 단위들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나라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량강도 **김정숙**군은 녀사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주석의 주체적혁명로선을 높이 받드시고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지하공작사업을 벌리신 곳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녀사께서 혁명조직을 확대하고 군사정치활동과 원군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며 리용하시던 사적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김정숙종합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등은 친위전사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신 녀사의 숭고한 뜻과 군건설사업에 바치신 그이의 로고를 감명깊이 되새겨보게 한다.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데 헌신하신 녀사의 업적은 **김정숙**사범대학, **김정숙**교원대학, **김정숙**제1고등중학교 등에도 어리여있다.

이밖에도 **김정숙**휴양소, **김정숙**료양소, **김정숙**탁아소를 비롯하여 녀사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단위들이 많다.

김정숙동지의 풍모를 전하는 혁명설화들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과 풍모를보여주는 혁명설화들이 수많이 전해지고있다. 설화 ≪백발백중사격술의 비결≫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익히시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24(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갓 입대하신 그이께서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사격경기에 나서게 되시였다. 처음 참가하는 사격경기였지만 그이께서는 여유작작하게 목표판을 모두 명중하시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백발백중의 비결을 묻는 대원들에게 그이께서는 내가 쏜 탄알이 한알이라도 빗나가면 장군님을 보위할수없고 조선혁명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이 광복된후 새 조국건설사업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김일성**주석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리고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헌신성을 보여주는 ≪새벽일과≫, ≪탁상전등과 전등갓≫, ≪지성어린 우산≫, ≪온포천(충성의 다리)≫ 등의 설화들은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백두의 녀장군의 기지≫, ≪몸소 선거선전원이 되시여≫, ≪동지를 위해 걸으신 밤길≫, ≪인민의 충복이 되라 하시며≫ 등 지금까지 알려진 수백편에 달하는 설화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지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무비의 담력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설화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을 크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

(평양 주체 88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격찬하는 일화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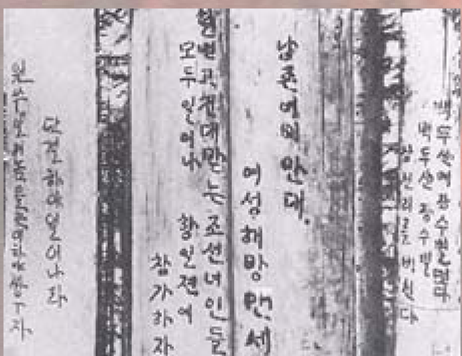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녀사께서는 그때부터 변함없이 총과함께 혁명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생애의 자욱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시였다.

1940년 여름에 있은 대사하치기전투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산중턱바위에 올라서시여 전투를 지휘하고 계실 때 곁에서 주변의 정황을 예리하게 살피시던 녀사께서는 다섯놈의 적들이 주석께서 계시는 산중턱에까지 은밀히 기여들어 총을 겨누고있는것을 발견하시였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녀사께서는번개같이 그이를 막아나서시며 싸창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주석께서도 녀사의 어깨너머로 총을 쏘시여 적들은 순간에 전멸되였다. 항일대전의 나날 주석의 신변사에 겹쳐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다 이렇게 녀사께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여 막아나서시였다. 주석께서는 생전에 늘 **김정숙**동무는 여러번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었다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여있었다고 뜨겁게 회고하군 하시였다.

새조국 건설시기에도 녀사께서는 주석의 신변안전에 온갖 심혈을다 기울이시였다. 1946년 2월중순 어느날 주석께서는 저택에서 밤늦도록 선전부문일군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가까운곳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이어 전등이 꺼졌다. 모두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할때 주석께서는 태연한 어조로 몇놈의 쥐새끼들이 쏠라닥거리는 모양인데 좀 쉬고 이야기를 계속하자시며 출입문쪽으로 향하시였다. 어느새 싸창을 드신 녀사께서는 절대로 나가실수 없다고, 이것은 경위대의 요구라고 강경히 말씀하시며 두팔벌려 문을 막아나서시였다. 녀사의 이 숭고한 모범을 거울로 삼아 광복직후 경위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한 최정예부대로 자라났고 조선인민은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켜냈다.

짧은 한생을 불같이 살며 보여주신 **김정숙**동지의 전설같은 일화들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충성의 별로빛나고있다.

김정숙동지를 칭송한 구호문헌들



김정숙동지께서 나무에 쓰신 구호

(평양 주체 88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각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칭송하는 구호문헌들이 많다.

이 구호문헌들은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선렬들이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존함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나무들에 새긴 글발들이다.

량강도와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있는 구호문헌 ≪항일의 녀장수 **김정숙**장군 만세 1945. 5≫, ≪천출장군 **김정숙** 여기왔다 1941년≫, ≪백두산 녀장수 **김정숙**≫등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대전의 나날 녀사의 위인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평안북도 운산군, 라진－선봉시 일대에 있는 구호문헌 ≪암흑천지에시달리는 조선민족아 그대를 구원할 위인 **김일성**, **김정숙** 수만병사거느리고 여기왔다 1942년≫, ≪조선항일녀장수 **김정숙** 여기 출현1941년≫, ≪항일군 **김정숙**녀사 항일군사령관 **김일성**장군 최후결전위업 보좌하시여 조국땅 여기에 오셨다 1945. 5≫ 등의 글발들은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신 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여러 곳들에는 녀사께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의 백두광명성으로 안아올리신 업적을 천만년 전하는 구호문헌≪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만세 만만세≫, ≪항일총사령 **김일성** 녀장군 **김정숙** 조선의 광명성상봉 1942. 6≫ 등의 글발들이 있다.

이밖에도 온성군, 무산군, 명천군, 단천시 등 많은 시, 군들에녀사께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김일성**주석을 결사옹위하신 업적을 전하는 구호문헌들이 있다.



김정숙녀사의 동상에 비전향장기수들 꽃다발 진정

(평양 주체 89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을 맞으며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23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의 광복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로씨야에서 경축집회

(평양 주체 89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에 즈음하여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의 주최로 19일 모스크바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 리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과 리사회성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와 협회성원들, 이전 쏘련영웅들, 빠뜨리오뜨신문사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며 어떻게 지켜 내는가, 수령의 위업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적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숙**녀사의 업적에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것이며 현대조선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안아 올리심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이 훌륭히 계승되도록 하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숙녀사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각국 인사

(평양 주체 89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 진보적인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보내여 온 전문들에 뜨겁게 반영되여 있다.

뽈스까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스따니스와브 오그니크는 애국주의정신을 지니시고 일찌기 유년시절부터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구한 투쟁기간 열렬한 애국자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녀성혁명가로 명성을 떨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나 안드레예바는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의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올리신 그이의 업적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이의 불 타는 애민, 헌신의 한생은 근로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국주체사상－**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더모트 후드손은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호위전사이시였으며 불굴의 녀성영웅이시였다고 하면서 녀사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뿌에르또 리꼬의 정계인사 길레르모 모랄레스 꼬레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주체의 나라로 전변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 쌓아 올리신 수많은 빛나는 공적들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다르 에스 살람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책임자 에르네스트 치타리카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옹위하심으로써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신 **김정숙**녀사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평양 주체 89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경축행사가 21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 로씨야공산당－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알렉쎄이 쁘리가린, ≪근로하는 로씨야≫운동 집행위원회 위원장 웨. 이. 안삘로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 등 로씨야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록화물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감상하였다.

또한 ≪**김일성**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인민들속에 계신다≫와 ≪조선로동당창건 55돐 성대히 경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한 사진들을 돌아 보았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지난 기간 어렵고 간고한 길을 걸어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마지막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허물어 버리려고 발광하였다.

조선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적이며 강력한 나라라는것을 온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그 무엇으로써도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있는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연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을 맞으며 그이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축하를 드리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원칙이 강하시고 강의하시며 현명하신 령도자이시다.

이처럼 훌륭한 령도자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3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쏘피아에서 20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알렉싼더르 빠우노브를 비롯한 당정치국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뿌찐대통령과 상봉≫을 감상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평양 주체 89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83돐에 즈음하여 뻬루와 파키스탄, 에짚트, 이딸리아에서 최근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 빅또르 올리바 미겔을 비롯하여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들,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 아크라크 아크타르 하미디는 토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지도자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의 군사적예지는 군사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조예를 지니시고 현시기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환히 밝혀 주시는 선견지명의 예지이며 모든 군사문제들에 창조적으로 대하고 림기응변해 나가시는 독창적인 예지이다.

오늘 조선인민군이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신념이 투철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력을 떨치게 된것은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낸은 고귀한 결실이다.

이딸리아 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까따니아지부 책임자 아마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는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생명선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조선이 류례 없는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놓는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것은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과이다.

뻬루**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위원장 떼레싸 오띠디아노는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우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 배우는것은 뻬루뿐아니라 세계 혁명적녀성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이며 자랑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도록 하신 녀사의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